

사화전설집



진주성의 수리개



평양출판사
주체111(2022)년

사화전설집

진주성의 승리개

평양출판사
주체111(2022)년

차 례

효도는 가난을 탓하지 않는다	2
새각시의 도리	14
건강장수의 비결	28
삼계탕	45
늙은이에겐 음식대접이 제일	56
하공진	69
칭기스한의 사신을 길들인 김희제	81
부부간의 겨루기	90
진주성의 수리개	108
지성이면 감천	132
새것에 민감하면 공을 이룬다	144
초년고생을 달게 여기라	160
박관춤	173
단군의 넋을 불러	189

효도는 가난을 탓하지 않는다

옛날 강원도의 어느한 산골마을에 시어머니를 모신 설릉이 살고있었다.

동장군이 푸념질속에 쫓겨간다는 봄이라지만 두메산골마을에는 여전히 쌀쌀한 바람이 불어댔다.

오늘 새벽에도 첫닭이 회를 치자 일어난 설릉은 두사람분의 밥을 지었다.

한그릇은 시어머니에게 드릴 조밥이고 다른 한그릇은 제가 먹을 뽕은 도토리범벅이었다.

밥상을 챙겨가지고 방에 들어서니 바느질을 하던 시어머니가 허를 차며 말했다.

《어느새 밥을 지었구나. 일숨씨가 날래기란 참…》

밥상을 굽어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엄해졌다.

《어쩌면 한식술이 판가마밥을 먹을수 있단 말이나.》

설릉이 웃으며 대꾸했다.

《어머님은 앓지 앓소이까. 아직 고뿔도 낫지 않았는데…》

로파의 목소리가 엄해졌다.

《내 어찌 시에미를 위해주려고 하는 너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그리고 남정네를 위해 좁쌀을 아끼는줄도 안다. 나도 아들이 보고싶은데 독수공방하는 네 마음이야 오죽하겠느냐.》

설릉의 두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요즘 설릉은 남편이 그리워 상사병이 날 지경이었다.

걱걱 푸드득 장끼 갈제 아로롱 까투리 따라가듯하는게 부
부라는데 마음 갈아서는 지금 당장 님이 일하는 곳으로 달려
가 뒤바라지를 해주고싶었다. 설릉의 남편은 신방에 든지 며칠
만인 세해전 정초 마을의 장정들과 함께 서쪽으로 사흘길이
되는 곳에 있는 산성공사장에 나갔다.

로파는 눈물이 가랑가랑한 설릉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일이 바로되었더라면 지금쯤은 떡돌같은 손자를 안고있으려
만... 하늘도 무심하기란...)

혼례식날은 그렇다치고 그동안 아들이 두번씩이나 집을 다녀
갔지만 두벌자식을 태이는 복이 등을 돌려댔는지 며느리에게
태기가 엿보이지 않았다.

시집온 그날처럼 몸이 날씬한 며늘아기를 보기 민망하여 지
난해 가을에는 색다른 음식감을 꿩져주어 공사장으로 보냈었
다. 했지만 태기는 여전히 종무소식이니 기가 막혔다.

(한집안의 흥망성쇠는 재물이 아니라 끝날같은 자손들을 몇
이나 두었는가에 따르고 늙은이는 두벌자식을 보아야 마음놓
고 눈을 감을수 있다는데 이다지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
하니...)

긴 한숨을 내뿜은 로파가 자기의 국사발에다 도토리범벅을
절반나마 덜어넣었다. 그리고 그만한 량의 조밥을 설릉의 밥그
릇에 옮겨담았다.

《아가, 시어미가 매정하게 효도를 뿌리친다고 생각지 말아.
이것이 백미밥이라고 해도 내 혼자 먹으면 목에 걸린다. 난 그
저 네 마음이면 족하다.》

설릉은 친어머니와 다를바없는 그 정에 가슴이 몽클하였다.
몇술 밥을 뜨던 로파가 중얼거렸다.

《꿀벌등지가 또 있으면 좋으련만...》

그 말에 설릉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마을주변의 참나무숲에 땡땡 여문 도
토리가 땅을 한벌 덮는다.

땅이 척박한 산골이라 밭농사는 잘되지 않아도 해마다 도
토리는 풍년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온 가을내 산판을 오르내리며 도토리를 주
어들여 식량보탬을 하였다.

지난해 가을이었다.

그날도 뒤산의 바위벼랑아래에서 도토리를 줏던 설릉은 문
득 들려오는 붕붕 소리에 고개를 쳐들었다. 했더니 두길 높은
바위벼랑우에 구새먹은 나무가 솟아있고 바로 거기에 벌들이
무리지어 날아드는것이였다.

가만 보니 꿀벌이 틀림없었다.

바로 구새먹은 나무속에 꿀벌이 등지를 틀고있었다. 꿀에
마음이 끌리였지만 험한 벼랑으로 기여오르기도 두렵고 벌에
쏘이는것도 무서워 꿀벌등지에 손을 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허나 꿀이 기침병에 좋다는 생각에 설릉은 벼랑우에서 눈길
을 떼지 못하였다. 꿀벌등지를 쳐다보는 설릉이의 눈앞에 겨울
이면 기침으로 고생하는 시어머니가 보이는듯싶었다.

(그래, 내가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효도했다고 내놓고 자랑
할만한게 뭐가 있담. 그저 끼식이나 끓이고 빨래나 했을뿐이
야. 그런건 아녀자라면 누구나 다하는것이야. 기침병으로 고

생하는 시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려야 진정 효도를 했다고 할 수 있어.)

집살림이 너무나도 구차하여 색다른 음식감이나 귀한 약을 살 돈이 없으니 그게 다 마음뿐이고 그림의 떡인것만은 사실이다.

하다면 효도는 가난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잘못된 말인가.

아니, 강산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게 풍습이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 그른데 없다고 가난할지라도 애쓴다면 어찌 부모님께 기름진 음식을 대접할수 없으며 효험있는 약을 구해올리지 못하겠는가.

제 살가죽이 찢기우는것을 두려워해서는 효도를 할수 없다.

마침내 강심을 먹은 설릉은 이를 사려물고 벼랑우로 기여올라가 꿀을 따내고야말았다.

꿀을 따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설릉은 사방이 찢기우고 벌에 쏘여 퉁퉁 부었지만 몸은 훨훨 날아가는것만 같았다. 그렇게 따온 꿀로 시어머니에게 약을 지어올렸을 때의 심정이란 온 세상을 얻은듯싶었다.

그런데 후에 알고보니 시어머니는 그 약을 고스란히 공사장의 아들에게 보내준것이였다.

로파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 점심부턴 나도 도토리범벅을 먹겠다. 좁쌀은 그대로 두었다가 네 랑군에게 보내자꾸나.》

설릉이 밥상을 내가기 바쁘게 로파는 바늘을 집어들었다.

아들에게 보낼 버선을 짓던 로파는 이번에는 직접 머느리

를 달고가서 대를 잇는 그 일을 성사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편 부엌에서 설것이를 하는 설릉의 생각은 남편에게 가 있었다.

(랑군님이 배고파하겠지. 객지밥은 배고프다는데 무거운 성 돌을 나르는데야 오죽하겠는가. 그것도 그것이지만 시어머니에게 도토리범벅이나 대접하는걸 랑군이 안다면 가슴아파하겠는데... 랑군에게 지성이 부족하면 시어머니가 걱정하고 시어머니에게 효성이 부족하면 랑군이 걱정하고... 가난이란게 사람의 목을 조이는구나. 호- 이 집에 시집을 온지도 벌써 세해가 흘렀구나.)

네해전 늦가을 어느날이었다.

그날 설릉은 도토리를 줏는 정신에 해가 떨어지는줄도 몰랐다.

땅거미가 깃들어서야 허둥지둥 헤덤벼치며 도토리짐을 지고 일어서는데 웬 짐승이 앞을 막는것이였다.

그게 사납기 그지없는 승냥이임을 안 설릉은 너무도 무서워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요!-》

그 소리에 성이 났던지 승냥이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도토리짐을 내던진 설릉은 나무를 안고 몸부림쳤다.

깡충 뛰어오른 승냥이가 설릉이를 물어뜯으려는 찰나 난데없이 몽둥이가 휘익- 날아들었다. 몽둥이는 면바로 승냥이의 골통을 내리쳤다.

어찌나도 호된 몽둥이인지 승냥이는 쾅- 소리를 지르며 털썩 나자빠졌다.

몽둥이는 연방 꿈틀거리는 승냥이에게로 날아들었다.

승냥이가 빠드리져서야 몽둥이는 땅에 멈춰서고 그와 동시에 귀에 익은 사나이의 목소리가 울리었다.

《설릉, 무서워말어. 나 우돌이야.》

그제서야 무섭증이 달아난 설릉은 몽둥이를 지팡이처럼 척 짚고선 사내가 한마을총각임을 알아보았다.

그전부터 설릉을 마음에 두고있던 우돌이 그날도 그의 주변에서 도토리를 주으며 지켜주고있었던것이였다.

그것이 인연으로 되어 설릉이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되였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했어. 우리 부부가 다정하고 우리 집안이 화목한데 앞으로 꼭 잘살 날이 올거야.)

설것이를 마친 설릉은 도토리싸래기를 우려내는 일에 달라 붙었다.

시어머니도 도토리범벅을 들겠다니 더 잘 우려내야 했다.

몇되박의 도토리싸래기를 나무함지에 쏟아넣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넣으니 쯔 있어 부어넣은 물이 밤빛으로 물들기 시작 했다.

한나절 물을 갈아주면 뽕은맛이 한결 덜해진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에게 도토리범벅이나 대접해야 하니 설릉의 마음은 여간 쓸쓸하지 않았다.

(어이하여 도토리는 밤과 달리 그 맛이 뽕어가지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것일가.)

뽕은 도토리범벅으로 점심을 차린 설릉은 시어머니앞에 고개를 들수 없었다.

(아, 이렇게밖에는 할수 없단 말인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설릉은 마음이 괴로워 잠들수 없었다.

(도토리야, 너의 모양은 보기 좋건만 어이하여 맛은 그리도 고약하냐.

너는 정녕 고소한 밤처럼 되어줄수 없단 말이나.)

향방없이 흘러가는 생각속에 한가지 그럴듯한 궁냥이 안겨왔다.

도토리를 썰래기로가 아니라 가루를 내어 우리면 어떨가. 약초도 잘게 부스러뜨릴수록 약물이 더 잘 우리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다.

이튿날 설릉은 뜨락에 망돌을 차려놓았다.

밤새 물에 담가놓았던 도토리썰래기를 망돌에 갈아 두부자루에 넣고 찌니 자루속에는 찌끼만이 남았다.

목함지에 발아낸 도토리물을 독에 퍼담은 설릉은 앙금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앙금이 가라앉자 조심히 바가지로 밤빛으로 물든 물을 퍼냈다.

이렇게 거듭거듭 우려내면 뽕은맛이 더 잘 빠질것이었다.

사흘이 지나갔다. 그동안 여러번이나 물을 갈아주어서인지 밤빛이었던 앙금이 퍼그나 희여졌다.

설릉이 숟가락으로 도토리앙금을 떠서 맛을 보니 정말 이상할 정도로 뽕은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설릉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신기하구나. 이것으로 범벅을 지으면 별맛일게야.》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오며 말했다.

《내 보기에도 별맛일것같다. 그런데 힘들게 장만한 앙금으

로 범벅을 지어먹으면 헤퍼서 쓰겠느냐. 그럴것없이 죽을 쑤어먹자구나.》

설릉은 시어머니의 기분을 거스르고싶지 않았다.

《알겠사와요.》

죽가마가 끓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직접 주걱을 쥐고 죽이 끓어넘을세라 가마바닥을 긁으며 저어주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결 불 안이라고 눈맛이 좋은게 죽맛도 좋겠다.》

로파가 기뻐하니 설릉이도 기뻐서 말했다.

《전 장을 떠오냈으니 어머니 죽을 자배기에 담아주세요.》

《오냐.》

뒤뜨락의 장독대로 다가간 설릉은 장 한그릇을 퍼담고 울담 밑에서 파릇파릇 돌아난 푸초를 한줌 뜯었다.

이윽고 설릉이 부엌에 들어서는데 로파가 도토리앙금죽을 퍼담은 자배기를 가리켰다.

《아가, 이걸 보렴. 이게 무슨 조화냐?》

설릉이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사이 자배기에 퍼담은 죽이 식었는데 밤빛의 광택을 뽐는듯싶었다.

그것을 들여다보던 설릉이 고개를 기웃거렸다.

《어쩜 록두묵과도 같을까?》

로파도 혀를 차며 말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이게 록두묵과 빛갈만 다를뿐 신통하거던.》

설릉은 선뜻 자배기에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이 나라 사람치고 록두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비취옥과 같은 색을 내는 록두목은 시원하면서도 담담한 맛으로 하여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그렇다고 록두목은 흔하게 해먹을수 있는게 아니다. 왜냐하면 록두가 귀하기 때문이다.

록두는 다른 작물과 달리 소출이 적게 나서 일반백성집들에서는 약처럼 쓰인다. 도토리앙금죽도 록두목처럼 별맛스러우면 얼마나 좋을가.

간절한 기대를 안고 설릉은 자배기를 들어 도토리앙금죽을 칼도마우에 쏟아놓았다. 자배기모양으로 굳어진 죽에 칼을 가져다대니 록두목을 써는 느낌이었다. 설릉은 록두목처럼 네모지게 썬 파들파들한 도토리앙금죽을 도로 자배기에 담았다.

그리고 제각 양념장을 만들었다.

《어머니, 양념장에 발라 맛 좀 보소이다.》

로파가 웃으며 대꾸했다.

《먹어보나마나 록두목처럼 별맛일게다.》

양념장을 자배기에 친 로파는 도토리앙금죽을 한숟갈 떠 들었다.

《아가, 이걸 내가 먼저 맛을 보아야겠다. 아— 어서!》

설릉은 보다 처음인 별식을 떠느리부터 맛보고싶어하는 시 어머니의 마음을 외면할수가 없어 입을 벌렸다.

그러기를 기다리던 로파가 얼른 설릉의 입에 숟갈을 가져갔다.

입에 들어온 도토리앙금죽은 록두목마냥 저절로 넘어가는것

이였다. 그리고 맛도 록두묵에 짝지지 않을것같았다.

《어머니, 이건 죽이 아니라 묵이오이다. 도토리묵. 자, 어머니도!》

이번에는 설렁이 시어머니의 입에다 도토리묵을 떠넣었다.

그것을 꿀꺽 삼킨 로파도 환성을 질렀다.

《이 맛 기가 차는구나. 록두묵이 왔다 울고가겠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서로서로 권하며 부엌에 선채로 도토리묵을 떠먹었다. 아주 맛있는 도토리묵을 맛나게 든 두 녀인은 서로 마주보며 껄껄 웃었다. 이윽고 로파가 탄복하여 말했다.

《이건 정말이지 록두묵에 비길만한 상음식이다. 이걸 보니 내가 소시적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는구나.

옛날 어느 산골마을의 주막집이 손님들에게 갖가지 음식을 맛있게 대접하여 소문이 났다누나. 그중에서도 특히 도토리묵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비방을 알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헛탕을 치고 돌아가곤 했다누나.》

로파는 눈물이 글썽해서 설렁의 손을 꼭 감싸쥐었다.

《아가, 난 지금껏 도토리묵이 있다는걸 옛말로만 생각해왔다. 헌데 지금 보니 아니로구나.》

《어머님!》

《아무렴, 우리 며늘아가가 누구라구. 가난을 탓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바로 그 마음이 도토리묵의 비방을 찾게 했구나.》

감격한 설렁이 시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어쩔 우리 시어머님은 이리도 마음이 고올가. 값진 고기불이도 아닌 이렇게 무슨 대단한 음식이라고... 내 아무리 가난

해도 효도만은…)

설릉을 품에 꼭 껴안은 로파는 두벌자식을 안은 심정이
었다.

《아가, 내 이번에 너와 함께 부역장에 가보련다.》

함뻑 웃음을 머금었던 설릉의 두눈이 둥그래졌다.

《그 먼델?!...》

《글쎄, 허락하지?》

설릉은 로파의 손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정 가시겠다면 제가 업고라도 가겠사와요.》

《아무렴, 나라위해 땀흘려 일하는 남정들에게 도토리묵을
대접하고싶어 그런다. 그리고 또… 또…》

갑자기 말을 갑자르는 로파를 보다못해 설릉이 안타까이
재촉했다.

《또 무엇을 하고싶어 그러나이까, 예?》

로파는 침을 모아 삼키고나서 한손을 내저었다.

《그… 그건 거기 가면 절로 알게 되느니라.》

로파는 기분이 좋아서 크게 웃었다.

설릉이 늘 집안의 대를 잇는 일에 원심을 쓰는 늙은이의 능
청스러운 속마음을 어이 모르랴.

며칠후 설릉이를 앞세운 로파는 산성공사장을 찾았다.

완공단계에 들어선 산성공사장을 찾은 로파의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난생처음 보는 도토리묵으로 남정네들을 즐겁
게 해주고 더는 미룰수 없는 집안의 중대사도 뜻대로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기쁨이 앞서지 않겠는가.

이듬해 설릉이는 로파의 소원대로 떡돌같은 아들을 낳아주

었다.

두벌자식을 받아든 로파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성축공사를 마친 자랑을 안고 남정네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로파는 두벌자식의 백날에 도토리묵을 잔치상에 올리였다.

도토리묵이 잔치상에 오르게 된 사연을 안 마을사람들은 이 구동성으로 설렁이를 효녀라 칭찬해마지 않았다.

소원대로 슬하에 여러명의 두벌자식을 거느린 로파가 만족 속에 세상을 버리고 어느덧 설렁이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였다.

세월은 류수라고 어느덧 할머니가 된 설렁은 젊은이들에게 가난을 탓하면 효도를 할수 없고 정녕 부모를 위하여 한다면 심신을 다 바쳐야 한다고 일깨워주곤 하였다.

그후 도토리묵은 근기도 있고 배앓이를 다스리는 약효로 하여 사람들이 즐겨 먹을뿐 아니라 강원도의 특산으로 전해지고있다.

전 철 호

새각시의 도리

옛날 고구려의 어느한 마을에서 있는 일이다.

가을 어느날이었다.

소쩍－ 소쩍－

이제는 밤기운도 어지간히 진해버렸는지 은하수를 에워싼 못
별들도 깜박깜박 조는 자정무렵.

하건만 마을의 한가녀에 자리잡고있는 우달이네 집 옷방에
서는 희미한 광술불이 꺼질줄 몰랐다.

치마폭으로 감싼 두무릎위에 턱을 고인 애젊은 녀인이 방
에 오도카니 앉아있었다. 시름에 잠긴 녀인의 두눈에는 눈물
이 가랑가랑하였다.

아랑이라 부르는 녀인의 입에서는 가는 한숨소리가 느닷없
이 흘러나왔다.

《에그 참…》

소쩍－ 솟쩍다－

이밤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소쩍새의 처량한 울음소리는 아
랑이에게 외로움과 슬픔을 덧쌓고있었다.

《에그, 랑군님의 병을 완쾌시킬수는 없는지…》

이윽고 아랑은 눈길을 돌려 해묵은 기침병으로 신고하던 끝
에 방금전야 겨우 잠든 남편을 굽어보았다.

이제는 남정네의 병구완에 지칠대로 지친 그였다.

시집살이 반년이자 남정네의 병구완 반년, 그 반년에 지칠대도 지쳐서인지 요즘은 때없이 한탄이 나오곤 하였다.

부모님은 어이하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을 부디 부디 골라 기침병으로 골골 앓는 사내에게 보냈는지...

아랑은 축축히 젖어드는 눈굽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떠나온 고향마음이 보이는듯싶었다.

아랑의 고향은 시집에서 백수십리 떨어진 별방이다.

아랑이 우달에게 시집온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10여년전 아랑이의 아버지와 우달의 아버지는 나라의 변방에 기여든 외적을 쳐물리치는 싸움에 함께 출전하였다.

오랜 사냥군인 우달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명궁이라 할만큼 활을 잘 쏘았을뿐 아니라 날래고 검술에도 능하였다면 아랑의 아버지는 농사에는 밝아도 무술에는 어두웠다.

싸움이 계속되던 어느날 수적으로 우세한 적군이 끝내는 고구려군이 진을 친 산성의 한벽을 타고 넘어들어와 가렬치절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적아를 가려보기 어려운 혼전속에서 향방없이 창을 휘두르던 아랑의 아버지는 누구인가가 세차게 떠미는 바람에 쓰러지고말았다.

땅에 쓰러진 그가 깜짝 놀라 눈길을 쳐드니 친형처럼 따르던 우달의 아버지가 사방으로 달려드는 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었다.

바로 우달의 아버지가 친동생같이 여기는 아랑의 아버지를 구원하자고 그를 떠밀쳐 넘어뜨린것이다.

그 마음을 안 아랑의 아버지가 땅을 차고 일어섰을 때에는

이미 달려들던 적을 쳐부신 우달의 아버지가 피가 랑자한 가슴을 그리안고있었다.

적들의 창에 가슴을 찢린것이였다.

《형님!》

아랑의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았을 때 숨을 거두며 그가 남긴 말은 아들을 부탁한다는 당부였다.

그날 힘겨운 격전은 고구려군의 승리로 끝이 났건만 아랑의 아버지는 땅을 치며 목놓아울었다.

《나를 살리자고 형님이 죽었구려. 형님!...》

홍포한 외적을 쳐이긴 그해 귀향길에 오른 아랑의 아버지는 우달이네 집부터 찾았다. 우달의 어머니도 오래전에 병을 만나 잘못되고 늙은 할머니가 우달이와 함께 살고있었다.

열댓살이 났다는 우달은 서너살아래의 코흘리개들처럼 키도 작고 뼈대도 어린데 그나마 쿨룩쿨룩 기침을 하고있었다.

그야말로 쿨룩쟁이 병다리라고 할만하였다.

그게 태어난지 몇달만에 어머니를 잃고 고생이 심한때문이라는 로파의 말은 아랑이 아버지의 가슴을 허비였다.

동정심에 북받친 아랑의 아버지는 우달이의 손을 꼭 잡고 말하였다.

《애야,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사는것이 어떠하냐?》

했더니 우달은 조상이 묻혀있는 고향을 떠날수 없다고 딱 자르는것이 아닌가. 그에 감동된 아랑의 아버지는 우달의 또래인 자기 딸이 나이가 들기를 기다렸다가 그한테 시집을 보내였다.

혼례식 전날 아버지는 아랑이를 불러왔히고 우달이네 형편을 일일이 알려준 다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굳이 우달이에게 널 시집보내자고 하는것은 단지 전장에서 이 아빌 목숨바쳐 구원해준 그 집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우리 고구려녀인들은 예로부터 국난이 닥칠 때면 제 집 남정들을 전장에 내세우는것을 도리로 여겨왔다. 이젠 너도 시집을 가는 몸이니 새각시라고 할수 있다. 고구려의 새각시라면 설사 그가 병약한 지아비일지라도 잘 보살피여 씩씩한 대장부로 일떠세우는것이 참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난 네가 새각시로서의 도리를 지키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아량은 랑군을 자기 손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우려는 마음을 가질수 있었던것이였다.

하나 꺾어보니 말과 실천은 다른것같았다.

사람들은 흔히 반년이라면 긴긴 인생살이에서 눈 한번 깜박일만큼 아주 짧은 세월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아량이란테는 그 반년이 남들의 석삼년만큼이나 기나긴 나날이였다. 남편의 시중을 드는 일은 결코 험하지 않았다.

처음 이 집에 와보니 남정네의 정상이 말이 아니였다.

사나이 스무살이면 한창 혈기왕성한 때인데 우달은 어려서부터 기침병과 같은 잡병에 시달려오고 게다가 늙은 할머니를 봉양하느라 고생해서인지 피지 못해 여위고 키도 작아 흡사 아이같았다.

그런 몸으로 신방에 든 그가 아무리 한창때인들 사내구실에 엄두나 낼수 있으랴. 그래도 그쯤한건 모르쇠를 할수 있었다.

피로운 일은 그후에 일어났다.

처음 아량은 두팔걸고 집살림을 맡아하면서 우달을 극진

히 돌보았다. 기침과 몸보신에 좋다고 하는 약재라면 덮어놓고 구해들이고 그것을 달여먹이느라 어느 하루도 애쓰지 않은적 없었다.

하지만 어인탕인지 우달이에게는 백약이 무효였다.

알고도 죽는 병이 기침병이라지만 그래도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는 일념으로 애를 써왔는데 안타까운것은 요즘 우달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약을 쓴 외 보듯하면서 입에 통 대지 않는것이다.

한다는 말은 자기는 이미 저승문턱에 들어선 병다리라 더는 미련을 가지지 말고 본가로 돌아가 팔자를 고치라니 억이 막혔다.

(어이하여 내 랑군은 온 동네의 바래움속에 씩씩하게 군사로 뿔어나가는 남의 집 사내들의 축에 끼울 생각은 않고 기가 죽어 저러는걸가.

이것도 다 나의 지성이 부족한때문이 아닐가.)

그때문에 이밤 아랑이의 마음이 더더욱 괴로운것이였다.

(호- 정녕 난 새각시의 도리를 지킬수 없는것인지...)

남들이 지금 오도카니 앉아있는 아랑이의 모습을 본다면 십중팔구 구슬프게 들려오는 소쩍새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자기의 가공한 신세를 한탄할거라고 여길것이지만 그의 내심은 그런것이 아니였다.

지금 아랑은 어릴적에 들은 온달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며 자기를 질책하고있었다.

평강공주가 아니었다면 《바보온달》이라 불리운 그가 결코 외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고구려의 장군이 되어

명성을 떨치지 못했을것이다. 그 공주야말로 진짜 고구려녀인
이라고 할수 있다. 부왕이 골라주는 부마감도 마다하고 굳이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는 가난한 집 온달에게 시집을 가서 그
를 용명한 장군으로 나라앞에 내세우지 않았던가.

(나도 공주처럼 내 랑군을 나라에 쓸모있는 사내대장부로
내세워야 하겠는데... 정녕 기침병을 고칠 약은 없단 말인가.)

이윽고 아랑의 두눈에 생기가 머금어졌다.

《백번 닭아 윤기나지 않는 그릇이 없느니라.》라고 하던 어
머니의 말이 생각났기때문이었다.

얼마전 아랑이를 찾아왔던 친정어머니는 진짜가 낀 어지러
운 그릇일지라도 닭고 또 닭으면 윤기가 돌듯 온갖 정성을 기
울인다면 반드시 병든 사내도 사내구실을 할것이라는 당부를
남기었다.

(웁아. 난 아직 온갖 정성을 기울이지 못했어.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는게 무엇이겠어. 일년을 하루와 같이 날마다 낮과 밤
이 따로없이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쏟아붓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난 어떻게 했던가.

기껏 마을근방에서만 맴돌면서 몇가지 약초만을 가지고 랑
군의 병을 고치려 했지. 그러니 어찌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고 하겠는가.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가야 명의도 있고 좋은 약도 있을것
이다.

웁아. 넓고넓은 세상에는 별의별 기이한 의술을 지닌 의원
들이 많을것이니 천리인들 마다하지 말아야 해.

아, 내 지금껏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집뜨락에서나 맴돌아쳤

으니 답답한 일이구나.)

마침내 이런 생각에 이르니 아량은 종주먹을 불끈 쥐었다.

(깨달았으니 더 지체하면 안돼.)

이튿날 온종일 시할머니와 우달의 옷도 빨아 기워놓고 집안
밖도 깨끗이 거두면서 길떠날 차비를 갖춘 아량은 다음날 일
찍 집을 나섰다.

아량이 본가를 다녀오는것으로 아는 시할머니는 살짝문밖을
따라나오며 잘 다녀오라고 오래도록 바래주었다.

동구길로 향하는 아량은 눈물이 앞을 가리워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마음어진 우달이 말로는 돌아오지 말고 건강한 사내를 만나
잘살라고 하였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쏟을것이다.

아량은 피터지게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내 어떻게 하나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터이니 꼭 기다려
주세요.)

해지면 길가의 마을에 들러 쉬고 해가 뜨면 다시금 길을 재
촉하면서 아량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침병을 잘 고치는 의원
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덕에 그 어떤 병자도 척척 고치는 명의를 쉽게 찾아내는
비결을 알아낼수 있었다.

그 비결이란 나라의 도읍인 평양에 가는것이였다.

뛰어난 재주를 지닌 인재일수록 도읍에 모여들기마련이라니
평양에서라면 만병을 다스리는 명의를 찾을수 있다는것이 길가
던 사람들의 조언이였다.

평양, 평양이다.

평양에서라면 랑군을 일으켜세울수 있는 비방을 알수 있다는 생각에 발이 부르튼고 다리가 아파났지만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집을 나선지 나흘째 되는 날 저녁, 길가마을의 어떤 집에 찾아든 아랑은 부르튼 발이 아파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는 그를 측은해하는 눈길로 바라보던 늙은 집주인이 허연 수염을 어루만지며 말을 건넸다.

《임자 행색을 보니 먼길을 온것같은데 어디까지 가려 하나?》

아랑이 평양을 찾아가는 사연을 입에 올렸더니 로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물론 평양은 우리 나라의 도읍이라 천하명리가 꼭 있을 거네. 허나 그썸한 병이나 고치는데 천하명리의 신세까지 질게 있을까?》

로인은 오랜 농사꾼이었지만 의술도 어지간히 아는 사람이였다.

《임자, 선병자가 의원이란 말 아나?》

아랑은 그런 말을 들은 생각이 나지 않아 고개를 저었다.

《선병자가 의원이란 병을 앓고난 사람이 그 병을 고칠줄 아는 진짜의원이란 뜻일세. 약이란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효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네.

그리고 같은 병일지라도 산골에서와 벌방에서 쓰는 약이 다르단 말일세. 왜냐하면 풍토와 지세에 따라 그 땅에서 나는 약재가 다르기때문이네.

나도 젊어 한때 기침병으로 고생을 했었네. 임자 지아비가

기침병으로 골병에 들었다는데 아마 평양에서라면 그 고장에
흔한 약재로 약을 지어쫓거네.》

은실같은 수염을 어루만지는 로인이 그제서야 범상치 않은
어른임을 엿본 아랑이 옷깃을 여미고 그를 쳐다보았다.

《허나 우리 고장 같은 산골에서는 기침의 특효약으로 오미
자를 쓴다네. 오장육부에 모두 유익한 오미자를 꾸준하게 뜨
거운 물에 우려먹으면 기침을 고칠수 있을뿐 아니라 정신도 맑
아지고 기운도 돋구어지네. 장복하면 산삼에도 못하지 않는
이 좋은 약재를 두고 먼곳의 명의를 찾아가려 한다니 그런걸
보고 먼데 무당이 령하다고 하는것일세.》

그 말에 아랑은 깜짝 놀랐다.

집뒤의 험한 산들에 있는 오미자가 명약재였던 말인가.

《그러니 날뵈으면 집으로 돌아가는게 좋을거네.》

신선처럼 여겨지는 로인에게 매혹된 아랑이 어찌 그의 훈
시를 무심히 여기랴. 이밤으로 당장 돌아서고싶은 마음을 애
써 누른 아랑은 먼동이 터오기 바쁘게 로인에게 하직인사를
드리었다.

종주먹을 쥐고 귀로에 오른 아랑이의 눈앞에서 오미자가 얼
른거렸다.

(오미자도 산열매이니 메돼지 같은 산짐승들이 따먹겠지. 한
알이라도 축나기 전에 어서 가자.)

나흘길을 웅근 하루를 앞당겨 시집에 당도한 아랑의 행색
은 말이 아니었다.

짚신은 바닥이 닳아 없어지고 치마는 가시덤불에 덩굴은듯
마구 찢겨져있었다. 그리고 얼굴은 중병을 앓고난 사람처럼

누렇게 뜨고 여위였다.

외지에서 마침내 기침병에 쓰는 약처방을 알아가지고 왔다는
결 안 시할머니와 우달은 아랑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었다.

이튿날 아랑은 바구니를 안고 뒤산으로 올랐다.

제철을 놓친탓인지 아니면 해거리탓인지 오미자덩굴에 열매
가 별로 없었다. 하루종일 산판을 헤매어서야 오미자를 한바구
니 떠 아랑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기침병을 다스릴수 있는 약
재를 그것도 한바구니나 손에 넣었으니 어이 기쁘지 않겠는가.

아랑은 며칠 더 산판을 오르내리면서 오미자를 한바구니 더
따들었다. 뿐더러 오미자를 따들인 날부터 그것을 뜨거운 물
에 우려 우달이 마시게 하였다.

오미자에 깃든 사연을 잘 아는 우달은 주는대로 오미자우린
물을 받아마시였다.

정녕 그게 우달이에게 복이 되겠는지...

며칠이 흘렀다.

하루에도 몇번씩 오미자우린 물을 받아마시는 우달이를 보
며 기분이 좋아진 아랑은 땔나무를 하는 일에 달라붙었다.

이날도 뒤산에 올라가 땔나무를 한짐 해지고 집에 돌아온
아랑은 눈이 등그래졌다. 글썄, 굴뚝머리에 나와선 우달이 무
슨 나쁜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놀라서 허둥거리는것이 아
닌가.

허둥거리는 그의 손에 약그릇이 들려있는것을 본 아랑이는
의심이 부쩍 들었다.

혹시?!...

아랑이 급히 굴뚝주변을 살펴보니 한자리가 폭 젖어있었다.

(아, 그래서였구나.)

벌써 열흘나마 하루에도 몇번씩 기침병에 특효가 있다는 오미자를 달여주었건만 왜서 효험이 나지 않는지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는 죄다 알만했다.

아랑은 뒤틀려지는 마음을 바로잡으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오늘은 긴말을 아니할수 없군요. 계집도 아니고 사내라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나라를 위해 자그마한 흔적 하나 남기지 못하고 골골 앓기만 하다가 속절없이 스러져버린다면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님앞에 무슨 면목이 있겠나요.》

뒤더수기를 굵적거리며 멋적어하던 우달이 서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는 우달을 지켜보는 아랑의 눈길은 엄했다.

《사실 랑군님이 병약해진게 뉘탓인가요? 약물이 좀 시고 맵고 쓰다고 해서 집사람들 몰래 쏟아버리니 어찌 병귀신이 떨어질수 있겠나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사내구실을 할수 없어요. 제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옛적에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도 병약해서 그를 낳은 부모조차 사내구실을 하기 틀렸다고 머리를 저었대요. 하지만 그는 나도 대장부라는 강심을 먹고 몸단련도 하고 무술을 닦아 사냥시합에서도 첫자리를 차지하고 나중엔 용맹무쌍한 장수가 되어 나라앞에 큰 공을 세웠대요.》

우달의 고개는 점점 더 숙어졌다.

안해에게서 이런 호된 꾸중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종주먹을 틀어쥔 아랑은 절절하게 말하였다.

《첩이 랑군님이 병약한걸 알면서도 시집을 온것은 랑군님

의 병시중을 잘 들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시아버님의 원쑤를 갚을 용맹한 군사로 내세우기 위해서였나이다.

첩은 언제나 랑군님이 어서빨리 병을 털어버리고 남들처럼 군사가 될 날만을 바랄뿐이에요.》

우달이 어깨를 흠칫 떨더니 대꾸했다.

《나… 나도 꽤 군사가… 군사가 될수 있을까?》

아랑은 격해서 부르짖었다.

《사내대장부가 강심을 먹으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어요.》

우달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강심을 먹으면 뭐나 다할수 있단 말이지.》 하고 되뇌이던 우달은 이윽고 아랑이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알겠소. 더는 임자의 속을 태우지 않겠소.》

이렇게 자각하는 우달의 두눈이 불덩어리처럼 이글거렸다.

그날부터 우달은 강심을 먹고 약물을 받아마시었다.

제정신만 차리면 화도 복으로 뒤바꿀수 있다더니 정말 그런것같았다.

나도 고구려의 대장부라는 정신으로 우달이 분발하여 제손으로 오미자를 우려먹고 아랑이의 일손까지 거들어주니 어찌 집안에 웃음이 넘치지 않을수 있으며 몸도 추서지 않겠는가.

차츰차츰 기침병이 숙어들고 몸이 좋아지는 우달이를 보니 아랑은 오미자가 명약재임을 알려준 로인이 더없는 은인으로 여겨졌다.

(오미자를 장복하면 오장육부의 병을 다스릴수 있다는 그 어른의 훈시야말로 정녕 천금맛잡이로구나. 그런 은인에게는 머리태를 베어서라도 신을 삼아올려야 해.)

오미자는 정말로 신비한 명약이었다.

하루도 번지지 않고 오미자를 우려먹은 우달은 그 덕으로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게 먹었다.

우달이 날로 몰라보게 혈기가 좋아지니 아랑은 신바람이 났다. 이런 때 들고싶은것을 량껏 대접하여야 몸이 부쩍 추선다.

아랑은 밤늦게까지 짠 배천을 팔아 고기국도 끓여 대접하였다.

그러는 속에 달이 가고 해가 지나 아랑이 시집을 온지 두 해가 되었다.

그 두해사이에 우달은 몸이 튼튼해지고 기력이 왕성해져 무술에서도 손꼽히는 장사로 되었다.

새각시가 애쓴 보람으로 마침내 사내대장부로 된것이였다.

어찌 그뿐이라.

아랑은 애기엄마가 되었고 시할머니는 귀여운 증손자를 안고 기뻐하니 실로 집안에 만복이 찾아든셈이였다. 이로써 오미자가 기침뿐 아니라 만병에 특효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짹 퍼졌다.

기침병으로 신고하던 우달이 아랑이의 덕분으로 어엿한 사내대장부가 된것을 본 사람들은 너도나도 오미자를 우려마시였다.

어느해 봄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던 외적이 또다시 대군으로 쳐들어왔다.

이날을 기다려온 우달은 솔선 군사로 자원했다.

그해 가을, 우달은 나라에 기여든 외적을 쳐부시는 여러 싸움들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다.

군공을 세우고 돌아온 우달을 앞세우고 오미자의 비방을 알려준 로인을 찾은 아랑은 허리를 굽혀 큰절을 올리였다.

아랑이 새각시의 도리를 지킨 이 이야기로 하여 오미자우린 물은 세상에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엄 창 호

건강장수의 비결

옛날 고구려의 평양 서기골마을에 100살 난 로인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100살 난 장수자라고 하면 남달리 기골이 장대하고 힘센 장수가 아니겠는가 생각하지만 서기골로인은 보통키에 체격도 보통이었다.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시꺼먼 범눈섭에 흰머리칼이 전혀 없는 그것이었다.

머리가 애들처럼 검고 혈색도 어찌나 좋은지 낯선 사람들은 그를 장년으로 여기기가 일쑤였다. 하긴 백발이 늙은이의 징표인것으로 하여 백발수염이니, 백발홍안이니 하는 말도 생겨난것이 아닌가.

실은 서기골로인도 10여년전만 하여도 머리도 수염도 눈섭도 다 백설을 떠인듯했었다.

그런데 100살을 몇해 앞두고 수염부터 먹물을 들인듯 거매지더니 지금은 이렇게 흰머리칼을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그래서 식자들은 그를 가리켜 백발환흑이라는 말을 옛책에서나 읽는가 했는데 오늘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감탄해마지 않았다.

백발환흑이란 허영계 세였던 머리카락이 다시 검은빛으로 물든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서기골로인을 통해 그 말뜻을 리해하

게 되었으니 과연 기이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서기폴로인의 부부가 다 100살을 넘었다는 것이었다.

평양에 백살부부가 있다는 소문이 도처에 퍼지는 바람에 그들은 온 나라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여 오래 살기를 바란다.

서기폴로인에게 건강장수의 비결이 있을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를 찾아왔다. 그들속에는 벼슬아치도 장사치도 쟁인바치도 농사군도 지어는 건달군도 있었다. 그러나 서기폴로인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장수의 비결은 각각이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결작이라고 할만했다.

벼슬아치들에게는 약자를 동정하고 악한자를 징계처분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했다면 장사치들과 부자들한테는 재물이라는건 판속에 넣어가지고 갈수 없는것이기에 적선해야 장수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건달군에게는 오록을 부지런히 놀려야 한다고 했고 농사군이나 쟁인바치에게는 밥그릇에 장수의 비결이 있노라 말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비결을 명심하면 98살에 조정을 통솔하는 국상이 되어 이 땅에 기여든 외적을 전멸시키고 112살에 세상을 하직한 명림답부처럼 장수할수 있다고 말해주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우스운것은 서기폴로인도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 건강장수의 비결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

어느해 정초, 조정에서는 나이든 어의에게 평양에 가서 건

강장수의 비결을 알아오라는 밀령을 내리었다.

조정대신들은 새로 통좌에 오른 대왕도 오래 살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있었다. 나라가 일떠선이래 장수한 임금으로는 태조대왕 한명뿐이었다.

이런 까닭에 충신들이 왕의 건강을 넘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밀령을 받은 어의는 지난해 재취한 안해와 함께 국내성을 나섰다.

그가 젊은 안해까지 데리고 나선데는 타산이 있어서였다.

사실 어의들이 건강장수의 비결을 알아내려고 평양을 다녀온것이 한두번 아니었다.

궁성을 나설 때에는 저마다 건강장수의 비결을 알아오겠노라고 큰소릴 치고 간 그들이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나이많은 어의로서는 잡도리를 단단히 하지 않을수 없었다.

젊은 안해를 데리고 평양에 온 어의는 자기를 농사꾼이라고 하면서 서기골로인의 마을에서 집 한채를 세냈다.

그리고는 집들이라는 명분으로 백살로인을 따로 초청하였다.

집들이에 부조로 부시를 가지고 간 백살로인은 요란한 음식상 앞에서 입을 딱 벌렸다.

갖가지 고기불이며 물고기, 떡과 과일들 하여간 산해진미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이런 음식상은 보다 처음이었다.

어의가 알고싶은것을 노리고 차린 만반진수였으니 평민으로서는 두눈이 휘둥그래질만도 하였다.

어의에게 이끌려 음식상을 마주한 백살로인은 단지 두사람의 수저만 놓인것을 보고 의아해하였다.

이런 요란한 음식상을 이 늙은이 한사람을 위해 차렸단 말인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지라 백살로인이 어의에게 말했다.

《아직 올 사람들이 다 오지 않은가 본데 좀더 기다리는것이 어땡소?》

어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올시다. 전 신선같은 어르신을 공경하여 따로 모신것이니 달리 생각지 마소이다. 예로부터 보통사람일지라도 백살을 살면 신선이라 하지 않았소이까.》

그 말에 감동된 백살로인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무리 신선같다 할지라도 이런 음식상을 받을수 있단 말인가.

《참, 부엌에서 안사람을 올라오라고 해서 함께 드는게 어땡소?》

어의는 또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집에서는 부부가 맞상을 하지 않소이다. 그게 가풍이니… 그리고 전 예순살이니 아들벌, 아니 손자벌이라 말씀을 낮춰주소이다.》

어의의 청에 못이긴 백살로인이 일일이 음식들을 맛보았더니 하나같이 별맛이었다.

백살로인은 거듭 탄복하며 음식을 량껏 들었다.

이윽고 배가 부른 백살로인은 아직도 음식이 그들먹한 상을 가리켰다.

《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갖가지로 차려놓고 먹어보기는 나서 처음일세. 정말 잘 먹었네.》

이때라고 어의는 질문을 들이댔다.

《어느 음식이 더 맛있소이까?》

백살로인은 환하게 웃었다.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다 맛이 좋으니 선궁의 별식갈네.》

《백가지 꽃이 다 고와도 사람마다 더 고와하는 꽃이 있듯이 음식도 그렇지 않겠소이까.》

백살로인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 난 다 별맛이어서 다 마음에 드는구려.》

어의는 속으로 실망해하였다.

도성을 떠나올 때 계략이라고까지는 말할수 없어도 남몰래 타산한것이 백살로인을 갖가지 별식을 가득 차린 음식상앞에 불러앉히는것이였다.

이모저모로 따져보니 서기골로인이 건강장수할수 있는것은 음식에 있는것같았다. 그가 남의 땅이나 얻어부친다는데 무슨 돈이 있어 산삼이나 사슴뿔 같은 값진 약재를 썼겠는가.

그래서 그는 음식숨씨가 있는 젊은 안해를 데리고 평양에 온것이였다.

그런데 과녁이 어방없이 빗나가고말았으니 허전하기 그지없었다.

며칠후 저녁 백살로인이 룡송한 대접의 답례라고 하면서 어의를 초청하였다.

밥상앞에 나선 어의는 늙은 안주인까지 겸상하니 두눈이 떠 쾀해졌다.

백살로인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서는 부부가 한상에 마주앉아 밥을 먹는다네.

아, 진수성찬이라고 한들 사내 혼자서야 무슨 맛이 있겠나.
죽을 먹어도 마주앉아야 살로 가져던.》

밥상을 굽어보던 어의는 저르기 놀라왔다.

기장쌀밥에 닭고기국, 말린 산나물반찬 그리고 무슨 물고
기인지는 알수 없으나 구운 물고기로막도 한접시 올라있었다.

어의의 가슴이 갑자기 활랑거렸다.

혹시 이 밥상에 장수음식이 있지 않을까.

밥상을 여러번 훑어보니 그중 마음을 끄는것은 구운 물고
기로막이었다.

이게 무슨 물고기일까?!...

물고기구이를 맛본 어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쫄깃쫄깃하면서도 고소하고 단맛도 느껴지는 이런 물고기는
먹어본적이 있는것같지 않았다.

가만 보니 비늘이 없는 물고기같았다.

《신선님, 이게 대체 무슨 물고기오이까?》

어의가 가리키는 물고기구이를 바라보며 백살로인이 시답지
않아하는 투로 대꾸했다.

《별게 아닐세. 흔한것이니 그리 알고 들게.》

어의는 속으로 패재를 불렀다.

(이젠 알만하다. 이 로인이 숨기려고 하지만 바로 이 물고
기가 건강장수의 비결인줄 내 알았다.)

어의는 기어코 그게 무슨 물고기인지 밝혀낼 생각으로 이번
에는 안주인에게 물었다.

《기막히게 맛좋은걸 보아 이게 아주 귀한 물고기인것같소
이다. 그렇지 않소이까?》

안주인도 당황해하며 《별게 아니오이다.》라고 대답할뿐이였다.

어의는 무릎을 치고싶었다.

(오늘 뜻밖에 횡재를 하였구나. 이게 무슨 물고기인지 밝혀내는것은 어렵지 않다.)

어의는 능청스레 화제를 바꾸었다.

《자손들은 왜 보이지 않소이까?》

백살로인이 가슴에 드리운 검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에게 자손들이 수두룩해서 손자나 증손들은 이름마저 외우질 못한다네. 아들녀석들이 우리 부부 늘그막에 편안히 쉬라며 세상을 나간거네.》

어의는 목적하는바대로 화제를 몰아갔다.

《신선님은 물고기잡이를 즐기는것같소이다?》

백살로인이 흥이 나서 대꾸했다.

《그야 물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평양에는 패강(대동강)이 있다네. 난 어려서부터 패강에 나가 물고기잡이를 좋아했다네.》

어의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겠지 하고 기뻐하는데 백살로인이 묻는것이였다.

《자네 래일 짬이 있으면 나와 물고기잡이를 하지 않겠나?》

《좋소이다.》

《그렇다면 됐네. 요즘은 성에장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낚시질이나 해봅세. 래일 아침 강에 나갈 차비를 해가지고 오게.》

어의는 너무 좋아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이튿날 아침, 발목을 덮는 목긴 갓신을 신고 어의가 백살

로인을 찾아가니 그는 벌써 낚시도구를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배강으로 나가니 썰물이 시작된 강에 드문드문 성에장이 떠다녔다.

백살로인은 낚시줄을 드리운 한길짜리 낚시대를 물가턱을 따라가며 두세보간격으로 비스듬히 꽂아세웠다.

낚시대는 모두 여덟개였다.

이어 백살로인은 오지그릇에서 참지령이를 꺼내 민지에 꿰고는 강물에 잠그었다.

《낚시줄이 흔들대거들랑 낚시대를 잡아채라구.》

인차 여기저기서 낚시줄이 흔들거렸다.

어의는 덤벼치며 낚시대를 뽑아들었다.

했더니 낚시에 한뿔짜리 물고기가 걸려나왔다. 대가리가 넓적하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였다.

어제 저녁 밥상에서 보았던 물고기와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구운 물고기로막은 이보다 굵고 통통하였다.

《신선어른, 이건 무슨 물고기오이까?》

백살로인이 핀잔투로 대꾸했다.

《자네 물고기에 대해 영 생둥이로구만. 이게 바로 망둥이 일세. 맛은 그닥 좋지 않아도 많이 잡을수 있어 좋다네. 늦가을부터 이른봄에 낚시에 잘 물리네. 망둥이는 다래끼에 던져놓고 얼른 낚시에 지령일 꿰서 제자리에 놓으라구.》

어의는 헛눈팔새가 없었다.

낚시에 지령이를 꿰어 물에 던져넣기 바쁘게 낚시줄이 흔들거렸다.

어의는 난생처음 물고기를 낚아내는 재미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수 없었다.

썰물지는 강물을 따라 내려가며 낚시질을 하는지 얼마 되지
않은것같은데 벌써 다래끼에 망둥이가 거의 차올랐다.

《이젠 그만하세나.》

낚시대를 거두며 백살로인이 말했다.

《오늘은 마수거리라 망둥이를 몽땅 자네가 가지게. 허지만
래일부터는 꼭같이 나누어야 하네.》

어의가 이 많은 물고기를 저 혼자 다 가질수 없다는 뜻으
로 고개를 젓는데 백살로인이 강뚝쪽을 가리켰다.

《난 이제 가다가 늪에서 건져가질게 있네.》

백살로인을 따라 강뚝에 올라서서 조금 가니 강으로 이어
진 늪이 있었다.

백살로인은 양지쪽 늪가에서 멈춰섰다.

《여기서 몸을 좀 놀리고 갈가.》

마른 풀을 한아름 굵어다 무저놓은 백살로인이 옷을 벗는
것이였다.

어의가 놀라와하는데 그는 벌써 늪에 들어서고있었다.

《자넨 내가 잡아던지는걸 베자루에 집어넣게. 베자루는 옷
걸에 있어.》

좀 있어 머리만 내놓고 물속에 주저앉은 백살로인이 무엇을
잡아던지는것이였다.

철썩—

땅우에 나딩구는것을 집어들던 어의는 깜짝 놀라서 엉덩방
아를 찡었다.

(이크, 이게 뱀이 아닌가.)

어의가 너무도 무섭고 징그러워 뒤걸음을 치는데 백살로인이 소리쳤다.

《왜 그러나? 그건 물고기야, 어서 집어넣으라구. 어서!》

그래서야 어의가 자세히 보니 땅바닥에서 꿈틀거리는것은 뱀이 아니었다.

치느러미가 있으니 뱀은 아니었지만 징그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손을 대보니 매끄럽고 차가운게 소름이 확 끼치였다.

마지못해 베자루에 집어넣는데 옆에서 또 철썩 소리가 났다.

역시 낫자루만큼 굵고 팔뚝만한 물고기가 땅우에서 꿈틀거렸다.

등은 거무스름하고 배가 허연 물고기를 베자루에 집어넣던 어의는 이게 밥상우의 그 물고기가 아닐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또다시 철썩 소리가 울리고 징그러운 물고기가 꿈틀거렸다.

백살로인의 기력은 대단했다.

음지쪽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있는 물속에서 알몸뚱이로 려이어 징그러운 물고기를 잡아던졌다. 열댓마리를 건져내고서야 물에서 나온 백살로인이 마른 검불에 부시를 찼다.

그러자 불기둥이 솟구쳐올랐다.

황황 타오르는 불을 쪼이며 백살로인은 옷을 입었다.

백살로인이 옷을 입기 기다렸던 어의가 조심히 입을 뗐다.

《이 물고기가 어제 저녁의 구운 물고기가 아니오이까?》

어의가 가슴을 조이며 백살로인을 쳐다보는데 그의 대답은

통명스러웠다.

《이보게, 때로는 알지 말아야 할것이 있네. 그러니 캐묻지 말고 가거나 하세.》

하는수없이 어의는 입을 다물고말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리라 마음먹었다.

이튿날도 어의는 백살로인을 따라나가 망둥이늪시질을 하였다.

이제는 두사람이 막역지우처럼 허물없었다.

《이보게 백발친구!》

백살로인은 머리가 하얗게 센 어의를 백발친구라고 불렀다.

《임자도 밤놀음을 자주 하나?》

《웬걸요, 한달에 한번정도나...》

백살로인이 혀를 끝끝 찼다.

《한심하군, 젊은이의 아래도리가 그렇게 맥이 없어서야 쓰나.》

어의는 어이가 없어 웃고말았다.

아무리 기력이 좋아도 그렇지 100살 난 늙은이가 그 놀음을 엄두나 낼라구.

《자넨 약골이야. 난 머칠을 못참겠어.》

어의에게는 거짓말로나 들릴뿐이었다.

《말로는 하늘의 별도 따온다고 합디다.》

백살로인이 눈을 흘기었다.

《자넨 아직 모르는게 많아. 나이가 많아도 그 놀음엔 신바람이 나는게야.》

어의에게는 여전히 끈이들리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늪의 얼음이 말끔히 풀린 아침이었다.

지계에 새끼줄타래와 빈 섬짝을 엮은 백살로인이 오늘은 붕어잡이를 하자며 어의를 이끌었다.

늪에 이른 백살로인은 빈 섬들에 쉼나무를 쭈셔넣고 아구리를 꾸민 다음 굵은 새끼줄을 두줄로 비끄러매는 것이었다.

《백발친구, 이제 붕어들이 이안으로 쭈시고 들어올거네. 자, 이 한쪽의 새끼줄을 쥐고 저쪽 늪가로 끌고 가게.》

어의가 새끼줄을 끌고 늪의 한쪽쪽에 가서자 다른 한쪽의 새끼줄을 쥔 백살로인도 그 반대편으로 끌고 갔다. 했더니 새끼줄에 매여있는 섬짝이 늪의 한복판으로 서서히 끌려들어갔다.

그렇게 섬짝 몇개를 늪에 담가놓고서야 백살로인이 소리쳤다.

《이젠 양지쪽에 가서 쉬세나.》

두사람이 해가 잘 드는 쪽에 나란히 앉아 이말저말 나누는데 광주리를 인 로파가 나타났다. 백살로인의 안내였다.

광주리를 받아 땅에 내려놓은 백살로인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농군들은 일터에서 점심먹기를 좋아하지. 이런데서는 밥맛이 별로 좋거던.》

광주리를 들여다보던 어의의 입이 헤벌쭉해졌다.

이번에도 똑같은 물고기구이가 올라있는 것이 아닌가.

이윽고 백살부부는 다른 음식들은 어의에게 권하면서도 물고기구이는 저희들만 먹는 것이었다.

그것을 모르는척하던 어의는 재빨리 물고기구이를 집어들었

다. 그리고 빼앗길세라 얼른 입에 넣었다. 역시 별맛이었다.

점심식사를 마친 어의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신선님, 저를 손자처럼 여기고 진심을 말해주소이다. 제가 먹은게 대관절 무슨 물고기오이까?》

백살로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허— 이걸 어쩐다? …그게 무슨 물고기인지 알면 다시는 먹자고 하지 않을텐데…》

《그래도 꼭 알아야겠소이다.》

《할수 없군. 내 어렸을 때 귀얹이가 심했는데 의원들이 지어준 약을 썼건만 효험이 없었네. 하루는 어머니가 귀얹이를 고치는 용한 할미가 있다면서 날 강건너마을로 데리고 갔네. 어느한 집을 찾아가니 파파 늙은 할미가 내 귀를 들여다보며 혀를 차겠지. 하마트면 귀머거리가 될번했다는게야.

내 귀에 기름 비슷한 약을 몇방울 넣어준 할미는 약을 또 작은 병에 담아주며 집에 돌아가 계속 넣으라고 일렀네.

그 약이 정말 신기했네. 글썽 열흘도 못가서 깨끗이 나왔거든. 그게 고마와 난 옷감 한벌을 가지고 할미를 찾아갔네. 했더니 할미는 내 등을 두드려주며 기특하다고, 자기는 얼마 더 살지 못할것같은데 자기의 비방을 배우라는게 아니겠나. 시골에는 귀를 앓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네.

난 그날 배운 비방으로 지금껏 사람들의 귀얹이를 고쳐주고있네.

그 약이 뭐고 하니 바로 뱀장어기름일세. 그리고 자네가 알고싶어하는 물고기가 바로 기름을 짜낸 뱀장어일세.》

그 말에 완전히 매혹된 어의는 백살로인이 숨돌릴새없이 물

었다.

《신선님은 언제부터 뱀장어를 잡수었소이까?》

《그거야 사람들의 귀앓이를 고치기 시작해서부터이지. 기름을 짜낸 뱀장어를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소금에 절여두고 지금껏 먹어오고있다네.》

어의의 호기심은 이만저만 아니였다.

《자손들도 뱀장어를 먹소이까?》

이번에는 로파가 대꾸했다.

《이게 보기는 흥해도 별맛이라 자식들에게도 먹인다네.》

드디어 건강장수의 비결을 손에 넣고보니 어의는 춤이라도 추고싶었다.

뱀장어기름이 귀앓이에 특효가 있다면 뱀장어구이도 끓는 병에 약효가 있을것이다. 아무리 기름을 짜낸 뱀장어일지라도 그 속에는 적지 않은 기름이 남아있을게 아닌가.

사람의 병이란 따지고보면 귀앓이처럼 끓는 병이라고 할수 있으니 뱀장어구이를 늘 먹으면 오장육부가 건전해질것이다. 이 늙은이가 보통늙은이와 달리 정력이 넘치는것은 바로 이 뱀장어덕인게다.

그런데 뱀장어가 흔한것인지?!...

《저... 강에 뱀장어가 많소이까?》

백살로인이 패강을 가리켰다.

《우리 나라의 강들에 뱀장어가 없는데가 없지만 이 강에는 더 많다네.》

《뱀장어를 쉽게 잡을수 있소이까?》

백살로인이 얼굴을 찡그렸다.

《강에 뱀장어가 많아도 잡기는 험치 않으니. 그놈이 얼마나 묘한지 낚시에도 그물에도 잘 걸리지 않네. 하지만 나에겐 수가 있어. 겨울이 오면 늪에 기여든 뱀장어들은 해가 잘 드는 양지쪽 감탕속으로 모여드는데 계구멍 같은데 잘 숨어든다네. 내가 며칠전 맨손으로 뱀장어를 잡아낼수 있었던것이 바로 그 계구멍에 숨어있었기때문일세.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많이 잡지 못해. 내 인차 많이 잡는 묘술을 배워주지. 자, 이젠 섬짝을 건져보세.》

흥이 난 어의는 늪에 드리운 새끼줄을 잡아당겼다.

땅으로 끌어낸 섬짝을 헤쳐보니 애들 손바닥만한 붕어들이 왁시글왁시글했다.

여러개의 섬짝에 기여든 붕어를 큰 바구니에 쏟아놓으니 반나마 차올랐다.

백살로인이 흡족해서 말했다.

《우리 절반씩 나눌세.》

며칠후 한낮무렵 백살로인이 어의를 찾아왔다.

《약속한대로 오늘 뱀장어잡는 묘술을 배워주지.》

어의는 기분이 좋아서 백살로인을 따라나섰다.

백살로인을 따라 늪가에 이르니 늪속에는 벌써 굵은 새끼줄에 묶인 섬짝들이 잠겨있었다.

어제 백살로인이 홀로 나와 그렇게 한것이였다.

이거야 붕어잡이가 아닌가?...

어의가 뜨아해하는데 백살로인이 새끼줄을 끄당기며 소리치는것이였다.

《자네도 당기라구.》

그제서야 어의는 다급히 새끼줄을 당기었다.

그런데 무슨 큰 물고기가 들었는지 섬짝이 무겁기 그지없었다.

땅에 끌어올린 섬짝을 헤쳐보던 어의는 손땀이 탁 풀렸다.

송사리조차도 보이지 않는 섬짝안에 쿠리쿠리한 냄새만 나는 감탕이 반나마 차있었다.

《헛탕이올시다.》

어의가 실망해하는데 백살로인은 빙긋 웃으며 감탕을 땅에 쏟는것이였다.

그 순간 어의는 제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감탕에서 끓은 뱀장어들이 기여나오는것이 아닌가.

《백발친구, 손바닥에 모래를 묻혀가지고 뱀장어를 잡게.》

백살로인이 시키는대로 모래가 섞인 흙을 손바닥에 묻혀가지고 뱀장어를 쥐니 꼼짝 못했다.

뱀장어를 다래끼에 집어넣으며 세어보니 열댓마리나 되였다.

백살로인이 감탕을 가리켰다.

《이건 사실 말뚱일세. 말린 말뚱을 부스러서 지렁이를 두고 섬짝에 넣은 다음 늪에 던져넣으면 보다싶이 뱀장어가 이처럼 기여든다네. 이건 내가 터득한 비방일세.》

어의는 감탄해마지 않았다.

이 어른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운가.

섬짝을 모두 꺼내 잡은 뱀장어는 다래끼에 가득하였다.

어의는 뱀장어만은 한마리도 받지 않았다.

아직도 뱀장어구이가 보약인지 알지를 못하는 백살로인이 지금처럼 사람들의 귀앓이를 고쳐주면서 오래오래 살기를 바래

서였다.

며칠후 조용히 평양을 나선 어의는 조정을 향해 말을 달리었다.

그로부터 두달후, 평양 서기골로인집에 경사가 났다.

관복을 입은 어의가 값진 물건을 가득 실은 마차를 달고 백살로인을 찾아온것이였다.

한생 사람들의 귀앓이를 고쳐주는 백살로인의 가룩한 소행을 안 임금이 상을 하사한것이였다.

임금이 내리는 상을 전해준 어의는 자기의 본색을 밝히고 뱀장어를 굽는 비방을 알고싶다고 했다.

백살로인이 어찌 그의 요구를 거절하랴.

두팔을 걷어붙인 백살로인이 내장과 등뼈를 뽑아내고 뱀장어를 보기 좋게 토막내니 그의 안해는 파와 마늘로 만든 양념장에 그것들을 채워두는것이였다.

뱀장어는 곳곳에서 식용으로 리용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평양 지방의 뱀장어료리맛이 특히 유명하였다.

오늘 뱀장어구이에는 질좋은 영양소뿐 아니라 결핵이며 암과 같은 여러가지 질병을 막는 특수성분들이 있다는것이 밝혀지면서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전 철 호

삼 계 탕

옛날 개경의 천마산기슭의 어느한 마을에 갓 장가를 든 마룽이라는 젊은이가 살고있었다.

어느해 초여름날이었다.

밤은 깊어가건만 잠자리에서 궁싯거리는 마룽은 좀처럼 잠 들수 없었다.

한것은 이밤따라 뒤산의 울창한 나무숲을 누비며 내리부는 산골짜기의 세찬 바람소리때문도 아니요, 그렇다고 등글등글한 바위돌을 희롱하며 돌돌 흘러내리는 앞개울의 물소리때문도 아니다.

다시금 불편스럽게 몸을 뒤척이던 마룽이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뭐 더럽기 짝이 없는 후목분장이란 말이야?》

약이 오른 마룽은 오만상을 찌프렸다.

후목분장이란 썩은 나무나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처럼 너절해빠져 도저히 사람구실을 할수 없는 못난 작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생각할수록 약이 오른 마룽이 또 중얼댔다.

《에익 참,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한테 그런 욕을 보다니... 아, 내 정녕 사람질을 할수 없단 말인가.》

마룽이 스무살이 넘도록 아버지한테서 그런 꾸중을 받아보

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해 마룽은 개경 복숭아꽃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다.

며칠전 두루두루 일거리가 생겨 개경에 갔던 아버지가 돌아 오자바람으로 마룽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 이번에 네 가시집에도 들렀댔다. 그런데 네 처남의 몸이 말이 아니더구나. 아, 열여덟살이면 한창 기운이 뻗쳐서 부룩송아지처럼 날칠 때인데 밤낮 앓는 병다리마냥 영 맥을 추지 못하고있으니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사내구실을 하겠느냐. 네 가시아비는 일찌기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니 너라도 그애를 돌봐야 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말말고 래일 가시집에 가봐라.》

마룽도 장가들던 날 처남이 약골임을 알았다. 허나 타고난 약골이라는 색시의 말에 할수 없는것으로 여기고만것이었다.

아버지의 분부인지라 마룽은 이튿날 처남의 몸보신에 보탬쌀을 한말 지고 가시집을 찾아갔다.

마룽이 찾아온 사연을 안 장모가 눈굽을 닦으며 말했다.

《그 몫쓸 외적이 원쑤이지. 그놈들은 어찌 우리 땅을 그리도 탐낸단 말인가. 그놈들만 아니었으면 임자 가시아비가 전장에 나가 잘못되지도 앓았을것이고… 그랬더라면 만길이가 저애가 약골이 되지 앓았을거네. 아버를 잃고 가난에 쪼들리다보니 잘먹이지 못해서 병다리처럼 되질 앓았겠나. 그렇다고 자리에 누워 시중까지는 들라고 하지 않으니 임자는 마음을 놓게나.》

장모의 말대로 신통한 방책이 없는지라 처가집에서 집일이나 거들어주다가 오늘 돌아온 마룽이었다.

마룽이 처남을 위해 한 일이 없이 돌아왔다는것을 안 아

버지는 버럭 성을 내며 《너야말로 후목분장이로구나.》 하고 꾸짖었던 것이다.

밤은 깊어가건만 마룻의 귀가에는 그 욕설이 그냥 들려오는 듯싶었다.

다시금 돌아누운 마룻은 곁에서 곤히 자고있는 색시가 꽤 씹하게 여겨졌다.

(나는 임자 동생때문에 욕을 보는데 임잔 썸판 좋게 자고있으니 과연 공평치 못한 처사로구나.)

속으로 색시한테 화풀이를 해대던 마룻은 새벽녘에야 잠들었다.

색시가 몸을 흔들어서야 잠에서 깨어난 마룻은 동창이 눈부시게 환해진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벌써 해가?!...

늦잠을 잔적 없는 마룻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짜증을 냈다.

《왜 진작 깨우지 않았어?》

색시가 빙긋 웃었다.

《아버님이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곤하게 잔다고...》

마룻이 부랴부랴 세면을 하고나니 아버지가 보자기에 꾸린것을 내밀었다.

《너 오늘 이걸 가시집에 가져다주거라.》

영문을 몰라하는 마룻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에야 인삼 몇뿌리를 구했구나. 몸이 허약한데는 인삼이 제일이다. 이걸 먹이면 네 처남이 사내구실을 하게 될게다.》

웃음짓는 아버지앞에 마룻은 가슴이 뭉클했다.

(난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마룻의 손에 인삼을 들려준 아버지가 절절하게 말했다.

《사내구실이란게 무엇이겠느냐. 나라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

사내라면 응당 군역을 지어야 하는것이고 란시에는 전장에 나가 외적을 버이어야 하는게다. 그런데 네 처남은 몸이 그렇게 약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아비의 원쑤, 나라의 원쑤를 갚겠느냐. 이제라도 잘 도와주면 사내구실을 할수 있을게다.》

코마루가 시큰해진 마룻의 목에서 울대뼈가 오르내렸다.

(아, 그래서였구나. 내 그걸 내다보지 못했으니 후목분장이란 욕을 먹어 싸지.)

마룻의 등을 떠밀며 아버지가 당부했다.

《먼저 의원을 청해다 병자를 보인 다음 인삼을 쓰도록 해라.》

아버지에게 등을 떠밀려 길에 나선 마룻은 신바람이 났다.

단숨에 수십리길을 다그쳐 개경에 이른 마룻은 아버지의 당부대로 명의로 소문난 설씨의원을 청해왔다.

만길의 몸을 살살이 살피고난 의원이 마룻이를 따로 불러 놓고 말했다.

《천만다행일세. 임자 처남은 몸이 쇠약할뿐 아직은 골병에 들지는 않았네. 그러니 몸보신만 잘해주면 사내구실을 할수가 있을거네.》

만길이 골병에 든줄로만 알았던 마룻은 그제서야 한숨이 나갔다.

《의원님, 저에게 몇년 묵은 인삼이 몇뿌리 있는데 그걸 쓰

면 어떻소이까?》

의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인삼이 몸보신에 좋다고는 하지만 때를 맞추어야 효험을 크게 볼수가 있네.》

의원이 손을 들어 룡수산쪽을 가리켰다.

《저 산밑의 마을에 아흔살 난 장수자로인이 살고있네. 그 어른을 찾아가 내가 보냈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비방을 가르쳐줄거네. 그 비방대로 한 다음 다시 날 찾아오게.》

의원을 바래온 마룽은 장수자로인이 살고있다는 마을을 찾아갔다.

마룽이 장수자로인네 집에 들어서니 마침 기골이 장대한 로인이 뜨락에서 수십마리나 되는 중닭을 모아놓고 모이를 뿌려주고있었다.

장수자로인에게 깍듯이 절을 한 마룽이 찾아온 사연을 아뢰었다.

《저에게 처남이 있사온데 몸이 몹시 쇠약하오이다. 그때문에 설씨의원께서 이 집을 찾아가면 좋은 비방을 알려줄거라 하였소이다.》

설씨의원이 병약자들을 자주 보내여 몸을 추세우는 묘리를 배워가게 하고있는지라 장수자로인은 늘 그러했듯 마룽에게도 친근하게 해주었다.

《몸이 쇠약해지면 밥맛부터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면 몸이 더 쇠약해지게 되니 어찌 골병을 면할수 있겠나.》

로인은 모이를 쪼아먹느라 헤덤비는 중닭무리에서 얼른 한마리를 붙잡아들었다.

날개죽지가 붙들린 중닭이 로인의 손에서 푸드득거렸다.

호기심에 마룻은 중닭과 로인을 번갈아 보았다.

《허나 너무 걱정할건 없네. 내가 남달리 기력이 좋고 오래 사는건 해마다 여름철에 이런 중닭으로 약탕이라고 할가, 하여간 몇가지 약재를 넣고 끓여먹기때문일세. 그것만 해먹으면 삼복철에도 입맛을 잃지 않는다네.》

마룻은 속으로 웃고말았다.

(그까짓 중닭이 뭐라고, 곰고기나 범고기라면 몰라도…)

실통해하는 마룻의 태도에 로인이 두눈을 치떴다.

《늙은이말을 귀담아들어서 해볼건 없네. 자고로 가난한 사람들은 인삼이나 록용 같은 값진 약재를 구할수가 없었네. 그래서 흔하고 오록을 줌 놀리면 어데서나 구할수 있는 약재로 병을 고쳐왔네. 범상한 일을 소홀히 하면 범상치 않은 복을 누릴수 없네.》

로인의 일깨움에 마룻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미꾸라지도 천년을 묵으면 룡이 된다 했는데 사람이야… 그러니 이 로인의 훈시야말로 금언이 아니겠는가.

《로인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겠소이다.》

《암, 그래야지.》

로인은 손에 들린 중닭을 가리켰다.

《요것처럼 털도 벗도 다리까지도 온통 새까만 닭을 오골계라 하는데 이렇게 보다 좋네.》

마룻은 놀랍기만 하였다.

닭도 색깔을 가려 우열을 론하다니…

로인이 토방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봄에 깨운 병아리를 백날정도 키우면 중닭이 되는데 그때 더위가 닥쳐든다네. 참, 이런 중닭을 가리켜 우리 고장에서는 약병아리라고 한다네. 약병아리의 내장을 뽑아내고 배속에다 찹쌀 세순가락, 대추와 밤 약간 그리고 껌질벗긴 마늘 세톨을 넣고 실로 꿰맨 다음 폭 끓여서 사흘에 한마리씩 몇 번 해먹으면 그해 더위도 막을수 있고 몸보신에도 그저그만일세. 이러나저러나해도 여름철에 몸이 든든해있어야 겨울을 쉽게 이겨낼수가 있네.》

마룻이 물었다.

《이왕이면 엄지닭으로 해먹는게 더 좋지 않소이까?》

로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범상한 그속에 비결이 있다고 하는것일세. 엄지닭을 쓰면 더 좋을것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으니. 엄지닭은 뼈도 굳고 살도 질기지 않나.

하지만 약병아리는 한창 크는 때라 뼈도 세지 않은 삭뼈이고 고기도 버섯처럼 만문해서 먹기 좋다네. 하여튼 약병아리를 끓여먹이면 눈에 뜨이게 효험이 있느니라. 그래서 중닭을 약병아리라고 하는것일세.》

지금껏 전혀 모르던것을 알게 된 마룻은 흥분이 앞섰다.

그러니 약병아리를 끓여먹이면 만길이가 추설수 있겠구나.

로인은 못내 기뻐하는 마룻에게 약병아리무리를 가리켰다.

《내 집에 약병아리쫘은 이렇게 흔하니 얼마든지 가져가제.》

마룻은 코가 땅에 닿아라 깊숙이 허리굽혀 절을 하였다.

《고맙소이다. 우선은 세마리 주소이다.》

인차 새까만 약병아리를 세마리 싸들고 나서던 마룻은 번개 치듯 떠오르는 의문에 걸음을 멈추었다.

《로인님, 제가 삼을 들고 의원님을 찾아갔더니 여기서 어떤 비방을 가르쳐줄것이라 했나이다. 저... 인삼은 어떻게 쓰시려 하오이까.》

《진작 그 말부터 했어야지. 이렇게 약병아리에 삼을 넣고 끓인것을 삼계탕이라고 하는데 허약자에게 특효라네.》

《그렇소이까.》

처남의 병을 고칠수 있게 된 마룻은 하늘을 나는 기분이였다.

발걸음도 가벼이 가시집으로 가던 마룻의 걸음이 또 뒹어났다.

닭도 엄지닭이 아닌 중닭을 쓰니 인삼도 어미삼이 아닌 어린 삼이어야 하질 않겠는가.

갈피를 잡을수 없어 고개를 기웃거리던 마룻은 이런 때 명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원의 집으로 큰걸음을 놓았다.

마룻이 찾아온 사연을 안 설씨의원이 머리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약병아리에 인삼은 아주 잘 어울리네. 그럼 어떤 삼을 써야겠는가?》

대개 약재는 묵은 해수에 따라 약성도 달라지네. 그리고 같은 약재라도 사람의 나이와 몸의 형편에 따라 그 효험도 다르게 나타나네.

인삼도 마찬가지일세. 어미삼이 몸이 실한 어른에게 좋다면

어린 삼은 아이들과 늙은이, 허약자들에게 좋다네.

한마디 더 보탠다면 음양의 리치를 헤아려야 하는바 자네 처남에게는 수병아리보다 암병아리를 써야 할거네.》

그 말에 놀란 마룻이 구력을 들여다보니 신통하게도 변두가 작은 암컷들이 들어있었다.

《어쩔 장수자로인은 신선갈을가!》 하고 탄복하던 마룻이 이마를 찼다.

(이런 변이라구야, 이제 갑자기 어린 삼을 어데 가서 구한단 말인가.)

요즘은 다 자란 인삼줄기에서 한창 열매가 크는 시기였다.

인삼은 줄기가 시그러진 가을이나 새싹이 움트기 전의 이른 봄에만 캐여 쓰게 되어있었다.

마룻의 심중을 엿본 의원이 웃으며 말했다.

《약점(약방)들에 어린 삼도 없지 않으니 자네한테 있다는 큰 삼과 바꾸면 될게 아닌가.》

그 말에 마룻은 또 한번 이마를 찼다.

이날 처가집으로 돌아온 마룻은 삼계탕을 만드는 일에 직접 달라붙었다.

마룻이 만든 삼계탕을 사흘간격으로 몇마리 먹은 만길이가 참말 놀라웁게도 입맛이 부쩍 당기게 되었다.

그전에는 느낄수 없었던 강렬한 식욕에 만길이는 밥 한그릇쯤은 성차하지 않았다. 지금껏 밥 한그릇도 축내지 못했던 만길이가 곱배기를 청하니 어머니는 경사가 났다며 식사대접에 이만저만 극성이 아니었다.

밥장수이자 힘장수라더니 곱배기로 몸이 추선 만길이가 기운

을 쓰기 시작했다.

지겨운 삼복철이면 뼈만 남은 몸으로 음달을 떠나지 못했던 만길이 땡벌에서도 무술을 닦으니 어머니는 동네방네에 사위자랑을 늘어놓았다.

《사위는 반자식이라고 한하는데 우리 사위는 열 아들맛잡이라우. 글썽 사위 그 사람이 내 아들을 사내구실하게 만들었다니까요.》

힘장수가 된 만길은 몇해후 외적이 쳐들어오자 마룻과 함께 솔선 전장으로 달려나갔다. 원쑤격멸에 나선 만길은 많은 적을 버이였다.

마침내 외적을 쳐부시고 나라를 지켜낸 그날 만길은 마룻에게 큰절을 올리였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나의 오늘이 어찌 있을수 있겠소이까. 형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만길의 손을 잡아일으킨 마룻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은혜가 아니고 내 나라 강산이 베푼 은혜일세. 내 나라가 없었다면 어찌 인삼이며 약병아리가 나올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우리 힘을 합쳐 태를 묻은 이 땅을 더 잘 지켜나가자구.》

만길이 공세우고 돌아온 그날 설씨의원은 사람들에게 그를 추세운 삼계탕의 비방을 공개하였다.

삼계탕이 허약자들의 몸보신에 으뜸이라는것을 안 사람들이 너도나도 어린 삼과 약병아리를 구해들이었다.

삼계탕을 해먹은 사람들은 저마다 엄지손가락을 뽑아보이며 이구동성으로 《삼계탕이 제일이로다!》 하고 찬사를 아끼

지 않았다.

삼계탕은 그후 개성특식으로 전해졌다.

오늘날 삼계탕은 허약자와 병자들뿐 아니라 남녀로소모두에게 신비한 기운을 돋구어주는 보약이라는것이 널리 인정됨으로써 세상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전 철 호

늙은이에겐 음식대접이 제일

옛날 개경의 봉명산기슭의 자라울마을에는 홀아버지를 모신 쇠옹이라는 늙은이가 살고있었다.

어느해 봄, 이날 아침에도 아버지의 잠자리를 개여올린 쇠옹은 굳어진 버릇대로 세면물도 떠다드리었다.

이윽고 밥상을 차린 쇠옹의 안해가 마당에서 소풍을 하는 시아버지에게 아뢰었다.

《아버님, 진지 드시와요.》

아버지는 흐뭇한 눈길로 밥상을 굽어보았다. 상우에는 기름진 육불이는 없어도 하나같이 품들여 지은 음식들로서 구수한 조밥에 더운 김을 서려올리는 냉이국, 달래무침 지어는 닭알부침도 올라있었다.

늙은 소 콩밭으로 간다고 사람이 늙어지면 뭐니뭐니해도 먹는것이 제일이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밥상에 정을 쏟아붓는것이 아닌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이 정도의 밥상이면 자식들을 칭찬할만하였다.

쇠옹이는 아버지가 구수한 냉이국을 후후 불며 달게 들자 자기도 숟가락을 집어들고 두눈을 찜뻑이며 밥을 걸탐스레 먹었다.

쇠옹에게는 기분이 좋을 때면 별나게 두눈을 찜뻑이는 습관

이 있었다. 맛있게 밥그릇을 비운 쇠웅은 그제서야 숟가락을 내려놓는 아버지가 절반밖에 밥을 들지 않았음을 알아보았다.

쇠웅이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아버지는 또 밥을 남기셨군요.》

쇠웅이의 근심어린 목소리에 아버지가 눈웃음을 지었다.

《원 자식두, 헌섬에 곡식이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그건 다 괜한 소리이고… 사실은 사람이 나이들면 밥주머니가 쏴아들기때문에 굶었을 때와는 달리 많이 먹지를 못하느니라. 그러니 괜한 걱정말아.》

아버지는 구수한 승농을 떠올리는 며느리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아침밥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말이다. 제발 내 밥은 적게 담으렴.》

《밥만한 보약이 없다는데 그런 말씀 마시오이다.》

며느리의 공손한 대답에 아버지는 웃고말았다.

밥을 적게 담으라는 분부야말로 효성있는 며느리에게는 마이동풍이 아닐수 없었다.

해가 다르게 늙는것이 알리는 아버지를 근심속에 지켜보던 쇠웅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따비를 둘러메고 밖으로 나온 쇠웅의 얼굴에 짐처럼 근심어린 그늘이 사라질줄 몰랐다.

이랑을 짓느라 따비질을 하는 쇠웅은 어린시절이 생각나 눈굽이 축축해졌다.

쇠웅은 어머니의 얼굴도 모른다. 강보에 싸여있을 때 어머니를 잃었으니 알수가 없었다. 마을로인들의 말이 아버지는 강보에 싸인 쇠웅이를 안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며 젖동

냥을 했다고 한다.

쇠옹이 생생하게 생각나는것은 어린 자기한테만은 조밥을 떠 주고 자기는 늘 풀죽으로 끼니를 예우던 아버지의 모습이였다.

풀죽이나 자시면서 자식을 키운 아버지에게 기쁨은커녕 한 생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때문에 쇠옹이의 마음은 언제나 무겁기만 하였다.

다섯해전 여름, 개경에서는 궁성을 고쳐쌓는 역사가 벌어 졌다.

그전보다 더 넓게, 더 높이 성벽을 고쳐쌓는 공사장으로 각 지에서 부역군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쇠옹이네 부자도 마을사람들과 함께 궁성의 한 모퉁이를 맡게 되었다. 역사는 정말 고되었다.

날마다 어둑새벽에 시작된 일은 밤늦게까지 벌어졌다.

조정에서 하루빨리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내모니 부역군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였다.

그때 쇠옹이가 제일로 견디기 어려웠던것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잠을 쫓는 일이었다. 보름나마 잠을 설치였더니 흙짐을 지고 다니면서도 졸다가 짐을 진채로 넘어진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두눈을 내리누르는 눈까풀의 무게가 등을 타고 누르는 흙 짐보다도 더 무겁다는것을 그때 처음으로 체험한 쇠옹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꼬리를 물고 달려드는 잠에 쫓기우던 쇠옹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빈 흙구덩이속으로 들어가 지계를 진채로 누워버렸다.

그때 그의 머리맡의 흙벽은 당장 무너질듯 기울어져있었다.

얼마나 잤는지...

그때 쇠옹의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지 않자 더럭 겁이 났다. 날마다 집을 지고 다니면서도 조는 아들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던 그는 와뜰 놀라 부르짖었다.

《아이쿠, 이녀석이 어느 빈 흙구덩이속에 들어가 잠을 자는건 아닐가.》

성축공사에 쓸 황토를 여러길깊이로 파낸 흙구덩이들은 썩하면 무너져버리곤 하였다.

다급한 마음으로 빈 흙구덩이들을 돌아보던 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당장 흙벽이 무너져내릴듯한 흙구덩이속에서 쇠옹이 잠을 자고있지 않는가.

정신없이 흙구덩이에 뛰어든 아버지가 쇠옹이를 안아일으키는 찰나 흙벽이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그 순간 쇠옹이를 힘껏 떠밀친 아버지는 흙속에 묻히고말았다.

사람들이 달려와 아버지를 구원했지만 뼈가 부러져 한쪽다리를 절게 되었다.

쇠옹이 가슴아픈 생각에 묻혀 파비질을 하는데 지팡이에 의지해서 발에 나온 아버지가 나직이 일렀다.

《아범아, 좀 쉬었다 하렴.》

아범이라는 말에 쇠옹은 어리둥절하였다.

쇠옹은 장가든지 세해가 지났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다.

남들은 장가들기 바쁘게 애기아버지가 되는데 생김도 기운도 남의 축에 빠지지 않는 그의 안해만은 태기소식이 아직도

까마귀소식이였다.

밭쪽에 걸터앉은 아버지가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인차 우리 집에도 경사가 날게다.》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두눈을 꺼벅이는 쇠웅을 대견해하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넌 아직도 색시한테 태기가 있는줄은 깜깜인 모양이 구나.》

쇠웅은 여전히 두눈을 꺼벅이었다.

(태기라니... 그건 나도 모르는건데?!...)

쇠웅은 태기를 가진 녀인들에게서 일어나는 몸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풋내기신랑이었다. 요즘 그의 색시는 이전과 달리 배도 똥똥해지고 얼굴에서는 검버섯을 볼수 있었다. 게다가 가끔 헛구역이 나는 입쓰리를 하는데도 쇠웅은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허리춤에서 꺼낸 불룩한 염낭을 내밀었다.

《이걸 받아라. 말린 생강이 들어있는데 반줌씩 달여먹으면 헛구역이 없어지고 밥맛이 나게 된다.》

염낭을 받아든 쇠웅이 고개를 기웃거렸다.

《이걸 내가 달여먹이라는것이오이까?》

《원 너석두... 네 손으로 직접 달여줘야 부부간의 정이 깊어지느니라.》

자리에서 일어서는 아버지의 눈에 이슬 같은것이 맺혀있었다.

《나도 곧 두벌자식을 거느리게 되었으니 늙은이의 락을 누려볼수 있느니라.》

지팡이에 의지해서 집으로 돌아서는 아버지를 지켜보는 쇠웅

이의 두눈에도 눈물이 고여올랐다.

(난 언제 가야 큰소리치며 호도를 하겠는지…

늙은이는 먹는것이 제일이라는데 그 먹는것이 그래 기름진 음식이 아니란 말인가. 그런데도 난 잡곡밥에 나물반찬따위나 해드리고 어찌다가 닭알대접으로 족해하고있으니…

사람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늙마에 먹고싶어하는걸 다 먹어보는것도 복이 아니겠는가.)

《기름진 음식이라…》 하고 곱씹는 쇠옹이의 눈앞에 닭이며 돼지가 얼른거렸다.

《그래, 래년부터는 새끼돼지도 사오고 닭도 더 많이 기를테다. 허나 당장은 어쩐다?…》

쇠옹은 안타까운 나머지 풀풀 한숨을 내뿜었다.

(난 왜 웅노놓는 재간을 배우지 못했는지. 그 재간만 있어도 산짐승고기를 대접할텐데…)

쇠옹은 쓴입을 다시며 따비질을 하였다.

그날 밤, 옷방의 이부자리에 든 안해가 쇠옹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보세요, 생강달인 물이 신통한것같아요. 그걸 마시였더니 메스꺼움도 없어지고 입맛이 돌더라니까요.》

점심때 쇠옹은 생강을 달여 안해에게 주었던것이다. 안해의 어깨를 끌어안은 쇠옹이 아래방에 누운 아버지가 들을세라 귀속말로 속삭였다.

《사실 그 생강은 아버지가 준거야.》

감격한 안해가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언제면 우린 아버님께 보답을 하겠는지…》

안해도 귀속말로 속삭였다.

《참, 난 오늘 아버님이 혼자소리로 말씀하시는걸 들었어요.》

《그게 뭔데?》

《아들생일이 다가오는데 좋은 음식감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러시더군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도는 죄웅이었다.

(아버지!...)

죄웅의 아버지는 자식이 장가들어서야 아들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아보았다. 그전에는 자기의 생일은 쇠지 않으면서도 죄웅이에게는 한번도 번짐없이 색다른 음식으로 생일상을 차려준 아버지였다.

《참, 랑군님의 생일은 아버님보다 한달후이니 제 생각엔 아버님생일날에 지난해보다 음식을 더 잘 해드렸으면 해요.》

안해의 말에 감동된 죄웅이 그의 손을 꼭 감싸쥐었다.

《내 이래서 임자가 좋다는거야. 지난해에는 닭 한마리를 썼지만 이번에는 한 뒤마리쯤 잡아 닭곰을 해드리자구.》 하고 말하던 죄웅은 입을 꼭 다물어버렸다.

(아버지의 생일날은 아직 몇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의 대접은?...)

생일날 잘 먹자고 열흘전부터 굶는다는 옛말처럼 해서야 거기에 무슨 효도를 논할수 있단 말인가.

《일단 내뺄은 말은 주어담을수 없다지만... 난 생일날도 좋지만 다른 날들에도 지금보다 더 좋은 음식을 해드렸으면 원이 없겠네.》

잠시 기척않던 안해가 입을 열었다.

《아이, 내가의 자라가 생각나네.》

그 말이 아님밤중에 내미는 흥두깨같이 여겨진 쇠응이가 코웃음쳤다.

《흥! 생똥같이 자라는 무슨 자라?》

《아이참, 코막고 답답하네. 난 집앞의 내가에 나가 빨래를 할 때면 늘 상씨름군의 손바닥같이 큰 자라를 보곤 한단 말이에요. 피도 등딱지도 살도 모두 보약재인 자라를 끓여만든 자라탕이 참 별맛이라고 하더군요.》

쇠응이 머리를 저었다.

《임잔 우리 마을을 아직 모르는군. 자라를 떠나 우리 마을이 무슨 자라울이겠나. 우리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자라를 잡지 않아.》

안해도 머리를 저었다.

《아이참, 그 어떤 보물이든 사람을 떠나서 그게 무슨 소용있겠나요. 마을에서 자라를 잡지 않아온것은 그게 많아지도록 하자는것이지 아예 잡아먹지 말라는 뜻은 아닐거예요. 병약한 늙은이에겐 자라탕이 좋다는데 그래 부모를 위해 몇마리 쯤 건져내는것이 잘못이란 말이오이까.》

그 말이 사리에 맞는 까닭에 쇠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사람에게 반드시 소용되는게 있다면 쓰는게 옳다. 필요한만큼 쓰면서 그게 바닥나지 않도록 아끼는것이 옳은 처사일것이다.)

이튿날 꼭두새벽에 일어난 쇠응은 개울에 나가 큼직한 자라 한마리를 건져왔다. 뜻밖에 아침밥상우에 오른 자라탕을 받은

쇠응의 아버지가 머느리에게 말했다.

《내 너희들의 마음을 모르는게 아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 보아라. 우리 마을엔 나와 같은 늙은이들이 여럿이나 있는데 내 먼저 지금껏 내려오던 관례를 깨고 자라를 잡아먹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만은 너희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이걸 먹겠으니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

내 생각엔 앞으로 자라를 꼭 써야 할 경우 마을에서 의논하고 잡는것이 좋을것같다.》

쇠응은 아버지의 마음에 존경심이 더욱 북받쳐올랐다.

(아버님, 내 더 잘 모시겠소이다.)

그날 밤 굳잠에 든 쇠응을 흔들어깨운 안해가 귀속말로 속삭였다.

《제 생각이 짧았던것같아요. 우리 마을 개울에 사는 자라는 개구리와 달리 흔한것이 아닌 보기 드문 귀물인데 서로가 리속을 위해 잡을내기를 한다면 인차 바닥나고말게 아니겠나요.》

그 말이 옳다고 여겨진 쇠응이 고개를 끄덕였다.

《늙은이에겐 음식대접이 제일이라는 말이 무엇이겠나요. 그건 늙은이에게 있어서 음식만한 장수보약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나요. 늙은이는 젊은이와 달라서 한끼만 건너도 맥을 추지 못하고 음식대접이 박하면 누구든 오래 살수가 없지요.》

《허 참, 그런 말이나 하자고 날 깨웠소? 그런건 삼척동자도 알아.》

쇠응이 증을 냈건만 안해는 방실 웃었다.

《전 사실 그 말을 소홀히 대했어요. 백미밥이라고 해도 입
맛이 점점 못해져가는 늙은이들은 반찬이 좋지 못하면 밥을
달게 들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야 한창나이인데 무엇
이 모자라 아버님의 진지상에 바다물고기 한마리쯤 올려놓지
못하겠나요.》

《흥! 말이야 쉽지. 그게 어디 혈한 일인가? 우리 집에 무
슨 돈이 있어 끼마다 바다물고기를 대접한다고 그래?》

《할수 있어요. 랑군님의 재주를 아꼈다 어데 쓰겠나요?》

그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 쇠옹이 일어나 앉았다.

《그건 또 무슨 왕청같은 소린가?》

안해도 따라일어나 앉았다.

《랑군님은 짚신을 아주 잘 삼더군요. 랑군님이 삼아준 짚
신은 하나같이 맵시 좋고 탐탁하고 또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
겠어요.》

칭찬소리에 쇠옹이 뒤더수기를 굵적거렸다.

《그따위 짚신이 뭐라구?》

《아니, 그런 짚신을 많이 삼아 장에 내다 팔면 어찌 아버
님께 바다물고기쯤 올릴수 없겠나요. 다만 전 랑군님이 밤마
다 한껏쯤 잠을 못자면서 짚신을 삼아내겠는지 그게 걱정될
뿐이에요.》

화가 난 쇠옹이 주먹을 내흔들어보였다.

《날 어떻게 보구 그래. 내가 아버님을 위해 그쯤도 못바칠
사람같이 보이냐?》

얼른 안해가 쇠옹이의 입을 밀막으며 속삭였다.

《아버님이 깨나시겠어요.》

곧 얼싸안은 그들은 이불을 푹 뒤집어썼다.

다음날 밤부터 그들부부는 짚신을 삼는 일을 벌여놓았다.

며칠후, 안해가 수십컬레의 짚신을 이고 개경의 장거리를 찾아가니 생각보다도 더 잘 팔렸다.

하여 시아버지의 밥상우에 바다물고기반찬이 오르게 되었다.

제힘으로 아버지에게 색다른 반찬을 대접하고보니 쇠응은 내 이제야 아들구실을 하는구나 하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부심이 분발심으로 이어지니 쇠응은 날마다 자정무렵까지 밤일을 해도 힘든줄을 몰랐다.

아버지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 왔다.

이날 쇠응이 삼은 짚신을 이고 장거리를 찾았던 안해는 해질녘 팔뚝같은 잉어를 몇마리씩이나 사가지고 돌아왔다.

하나같이 일여덟근씩이나 나가는 큰 잉어를 처음 만져보는 쇠응의 입이 귀밑까지 이르렀다.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쇠응이에게 안해가 말했다.

《이게 다 짚신의 덕이에요. 사람들 말이 잉어가 장수에 그렇게도 좋다더군요. 그러니 아버님의 생일상에 잉어탕을 해올리자요.》

그날 밤도 번지지 않고 짚신을 삼는 쇠응은 흥분으로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 나도 효자구실을 하게 될줄이야. 안사람이 나보다는 몇곱절 낫다니까.)

안해를 얼싸안고싶은걸 참으며 쇠응이 말했다.

《래일 아침 생일상에 잉어탕을 올려놓고 마을어른들을 청해오면 아버님이 기뻐하실거네. 그래서 난 임자에게 귀 잡고 절을 하고싶다는거야.》

《아이참, 왜 잉어탕만이겠나요. 잉어회도 올려야지요.》

《잉어회라...》 하고 곱씹던 최웅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귀하기 이를데없는 잉어로 그런것밖에 만들수 없겠는가.

생각을 굴리던 최웅의 머리속에 좋은 궁냥이 떠올랐다.

《여보, 궁중음식에 <룽봉탕>이라는 별식이 오르는데 그 맛이 천하진미여서 타국에도 소문이 났다는구려. 래일 생일잔치 때 그 음식을 아버님께 대접하는게 어떨겠어.》

몹시 격동된 최웅이 안해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다.

《룽봉탕이요?》

《응, 그래. 룽봉탕이란 잉어와 닭을 함께 넣어 끓인 탕인데 룽봉탕의 이름에서 <룽>자는 물에서 솟구치면서 요동을 친다는 잉어를 비유하여 불인것이고 <봉>자는 날짐승가운데서 제일 귀한 닭을 봉황에 비유하여 불인것이라누만.》

그 말에 버짚을 섬겨주던 안해가 두손을 모아쥐며 감탄을 터치였다.

《아이 정말, 그런 귀한 음식을 아버님께 대접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룽봉탕이라는 말에 안해도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이튿날 아침 최웅이네 집은 여느때없이 흥성거렸다.

희한한 룽봉탕까지 오른 음식상에 둘러앉은 로인들은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원 세상에, 이런 기막힌 고기국도 있소그려.》

눈맛도 입맛도 더할바없이 좋은 룡봉탕에 갇든 사연을 안
로인들은 쇠옹이네 부부를 칭찬해마지 않았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게야 밥이 장수보약인데 그걸 헤아
려 음식대접을 잘하는 이 집의 아들, 며느리야말로 진짜배기
효자, 효부일세 그러.》

《그러하기에 궁중에서만 먹는 룡봉탕을 우리가 맛보는게
아니요.》

《이런 집에 효자문, 효부문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어데다
세우겠소.》

다음날도, 그 다음날에도 날이 가고 해가 가도 쇠옹부부가
어느 하루도 음식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으니 그 덕에 아버지는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장수하게 되었고 더불어 보양음식
으로 소문난 룡봉탕은 더욱더 이름떨치게 되었다.

전 철 호

하 공 진

1011년 가을 어느날, 료나라 궁성의 추국장은 거란왕(성종)이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로 찡찡 울리고있었다.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들도 없는 과분한 은총과 대우를 안겨주었거늘 어찌 이를 배반할수가 있단 말이나!》

하공진은 가혹한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가까스로 들며 거란왕을 쏘아보았다. 그 어떤 우려나 겁기가 없는 표정으로 그는 나직하게 말하였다.

《그야 당신이 제후에 겨워 자의대로 한짓이 아니요. 내가 그런 은총과 대우를 요구한것이 아니요, 달라고 간청한적은 더욱 없거늘 이제 와서 어찌 10년 묵은 빚을 한꺼번에 달라는 말투로 책망하시는게요.》

참으로 당돌하다고 할수밖에 없는 대꾸였다.

《발칙한지교. 내가 너를 너무도 호락호락하게 대해줬나보구나. 그래 진정 죽음을 자초하는것이냐?》

《나는 고국 고려에 대하여 판마음을 품을수 없으니 죽으면 죽었지 살아서 거란의 신하로 살기를 원치 않소. 여러말할것없이 어서 죽이요.》

말을 마친 하공진은 더이상 이야기하기가 쓰겁다는듯 지그시 눈을 감아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최후를 각오한 비장감과 함께 인생의 마무리를 후회없이 매듭짓게 되었다는 안도의 기

색이 력력히 엿보였다.

이런 하공진의 모습을 보며 이를 부드득 가는 거란왕의 머리카락에는 그를 처음 만나던 때가 다시금 상기되었다.

하공진은 진주사람으로서 고려 성종때에는 압록강구당사로 있었고 목종때에는 중랑장, 현종초에는 상서좌사랑중의 벼슬을 지내었다.

하지만 거란의 2차침략직전에는 남쪽 먼 섬에 류배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시기 첨예화된 고려-녀진, 거란관계와 관련되어있었다.

1005년 1월 동녀진인들이 국경을 침범하여 북쪽변경의 30여개 마을을 약탈하고 불사른 일이 있었다. 이를 보복하기 위해 당시 동서북면의 사업을 맡아보던 하공진은 군사를 일으켜 녀진인들의 소굴로 쳐들어갔으나 그만 패전하고말았으며 이에 분격한 화주방어랑중 류종이 무역을 위하여 화주관에 들어와 머무르고있던 95명의 녀진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고려-녀진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녀진인들은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일당을 처단하고 목종을 폐위시킨 사실을 언질삼아 고려를 침략하도록 거란을 꼬드기기까지 하였다.

거란의 침략전야에 고려조정에서는 승인없이 자의대로 군사를 일으켜 녀진을 쳤다가 패배한 책임을 물어 하공진을 류배보내었다.

1010년(고려 현종 1년) 11월 거란왕 성종은 목종의 폐위와 그의 죽음을 따진다는 구실밑에 40만의 침략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왔으며 하여 제2차 고려-거란전쟁이 개시되었다.

고려정부는 거란의 침략에 대처하여 강조를 행영도통사로 임명하고 30만의 병력으로 거란군과 맞서도록 하였다.

강조는 고려군을 나누어 세계의 진을 치도록 하였는데 마지막진은 통주성에 의지하여 진을 쳤다. 그리고는 검차를 비롯한 방어수단들을 리용하여 거란군의 공격을 여러 차례 물리쳤다.

하나 첫 승리에 자만도취하여 적들을 앞잡아보았던 강조는 자기 군막안에서 바둑을 두다가 기습해온 거란군에게 포로되 고말았다. 이와 같은 강조의 실책으로 하여 고려군의 방어진은 무너지고말았으며 거란군이 고려깊이로 남하할수 있는 길이 열리었다.

비록 적을 경시하다가 포로되는 엄중한 잘못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강조는 항복하라는 적들의 회유를 단호히 거부하고 적진에서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통주에서의 전투이후 거란군은 홍화진, 서경 등지에서 고려군민의 편속적인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하를 멈추지 않았다.

적들과의 역량상차이로 하여 부득불 국왕일행은 남쪽으로 피난가고 고려조정은 일시 수도를 내주지 않을수 없었다.

류배갔다가 이내 소환복직되여온 하공진은 이 소식을 듣고 통분해마지 않았다.

《무도한 외적무리들이 더러운 발굽으로 성스런 고려의 강토를 유린한다니 내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으랴.》

그는 급히 임금이 있는 행재소(국왕이 립시 머무르는 곳)로 찾아갔다.

하공진이 임금을 만난것은 1010년 설달그믐날이었다.

《그대는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는가?》

《지금 외적이 침노하여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지라 소신의분을 이기지 못하여 이런 무례를 저질렀나이다. 바라옵건대 국난을 당한 이때 소신이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 미진한 힘이 나마 바치다가 죽게 해주옵소서.》

그 말에 임금은 《풍설을 맞아보아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더니 참으로 그대의 애국충정에 감격을 금할수가 없구나.》 하고 하공진을 치하하고나서 다시 물었다.

《지금 거란군의 군세가 만만치 않은데 이를 어찌 물리쳤으면 좋겠는지 그대는 생각하고있는바가 없는가?》

《본시 적들은 목종을 죽인 역적을 잡기 위한다는 구실밑에 침입한것인데 이미 도통사를 붙잡아죽였으므로 그 명목은 없어진셈이오이다.

그러니 적들에게 강화를 요구함이 어떻겠소이까?

집안에 들어온 강도에게 물러가란다고 해서 그냥 물러날리는 없겠지만 강화교섭을 진행하여 우리 고려의 정당성을 날날이 밝히고 적들이 철군하도록 강경하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이다.

소신이 비록 미흡하오나 적진으로 들어가 강화교섭을 해볼가하오니 허락해주시오이다.》

임금은 하공진이 이곳까지 불원천리하여 찾아와준것만도 고마운데 위험한 적군과의 철병교섭까지 말아나서겠다 하니 그의 충성심에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임금은 즉시 그의 요청대로 하공진과 고영기를 강화교섭사

로 적진에 파견하였다.

하공진은 창화현(양주)에서 먼저 강화요구서한을 랑장 장민, 별장 정열에게 주어 거란군영으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출발한지 얼마 안있어 거란군의 선봉군이 급속히 달려들었으므로 하공진은 적들과 직접 맞다들게 되었다.

적의 선봉장은 하공진을 보자바람으로 임금의 행처부터 다 우쳐물었다.

《고려임금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임금께서는 강남으로 가시었는데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는 딱히 모르겠소.》

《강남?... 강남이 여기서 얼마나 먼가?》

《강남은 대단히 먼곳이라 여기서부터 몇만리나 될지는 나도 잘 모르오.》

《뭘... 뭘, 몇만리라고? 고려땅이 그렇게 넓은가?》

《거란땅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을것ियो.》

놀라움으로 눈이 벌췌 뒤집혀진 적의 선봉장에게 하공진은 위엄있는 어조로 말하였다.

《나는 우리 임금으로부터 령을 받고 거란의 임금을 찾아가는 길이니 례의있게 대하도록 하라. 어서 너희들의 임금에게 안내하지 못할가.》

하공진의 호기있고 위풍넘친 태도에 주눅이 든 적의 선봉장은 아무 소리없이 고려사신일행을 거란왕에게로 안내하였다.

그날은 1011년 1월 3일이였다.

《고려국 사신 하공진, 인사드리오.》

거란왕은 고려의 사신이 제발 살려주십사 땅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애걸복걸할념도 없이 시작부터 허리를 꼴꼴이 펴고 나직한 어조로 인사만 하는것으로 하여 기분이 싹 잡혔다.

그러나 도끼눈을 해가지고 고려사신을 살펴보던 거란왕의 입이 저도 모르게 짝 벌어졌다.

우람찬 체격이며 틀잡힌 거동은 참으로 무제있고 위풍넘쳐보였으며 기결차면서도 인자한 빛을 머금은 고려사신의 얼굴에는 그 무엇이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던것이다. 지금껏 이 고려사신처럼 첫눈에 혼을 쑥 빼버릴 정도로 반해버리게 되는 인물은 아직 본적이 없었다.

(용모 하나만 놓고보아도 필시 비범한 인물임이 틀림없다.

아깝구나, 아까워. 어찌 내 수하에는 이 사람의 절반만한 인물도 없는것이나?)

이처럼 마음속으로 탄식이 끊어올랐으나 거란왕은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않고 으름장부터 놓았다.

《내 이제 천군만마로 고려땅을 자리말듯하려는 판인데 그대는 무슨 일로 예까지 왔는가? 분명 항복을 고하러 온것같구나.》

《허허... 길고짧은것은 대봐야 아는거외다. 항복이라니, 당치도 않은 말이요.》

하공진은 이렇게 썩평 좋게 대꾸하고는 말을 이었다.

《거란의 고려침공명분이 선대임금 목종을 살해한 도통사(강조)를 벌하려는것이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그렇다. 고려국의 강조는 혼란된 국정을 바로잡는다는 허울좋은 명목밑에 정변을 일으켜 아무런 과실이 없는 자기 입

금을 꿰워시킨 후 마침내는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천고에 다시없을 불충이며 반역이 아니겠느냐.

지금 조금이라도 사리를 아는 천하의 인물들치고 강조의 이런 행위에 격분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 이런 민심을 대변하여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마침내는 고려국의 지경을 범하게 된것이다.》

《의로운 군사를 일으켰다? 허허... 참으로 소가 웃다 꾸레미가 터질 일ियो.》

비록 얼굴에는 웃음이 비졌다고는 하지만 하공진의 두눈에는 이름할수 없는 격분의 빛이 어렸다.

《거란의 임금께서는 아마 고려의 실정을 잘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것같소. 우리 고려국의 선대임금이신 목종전하께서는 오랜 병환으로 하여 국정을 돌보는 날보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날이 더 많았소. 그러자 천추태후(목종의 어머니)와 그의 친척인 김치양일당이 권력을 틀어쥐고 온갖 전횡과 부패행위를 일삼으며 조정의 충신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곤궁에 빠뜨리니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간악한 무리들을 원망하는 만민의 부르짖음이 하늘땅에 가득했소.

하여 마침내 강조도통사가 의분을 못이겨 정변을 일으켜 역적의 무리들을 쓸어버리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은것ियो.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고려의 집안일이라 타국에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면서 내정간섭할 일이 아니며 이미 도통사는 귀족에서 처분한 뒤가 아니요. 그럼에도 계속 지경깊이 내려오는 진뜻은 대체 무엇ियो? 그냥 고려땅이 탐나서 그

린다고 직방 말하는것이 좋겠소.》

하공진이 시종 웃음을 담은채 요점을 꼬집어 공격해들어오는양을 이극도록 바라보던 거란왕은 자기도 선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비록 강조가 죽었다 해도 고려왕이 곱게 항복할념을 하지 않고 달아난것은 참으로 패썹하다. 내 반드시 너희네 임금을 사로잡아 항복서를 받을테니 그리 알아라.》

《자고로 싸움을 일으키기는 쉽지만 끝맺기는 어려운 법이요. 지금 귀족이 일시 승리를 거두고있다고는 하지만 그닥 략관적인 형편에 있는것은 아닌줄로 아외다. 내 이곳까지 오는 길에 귀족의 군영을 가만히 살펴보니 군사들의 얼굴에 주리고 지친 기색이 가득하고 또 군마를 잡아 끼니를 에우던데 이런 군사로 어떻게 싸움을 계속할수가 있겠소? 필시 오래가지 못할것이요. 더구나 우리 고려사람들은 항복은커녕 침략자들과 맞서 끝까지 결사항전할것이니 속히 퇴군할것을 권고하오. 그러지 않고 더 끌어봤자 반드시 참혹한 후과를 맛보게 될것이요.》

사리에 맞는 하공진의 강경한 요구를 덤덤히 들으며 거란왕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듯 침묵을 지키었다.

당시 거란군은 개경으로 진출하여 고려왕의 《항복》이라도 받아내려고 침입하였던것이나 국왕의 피난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홍화진, 서경 등 함락시키지 못한 성들을 남겨둔채 진군하다보니 배후로부터 고려군의 공격을 받을 위험도 있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난감한 처지에 있는터에 고려사신 하공진의 철병요구까지 받고보니 더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그래, 이쯤해서 물리서면 거란의 체면이라도 지킬수가 있겠지. 하지만 하공진, 너는 순순히 돌려보낼수 없다.)

이렇게 속궁냥을 다진 거란왕은 조폭한 인상을 지으며 뇌까렸다.

《좋다. 내 좀 생각을 해보련다. 그리고 그대들일행은 돌아가지 말고 우리 진중에 남도록 하라.》

《군사사절을 인질로 쓰려는것ियो? 여간 좀스러운짓이 아닌가 하오.》

《우리 군영의 허실을 자세히 파악하고있는 너를 곱게 돌려보낼수는 없다. 그리고... 진심을 말한다면 그대를 몹시 나의 신하로 삼고싶다. 나를 충심으로 섬긴다면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해줄것이니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날더러 두 어미의 젖을 빨라는 말이로군. 허허... 절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을거요!》

이렇게 끝난 하공진과의 첫 상면이었다. 그후 열흘도 못되어 거란왕은 하공진의 말대로 패장의 가련한 신세를 겪게 되었다. 고려군의 주동적이며 강력한 공세에 침략자들은 더 건디여배길수도 없고 또 더 남쪽으로 침공할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빠진것이다. 하여 거란군은 개경에 기여든지 불과 10일만인 1011년 1월 11일부터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말그대로 줄행랑을 놓아 거란으로 돌아온 성종은 하공진과 함께 억류해온 고영기는 동경(료양)에 떨구어놓고 하공진만은 연경(베이징)까지 데리고 와서 궁성안에 거처하게 하였는데 량가집 규수까지 주선하여 배필로 정해주며 대우했다.

또한 하공진을 위하여 사흘에 한번 작은 잔치를, 다섯에

한번씩 큰 잔치를 차렸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귀한 금은 보화를 듬뿍듬뿍 안겨주니 그 후대함이 참으로 극진하였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신하들이 거란왕에게 말하였다.

《하공진에 대한 대왕의 대우가 너무도 과한줄로 아옵니다. 고려인들은 좀처럼 자기 고국을 배신하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하공진은 특별히 지조가 굳은자이니 앞으로 반드시 대왕을 배신할것이오이다. 그때 가서 후회해야 늦소이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라. 개도 사흘을 먹여주면 주인을 가려보는 법이다. 내가 지성을 다하여 대접해준다면 반드시 내 사람이 되고말것이다. 게다가 그와 같이 출중한 인품과 지혜를 가진자를 돌려세운다면 앞으로 고려와의 싸움에서 크게 쓸모가 있을것이다. 그러니 여러말말어라.》

거란왕의 호의에 하늘이 도왔는지 여름에 들어서면서 하공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소풍을 함께 하자 청하면 쾌히 응하였고 이러니저러니 조정일에 대하여 물어보면 제법 귀맛이 당기는 조언까지도 주었다.

본래 언변술이 좋은데다 거란문물을 잘 알고있던 하공진이라 어렵지 않게 거란왕의 환심을 살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거란왕은 하공진을 점점 신임하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그를 완전히 믿게 되었다.

거란왕은 하공진이 동료인 고영기를 만나보고싶다 하자 미련없이 동경까지 다녀오도록 허락했고 부인들까지 아무때건 서로 오가며 소식을 전하도록 해주었다. 고영기도 하공진처럼 량가 집 처녀를 배필로 하사받았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의 탈출을 시도하는 공간으로 리용될줄

을 어이 알았으랴.

그사이 하공진은 연경에서 동경까지, 고영기는 동경에서 압록강까지 도망칠 로정을 정해놓고 그 준비를 하고있었던것이다.

도중도중의 역참이나 주막거리에 좋은 말들을 사서 말겨두었는데 이것이 거란의 감시에 포착되었다.

더는 버티어봤댔자 소용이 없다는것을 안 하공진은 숨김없이 터놓았다.

자기는 압록강을 건너온 그날부터 어느 하루도 고국 고려를 잊은적이 없다고, 어느때건 다시 압록강을 건너갈 결심이 있다는것을...

하공진의 얼굴을 쏘아보며 거란왕은 당장이라도 그를 칼탕 쳐죽이고싶었다.

(참으로 고려놈을 수족으로 부리려 했던 내 생각이 어리석었던 말인가? 내 당장이라도 네놈을...)

당장 하공진의 살점을 저며 죽이라고 말하고싶었으나 거란왕은 주춤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냥 죽이기에는 사람이 너무 아까웠던것이다.

예로부터 열개의 성을 공략하기보다 인재 한명을 구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지 않았는가.

거란왕은 속에서 부글부글 솟구쳐오르는 분노를 겨우 가라앉히고 다시금 하공진을 얼리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관대히 죄를 용서해줄테니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겠는가?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끔찍한 고통속에서 죽게 될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답하건대 나에게 두 뜻이 있을수 없으니 당

치않은 설교를 이젠 그만두라. 적국의 땅에 돌 한개라도 더 집어던져야 시원할 판에 어찌 거란의 신하로 살겠는가. 차라리 죽어서 고려의 개, 돼지로라도 다시 태어나련다. 자, 어서 한번이라도 죽여보거라.》

하공진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고려사람으로서의 지조를 굽힐수 없다는 자세를 더욱더 취하였다.

끝내 거란왕은 본성을 드러내었다. 그는 미친듯이 고향을 질러댔다.

《이 고려놈의 각을 뜨고 염통과 간을 내어 먹으라!》

하공진은 태연히 죽음을 받아들였다.

거란왕이 자기를 포섭하려는 본심은 인재라고 하는데도 있지만 당장은 다음번 고려침공때 자기를 써먹으려하는데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기때문이다. 이것을 용납할수 없는 하공진이기에 그는 거란왕의 요구를 거절하는것으로 고려재침공기도를 규탄배격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것이다.

이런 하공진에 대하여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좌사랑중 하공진은 현종 1년(1010년) 거란군이 침입하였을 때는 전장에서 신명을 돌보지 않고 싸웠으며 군사사절로 적군영에 들어가서는 열변을 토함으로써 대군을 물러가게 하였으니 그의 공적은 공신각에 화상을 불일만하다.》

김 남

칭기스한의 사신을 길들인 김희제

고려 고종(1214년-1259년)초엽, 대군으로 동서북남의 광활한 남의 강토를 사납게 집어삼키던 몽골의 칭기스한이 고려를 넘보며 사신을 보내어왔다.

몽골사신들이 찾아오는 진속은 화친이 아니라 고려의 군력과 개경으로 쳐들어가는 길을 알아내는 동시에 포악무도한 저희 국력을 뽐내어 고려를 속국으로 만들자는데 있었다.

이런 속심으로 고려를 찾아온 몽골사신들은 저희는 천하무적이라고 안하무인처럼 놀아댔다. 지어는 레물을 선사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을 맞아들이고 안내를 하는 소임을 맡은 고려 조정의 관반사에게까지 야료를 부리다 못해 칼부림을 들이대는 지경이었다.

고려건국 이래 레의를 모르는 무지막지한 이런 사신은 보다 처음이었다.

고려조정에서는 한주먹으로 그것들을 쳐엎애고싶었지만 이는 동방레의지국의 체모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또 두 나라의 관계에도 금이 갈수 있기에 이번에는 지혜와 용맹이 겸비된 장수인 김희제에게 관반사의 일을 맡기었다.

한미한 출신이지만 글눈이 뛰어난 김희제는 많은 책을 읽어 력사와 병법, 레법에도 밝고 시도 잘 지었다. 뿐더러 체격이 장대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러했기에 군졸로부터 40대나이에 이른 오늘날에는 장수로까지 출세한것이였다.

군졸출신으로 조정의 얼굴이라는 관반사가 된것은 김희제가 처음이였다.

뜻밖에 관반사의 중임을 맡은 김희제는 먼저 칭기스한이 어떤 인물인지 그것부터 알고싶었다.

기둥을 쳐야 보짱을 올린다고 횡포하게 놀아대는 몽골사신들을 줌안에 틀어쥐고 꼼짝 못하게 다스리자면 그것들의 괴수부터 알아야 하였다.

그래서 병부와 레부를 찾아가 알아보니 칭기스한은 용맹과 지략이 비범하고 만고에 보기 드문 잔인한 사람이라는것이였다.

몽골의 한개 부족을 이끄는것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은 적수들을 계략으로 압도하고 사정없이 짓밟개온 정복의 인생이라 할수 있었다.

살륙과 파괴, 략탈 이 세가지 기질로 천하를 불모지로 쳐박고있는 칭기스한이기에 부하들도 횡포한 그를 닮을수밖에 없었다.

칭기스한의 부하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까지 횡포하게 놀아대는것은 사실 화친을 깨고 전란을 일으킬 구실을 얻기 위해서라는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지금껏 두 나라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것은 고려가 자중했기때문이었다.

앞으로도 고려가 일방적으로 폐의로서만 대한다면 그것들은 더욱 오만무례해져서 보다 횡포해질것이며 저희들의 속국이 되

라고까지 강박할것이다.

화친이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이런 굴욕을 김희제로서는 참을수 없었다.

우리 고려가 어떤 나라인가. 세상에서 선참으로 일떠선 박달임금의 나라와 동명성제의 고구려를 이은 나라가 아닌가.

대대로 천자국의 강대한 위력으로 이웃의 족속들을 줍안에 넣고 다스려온 조상들처럼 역세고 드센 박달겨레의 기강으로 맞선다면 칭기스한의 할애비인들 어찌 이길수 없겠는가.

김희제는 설사 전란이 일어난다고 해도 칭기스한의 부하들에게 고려사람의 본때부터 보여주리라 마음먹었다.

이때 저가를 정사로 하는 칭기스한의 사신들이 압록강을 건너오기 바쁘게 관가에 대고 폐물을 내라며 성화를 부린다는 급보가 조정에 올라왔다. 뒤이어 동북면병마사 급보도 왔는데 저가가 저희네 대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길안내를 맡은 아전을 활로 쏘았다는것이였다.

이 급보에 김희제는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었다.

(이놈들, 어디 두고보자.)

칭기스한의 사신들이 금교역에 도착하여 다음날 개경으로 올라온다는 보고를 받은 김희제는 이튿날 갑옷차림으로 말에 올랐다.

역관을 거느리고 오정문을 나선 김희제는 황교앞에서 말을 멈추었다. 마침 웅장한 황교로 칭기스한의 사신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사신들은 모두 말을 탔고 그들의 뒤로 빈몸의 말과 락타가 무려 백여필이나 따르는것이였다. 사신들은 할라트라고 하는

두루마기 비슷한 긴 덧옷을 입고 머리에는 운두가 있는 사발 모양의 쓰개를 쓰고있었다.

그들을 호위하는 군사들은 갑옷에 투구를 차리고 손에 두 길도 넘을 긴 창을 들었다.

짐을 치지 않은 말과 락타행렬에 김희제는 의분이 뿜어올랐다.

(고약한 놈들, 감히 우리의 보물을 실어가겠냐? 어렵도 없다.)

드디어 선두의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섰다.

몽골사신들을 길잡이해온 두명의 고려군사가 김희제를 보고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의 군례에 말에서 내린 김희제가 고개를 끄덕이는것으로써 답례를 하는데 역관이 몽골사신들을 향해 류창한 몽골말로 입을 열었다.

《장군 김희제어른께서 관반사로 그대들을 맞이하러 나왔소. 몽골정사는 누구시오?》

선두에서 말탄 사람이 으시대며 뭐라고 쭈얼거리는데 김희제는 그가 저가임을 짐작하였다.

넙적한 얼굴에 광대뼈가 두드러지고 눈망울이 불거져나온 그자의 눈에서 광기와 탐욕이 이글거렸다.

김희제는 길복판에 우뚝 버티고 섰다.

전장에 나선 장수차림의 장대한 고려 관반사가 길복판을 뚝 버티고 서서 무서운 눈길로 쏘아보는 바람에 흠칫 놀란 저가가 말에서 뛰어내렸다.

하나 불만에 차서 목청을 돋구는것이였다.

《천하강국의 칙사를 감히 막아설수 있는가?》

역관의 통역에 김희제는 당장 저가의 먹살을 부여잡을듯 맞받아나가며 올리켰다.

《어리석도다. 우리 고려는 천제의 자손이 세운 천자국으로서 나는 천자의 신하이다. 얼마전ैया 나라 같은것을 세운 그대들이 누굴 보고 호통질이나.

우리에게는 천자국의 엄한 법도가 있거늘 그가 누구이든 우리의 지경에 들어섰으면 우리의 법에 순종할것이고 그에 불응한다면 어찌 사신의 대접을 바랄수 있겠느냐?》

여차하면 커다란 주먹을 안길 태세인 김희제의 드센 태도에 저가는 눈알이 떴쥘해졌다.

앞서 고려를 다녀온 동료들로부터 례의범절을 하느처럼 숭상하는 고려사람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후한 대접으로 맞아주고 재물도 많은지 요구만 하면 듬뿍듬뿍 안겨준다는 말에 한달음에 달려가 일확천금도 하고 위세도 떨쳐보자 했는데 장사같은 사람이 나타나 버릇부터 가르치려드니 가슴이 떨리는 것이였다.

김희제의 다음 말은 저가를 아예 흥씨를 싸갈기게 하였다.

《천하의 그 어떤 나라이든 죄없는 사람을 죽인자는 반드시 죽인다. 몽골도 그러할것이다. 그대가 사신임에도 불구하고 로상에서 우리의 백성을 활로 쏘아눴했다는것은 주객이 다 아는것이다.

아직은 활에 맞아 쓰러진 사람의 목숨이 붙어있다고 하는데 그가 요행 살아난다면 피해를 끼친 배상이나 하면 될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대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것은 물론이고 일행모두도 엄벌에 처할것이다. 뿐더러 그대는 두 나라

간의 화친을 갠 두 나라의 죄인으로 후세에도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그만 질겁하여 부들부들 몸을 떠는 저가에게 있어서 김희제는 염라대왕인듯싶었다.

그의 기상으로 보아 결코 빈말을 하지 않을것이였다.

제 모가지가 떨어져나가는 무서운 환각에 털썩 주저앉은 저가는 애원하였다.

《제발 잘못했사오니 한번만 용서해주시오이다. 그러면 그대가 바라는대로 절대복종하겠소이다.》

이때라고 김희제는 으름장을 놓았다.

《그대의 목숨은 그대의 언행여하에 달려있소. 하루강아지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그대들 몽골사신들이 우리 고려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있소. 우리 고려는 싸움을 두려워하는 약소국이 아니요. 지난날 그대의 몽골땅도 먹어치우고 천하대국이라 으시대던 거란과도 우린 싸워 이겼소. 그때문에 쇠약해진 거란은 종당엔 몽골에게 먹히우고만것ियो.

우리 고려는 앞으로도 그 어떤 강적과도 싸워 이길것ियो. 하기에 우리 고려는 우리를 함부로 업수이여기려드는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는것ियो.

이걸 안다면 그대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알거요.》

넋이 나갈 정도로 압도당한 칭기스한의 사신들은 다시는 무례하게 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몽골에 조공을 하며 칭기스한을 섬기는 속국이 되라는 저희 조정의 령을 전달도 못하고 돌아가버렸다.

저가네가 몽골을 섬기겠다는 고려임금의 국서를 받아가지고

오지 못한것을 안 칭기스한은 노발대발하던 끝에 보다 사납기로 알려진 희속불화를 정사로 하는 새로운 사신단을 고려에 급파하였다.

저가로부터 고려가 생각과는 달리 강대한 나라라는것을 안 희속불화는 개경으로 오는 길에 내놓고 무례하게 굴지 못하였다.

고려조정이 개경을 찾아온 칭기스한의 사신들과 회담을 가지기로 약속한 그 전날이었다.

대궐의 대관전에다 성대한 주연상을 차리게 한 고려임금이 몽골사신들을 청하였다.

그동안 김희제의 엄한 기품에 놀리워 조심히 처신했던 희속불화가 불쑥 병쟁기를 차리고 주연에 참가하겠다고 하는것이였다.

병쟁기를 가지고 대궐의 주연에 나서는것은 실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것으로서 여기에는 고려임금의 기를 꺾고 저희를 섬기겠다는 국서를 받아내려는 희속불화의 음흉한 기도가 깔려 있었다.

이를 제때에 간파한 김희제는 희속불화의 앞을 막고 엄하게 따졌다.

《우리와 몽골이 화친한 사이요, 싸우는 사이요?》

언제 봐야 드세고 위엄찬 김희제앞에 위압된 희속불화는 공손히 대답하지 않을수 없었다.

《삼척동자도 화친한 사이임을 알지 않소이까.》

《그런데도 병기를 차고나서겠다는 까닭이 뭐요. 이는 곧 그대가 두 나라사이의 화친을 깨고 싸움을 하겠다는것을 알리

겠다는것인데 만일 그러하다면 난 고려의 장수로서 싸움을 건
그대의 머리부터 버이겠소.

우리 나라 속담에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치고 돌로 치면 돌로 친다.>는 말이 있소. 몽골이 그렇게도 고려와 싸우는것이 소원이라면 우린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소.》

김희제의 드센 공세에 풀이 죽은 희속불화는 즉석에서 병쟁기를 풀어놓았다.

《잘못했소이다. 실은 우리의 풍속에 병기를 가지고도 주연에 참가하기에...》

김희제는 변명을 하는 희속불화를 다 불러댔다.

《저가가 왔을 때에도 강조하였지만 우리 고려는 우리와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나라와는 가까이 지내지만 주체넘게 우리를 업수이여기려드는 나라와는 그가 어떤 나라이든 굽어들지 않는다는것을 알아두시오.

우리에게 조공이니 칭신이니 하는걸 강요하려든다면 그것이 곧 싸움을 거는것이라 그대들은 목부터 건지지 못할것ियो.》

희속불화는 공포로 몸을 떨었다.

고려에 와서 지내보니 저가의 말대로 강대한 나라가 분명하였다.

개경에만도 수만명의 정예군이 항시 주둔해있고 도성은 또 대단히 크고 견고하였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어데 가나 이 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제 나라를 아끼는 마음을 엿볼수 있었다.

이런 형편을 수만리 먼곳에 있는 칭기스한이 어찌 알수 있으랴. 고국은 멀고 목숨은 남의 손에 쥐여있으니 이 나라의

형편도 모르는 칭기스한의 령만 령이라고 하다가는 타국에서 무주고혼이 될수 있다. 목숨을 건지려거든 저가네처럼 입을 다물고있는것이 상책이리라.

이런 생각으로 희속불화는 굶신거리며 다짐하였다.

《관반사의 뜻을 따르겠으니 너무 목을 조이지 말아주소이다.》

그리하여 희속불화도 저가처럼 개경거리를 유람하다가는 조용히 물러가고말았다.

희속불화도 빈손으로 돌아오자 칭기스한은 또 다른 사신단을 급파하였다.

하지만 그들도 김희제의 위엄에 압도되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수 없었다.

고려를 다녀오는 부하들마다 그 나라가 천하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를 이은 나라로서 강국이라고 아뢰이니 칭기스한은 고려와는 아직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로써 죽는 순간에까지도 강포한 대군을 거느리고 다른 나라의 강토를 무자비하게 무찌른 칭기스한이었지만 고려에만은 화친의 사절을 보내어왔다.

이렇듯 고려가 천하를 휩쓴 칭기스한의 동란에도 끄떡없이 존재할수 있는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김희제와 같은 충신이 많았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엄 창 도

부부간의 겨루기

조선봉건왕조시기 충청도 청주고을에는 엄순이라고 하는 녀인이 살고있었다.

서른고개의 엄순은 주로 모시냥이로써 생계를 유지하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날도 엄순은 아침설것이를 마치기 바쁘게 바가지에 한가득 물을 떠들고 베틀이 설치된 움을 찾았다.

움에 들어선 엄순은 늘 그러했듯 바닥에 살짝살짝 물을 뿌렸다.

움바닥에 물을 뿌리는것은 움안이 축축해야 마음대로 모시냥이를 할수 있기때문이였다.

모시냥이도 베틀이처럼 여간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시실은 질긴 무명실이나 명주실과는 달리 마르기만 하면 툭 툭 끊어지기가 일쑤이다.

그래서 일부러 눅눅한 움에다 베틀을 들여다놓고 움바닥에 물까지 뿌려가면서 모시실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밤새 움에 놓아두어서 눅눅해진 모시실을 날랜 솜씨로 베틀에 늘인 엄순은 앓을깨에 걸터앉았다.

드디어 그의 손이 잼싸게 움직이였다.

엄순이에게 남다른 재간이 있다면 모시천을 아주 곱게 짜는것이였다.

철들기 전에 벌써 베틀에 마주앉기만 하면 눈감고도 복질

과 바디질을 재치있게 하는 모시냥이의 능수가 된 엄순이다.

하기에 그가 낳은 세모시나 무늬모시는 질이 좋아 사람들이 다투어 사갔다.

그때문에 여기저기서 반작모시를 하자고 실을 대주는 까닭에 엄순이네 집에서는 어느 하루도 바디질소리가 멎을줄 몰랐다.

반작모시란 모시냥이를 하는 사람과 실을 댄 사람이 모시를 판 돈을 똑같이 나누어가지는것을 말하는데 남다른 그 재간 덕에 엄순이네가 밥술을 놓지 않는것이였다.

쩍싸게 손을 놀리던 엄순은 이제 한해만 있으면 시부모의 환갑이라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다.

(에그, 어이하여 날과 달은 개울물이 흐르는듯 잘도 가는 것인지...)

병없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식들의 마음에는 아랑곳도 않고 시부모의 머리에 흰서리를 띄이게 한 세월이 원망스러웠다.

《무정세월이라더니... 쫓쫓.》

쉬임없이 오르내리는 바디우에 시집을 오던 때가 엇그제의 일이런듯 그려졌다. 벌써 10여년전의 일이였다.

엄순의 본가는 청주에서 수십리 떨어진 시골에 있었다.

어느날 엄순이를 불러왔힌 아버지는 뜻밖에도 청주총각에게 시집을 가라는 엄한 분부를 내리였다.

그 말에 엄순이의 가슴이 쿵쿵 뛴뛰였다.

(청주총각은 어떤 사람일까?!...)

며칠후 청주총각의 집에서 납폐가 들어오고 또 며칠이 지나서는 하늘소를 탄 신랑이 후행군들을 뒤에 달고 들이닥쳤다.

하늘소에서 내려 프락에 들어서는 신랑을 본 엄순은 그만에

야 어마지두 놀라 하마트면 땅에 주저앉을번하였다.

남몰래 상상해본 신랑은 림름한 청년이었는데 뜨락에 들이
선 당사자는 키도 형편없이 작고 몸집도 가는 코흘리개였다.

(아이구맙소사, 난 청맹과니도 아닌데 저런 코흘리개를 남편
으로 삼는단 말이오이까.)

그렇다고 부모의 뜻을 거역할수는 없었다.

혼례식을 치른 엄순은 이튿날 눈물속에 친정집을 나섰다.

(아이구, 나는 무엇이 모자라 저런 코흘리개한테 시집을 가
야 하나.)

엄순이의 속을 알리 없는 마을녀인들은 한생에 한번밖에 없
는 이 좋은 날에 눈물을 흘리면 일생 눈물속에 산다며 어서
눈물을 거두라고 떠들어댔다.

가마에 올라 큰길에 들어서니 가마꾼들이 신부를 놀려주느
라고 《덩치큰 새각시야. 아기신랑을 업고 가렴.》 하고 우스
개소리를 하는것이였다.

그 말에 엄순이는 더더욱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설음탓에 엄순은 신랑집에 어떻게 당도해서 혼례식을 마저
하였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새로 지었다는 초가집으로 이끌었다.

엄순이를 따뜻한 방에 눌러앉힌 시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이 집은 온 마을이 달라붙어 지었단다. 너희들에게 주자
고 말이다.》

하지만 엄순이에게는 달갑게 들리지 않았다.

가슴속에서는 제 아들이 부실하니 재물로 남의 집 딸을 앓

아왔다는 불만이 꿈틀거렸다.

《아가, 여기엔 우리 둘뿐이니 무얼 더 숨기겠느냐. 사실 네 신랑은 내 아들이 아니란다.》

그 말에 놀란 엄순이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 사연을 입에 담자니...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열일곱해전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물참봉이 된 웬 녀인이 내 집마당에서 쓰러지는게 아니겠니.

그 사람의 등에서는 엷은 아이가 숨넘어갈듯 울고있었다.

깜짝 놀란 난 그 녀인을 방에 들여다 눕히고 의원을 청해왔다.

그날 밤 녀인은 숨지고말았구나. 눈을 감기에 앞서 하는 말이 남정네는 변방에 군사로 나갔다가 잘못되었고 마을에는 열병이 심하게 돌아서 술한 사람들이 죽었다더구나. 그래서 본가에 의지하려고 가던 길이었다더라.》

엄순이의 두눈이 둥그래졌다.

《그래 내 집에서 그 아이를 맡아 길렀지. 헌데 젖을 제대로 얻어먹이지 못해서인지 나이는 들었어도 어디 몸이 꺾야말이지.

지난해 이맘때인데 어떤 사람이 저녁에 우리 집에서 쉬여가자고 들렀네.

이말저말끝에 우리 아들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을 들은 나그네가 눈물이 글썽해서 하는 말이 나라에 목숨을 바

친 군사의 자식을 돌봐주는것은 백성의 도리라고 하면서 우리와 사돈을 맺자는것이 아니겠나.

그날 난 약골인 내 아들을 정 사위로 삼겠으면 혼례식날에 내가 직접 며늘아기한테 이 사연을 말해주겠으니 그동안 입밖에 내지 말아줄것을 다짐받았다네. 그 나그네가 바로 아가의 아버지일세.》

그 말에 감동된 엄순이는 왈각 눈물을 쏟았다.

《실컷 울어라. 그럼 속이 좀 후련해질게다.》

시어머니는 엄순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버님을 고깝게 생각말아라. 신랑이 약골이긴 해도 부지런하니 제 앞처리는 할게다.》

그날 엄순은 시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신랑을 돌봐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조화를 부리였는지 아니면 본래 늦자라는 사람이여선지 그후 신랑은 두해사이로 키가 무려 두뼘이나 쑥 자랐다.

그리고 몸집도 힘장수마냥 싹해진 신랑은 변방의 군사로 갔다오더니만 고을적인 씨름에서 단연 판막음(1등)을 하고 황소를 타왔다.

신랑은 상으로 타온 황소를 마을의 농사를 위해 바치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을 보다 기쁘게 하였다.

오늘 세 자식의 아버지가 된 남편 응쇠는 웅기점에서 짐꾼으로 일한다.

열병에 든 어머니와 함께 잘못될번하였던 아이가 부모를 잃은 설움도 모르고 자라 나라를 지키는 군사로 또 한집안의 가

장으로 될수 있는것이 뉘 덕인가.

피딩이를 키워준 시부모의 은공에는 머리털을 베여 신을 삼아드려도 보답이 부족하다.

돌이켜보니 시부모에게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보답이 별로 없었다.

효도를 드리자고보니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더라 하는 옛말이 생각난 엄순이는 또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늦긴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부모님을 모셔다 남은 생을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효도를 바쳐야 하질 않겠는가.

그렇게 결심을 세우고보니 마음이 개운해지는 엄순이었다.

그날 밤, 응쇠와 한자리에 든 엄순이 제 결심을 터놓았다.

시부모를 모셔오자는 엄순이의 말에 응쇠가 안해에게 베개삼게 했던 자기의 팔을 쑥 잡아뽐으며 일어나 앉았다.

엄순이도 따라일어나 앉았다.

응쇠가 구들이 꺼지게 한숨을 내뿜었다.

《나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은건 아니요. 낡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데 하물며 죽게 된 나를 살려주고 달덩이같은 임자에게 장가까지 들여준 부모님의 은혜에 이 몸을 열스무번 바친다고 한들 무슨 보답이 되겠소.

내 그래서 벌써 여러번이나 만형님네를 찾아가 부모님을 내가 모시게 해달라고 청을 드렸됐소.》

응쇠는 떨리는 손을 들어 엄순이의 허리를 그러안았다.

《했더니 만형과 만형수가 뭐라고 했는줄 아오? 만자식이 부모를 모시는게 조상전래의 법도인데 누구 얼굴에 흑칠을 하려 드는가, 두번다시 그런 말을 꺼내면 의절을 하겠다는거요. 그

러니 그런 말 마오.》

남편의 마음을 알고보니 그가 더욱 돋보이는 엄순이었다.

사내가 사내로구나.

남편에 대한 믿음이 커만 가는 속에 문득 지나간 일이 떠오른 엄순은 웃음을 지었다.

엄순이 시집을 온 몇달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이튿날이 본가집의 아버지생일이어서 엄순이는 응쇠와 함께 길을 나섰다.

엄순이는 코흘리개같은 신랑과 함께 가는것이 여간 부끄럽지 않았다.

그래서 남이 볼세라 고개를 깃수그리고 걷는데 익살좋은 신랑의 송아지친구들이 길을 막으며 시까슬러대는것이였다.

《여 응쇠, 황소같은 네 누이를 타고 가려무나.》

엄순이 너무도 창피한 나머지 도망치듯하는데 신랑은 뒤에서 코웃음치며 소리쳤다.

《흥! 너희들 잔망한 색시 얻더니 배가 아파 그러지? 꼴 좋다.》

그 일이 있는 후로 응쇠는 두해사이로 버쩍 자라 녀인치고 큰 키인 엄순이 도리어 그의 귀밑에 들게 되였다.

그런 일을 가리켜 격세지감이라고 하겠는지...

잠시 구레나룻의 턱을 어루만지던 응쇠가 근엄한 눈길로 엄순을 바라보았다.

《이건 내 생각인데... 부모를 모신다고 해서 효도를 하는 것도 아니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식솔많은 집안의 일을 떠맡기는 자식

들이 좀 많은가. 그리고도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드리기는커녕 걱정만 끼쳐드린단 말일세.

말을 바로한다면 그게 불효자이지 별게 불효자인가.

그래서 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대신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을 절반 툇 갈라서 드리자는거네. 그 돈으로 옷도 사입고 구미에 맞는 음식도 사자시게 말이요.》

그 말에 감동된 엄순이 응쇠의 뺨메같은 주먹을 어루만졌다.

(이 큰 주먹이 정녕 내 념의것이 옳은가.)

10여년전에는 아이갈던 신랑의 여린 손에 일을 맡기는것이 애처로와 집안일이고 바깥일이고 다 도맡아했던 엄순이었다.

그 여린 손이 불쑥 역세어져 창검을 틀어쥐고 나라를 지키는데도 기여를 하였다.

이 역세고 듚직한 두손이 오늘은 늙으신 부모님이 여생을 즐겁게 살수 있도록 떠받들겠다고 하니 어찌 감동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응쇠의 응글은 목소리가 방안을 울리였다.

《부모님들의 머리에 흰서리가 내릴수록... 아, 이 가슴이 아프단 말이요. 래년에는 벌써 환갑이니...》

허리에서 응쇠의 팔을 풀어내린 엄순이도 정찬 눈길로 그를 마주 바라보았다.

《난 부모님의 환갑날에 부자들도 부러워하는 제일 좋은 옷을 지어올리고 환갑상도 보란듯이 차렸으면 해요.》

엄순이네 시부모는 기이하게도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다.

시아버지가 며칠 더 앞서 태어났으니 그날에 함께 환갑상을

차려도 무방할것이었다.

그 말에 응쇠가 목청을 돋구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일세. 지금껏 효도 못한 봉창을 해야 해.》

무릎까지 탁 치며 부르짖은 응쇠가 엄순이의 손을 부여잡았다.

《이왕이면 부모님의 환갑맞이를 위해 우리 겨루기를 하는 게 어때? 누구의 효도가 더 지극한가 말일세.》

엄순이 고운 눈을 흘기었다.

《어마나 원 참, 효도를 위해 부부가 겨루었다는 말은 들은적 없어요. 공연히 남의 웃음을 사게 할 그런 일은 생각지도 말아요.》

《흥! 지금껏 없던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면 안된다는 법 있는가. 임자가 날 이기면 난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한식경식 임자를 업고 우리 집뜨락을 돌겠네. 반대로 내가 이기면 임자는 날마다 내앞에서 한식경식 춤을 추든가 노래를 부르게나.》

뜻밖으로 번져지는 말에 흥미가 끌린 엄순이 방글 웃었다.

이거야말로 좋은 내기가 아닌가. 이런 내기라면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해.

《거참 생각이 그럴듯하군요. 현대 무엇으로 내기를 하겠나요?》

응쇠가 다시금 엄순이의 허리를 다정히 그리안으며 대꾸했다.

《임자는 길쌈재주가 있으니 아직은 우리 고을에 없는 제일

멋진 모시천을 낚아서 부모님의 옷을 짓게나. 난…》

갑자기 말문이 막힌 응쇠는 턱을 부여잡고 끙끙거렸다.

(나는 분명 환갑상에다 고을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별식을 한 가지쯤 올려놓아야 하는데 어떤걸 택한다?!… 고기불이나 물고기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올려놓을수 있는것이니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것이라야 한다. 안주가 좋으면 누구나 찾는것이 술이다. 그러하기에 술이 좋으면 안주도 좋아야 하고 안주가 좋으면 술도 좋아야 한다는 말까지 있는게 아닌가.

진수성찬으로 잘 차린 환갑상에 어울릴만한 술이 어떤것일까.

하여간 소리치고 자랑할만한 술은 차차 찾아내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내기를 약속하는 이 자리에서 난 술을 내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응쇠는 자신있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난 아직은 고을사람들이 모르는 좋은 술을 내놓겠네.》

그 말에 엄순이 고개를 기웃거렸다.

《헌데 누구에게 부탁해서 술이 좋다 나쁘다 시비를 가르게 하겠나요?》

응쇠가 이번에는 생각을 더듬지 않고 대답했다.

《누구에게 따로 부탁할게 있는가. 환갑잔치에 청해온 사람들에게 모두 물어보면 자연 판결되겠는데…》

《그러니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는가를 가지고 승부를 가르잔 말이지요?》

응쇠가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란 말일세.》

《좋아요.》

아직은 옛말로도 들어본적 없는 내기를 안해와 언약하고 자리에 누운 응쇠는 두눈을 꼭 내리감고 잠을 청했건만 내기에서 지면 어쩌나 하는 근심에 잠들수 없었다.

(허 참, 내 무슨 허망청한 생각에 시작부터 한수 지고 들어가는 내기를 걸었을까. 안사람이야 손에도 눈에도 익을대로 익은 모시냥이재주로 우리 고을에서라면 소리칠수 있는 좋은 옷감을 만들어낼건 뻔하지 않는가. 그 사람에게도 생소한걸 맡겼어야 하는건데...

허나 환갑을 맞는 부모님에게는 좋은 옷감으로 옷을 지어드리는것은 당연한 일이니 할수 없지.

내가 먼저 내기를 건 이상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

좋은 술이라고 하면 대나무즙을 넣고 뿔은 죽령고라든가 찰떡을 삭혀 만든 과하주인데 그것들은 사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명주이니 그런걸 내놓으면 지는것으로 된다. 우리 청주의 명주가 뭐더라?...)

아무리 머리를 쥐어짚건만 청주의 자랑이라고 할만한 술은 생각나지 않았다.

머리를 쥐어짜던 응쇠는 서서히 밀려드는 피곤에 못이겨 잠에 폴아떨어지고말았다.

이튿날, 아침밥을 짓는 사이에 벌써 그럴듯한 궁냥을 해낸 엄순은 설것이를 마치기 바쁘게 실을 대주는 장사군을 찾아가 값이 비싸더라도 푸른색실과 보다 눈부시게 물들인 실을 얼마간 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모시냥이에서라면 고을적으로 몇손가락에 꼽히는 엄순이의

부탁이라 장사군은 온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그런 모시실을 구해주리라 꽤히 약속하였다.

한편 응쇠는 샅짐을 지어나르는 속에서도 술때문에 근심하고있었다.

어느날 이전과 달리 요즘 내내 얼굴에 수심기가 어려있는 응쇠의 거동을 이상하게 여긴 옹기점의 좌상로인이 그에게 물었다.

《이보게 응쇠, 보아하니 자네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가본데 정말 있다면 병어리 뎡가슴 앓듯하지 말고 이실직고하게나.》

옹기굽는 재간이 좋을뿐 아니라 사리에도 밝은 좌상로인은 공경하던 응쇠는 근심거리를 입에 올렸다.

그의 말을 다 듣고난 좌상로인이 웃으며 물었다.

《자네 해묵은 술이 별맛스럽다는 말을 들은적 있나?》

좌상로인이 고개를 젓는 응쇠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내 소시적에 들은 이야기인데… 고려때라고 하던지. 그때 술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사람이 나라님의 어명을 받고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누만.

그 사람은 사신길에 오르기에 앞서 안사람에게 이르기를 자기는 나라앞에 공을 세우고 오겠으니 그때 실컷 마실 술을 미리 빚어놓으라고 했다는거네. 그런데 이웃나라에 간 그 사람은 어떤 복잡한 일에 말려들어가지고 무려 이태씩이나 타국살이를 하게 되였네.

그래서 술도 이태씩이나 묵게 되였다네. 마침내 그 사람이 공을 세우고 돌아와 그 술을 마시였는데 그때까지 전혀 맛보

지 못했던 별맛이었다누만.

술맛은 달면서도 유순한데 술기운은 참으로 좋고 그보다는 후탈이 없어 더 좋았다는거네.》

최상로인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던 응쇠가 입을 찹찹 다시였다.

이제 부모의 환갑날까지는 꼭 한해가 남아있는데 그 한해 동안이나 술을 묵여놓고 묵젓이 근질거려 참아낼수 있을까.

기껏 참아 한달도 못되어 술을 담아둔 독이 밀창나고말겠는데...

응쇠는 술부대라고 할만치 술을 좋아했다.

술을 가지고 가라면 지고 가지는 못해도 마시고 가라면 앉은자리에서 막걸리 한동이를 가볍게 해치우는 응쇠에게 술을 한해씩이나 묵여두라고 하는것은 범을 보고 날고기를 지키라는것과 다를바없었다.

(아, 이것도 아니로구나.)

한숨속에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던 응쇠는 떠오르는 생강에 떡 버티고 섰다.

(그렇지, 술독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면 될게 아닌가. 땅을 파고 묻어두면 술고래인들 별수 없지.)

그렇듯한 생각에 사기가 난 응쇠는 다음날 그중 술을 잘 뽑는 집에 특별히 부탁하여 술맛이 좋은 두 독의 술을 가져왔다.

허나 막상 술독을 땅에 묻자고 하니 허전한 생각이 들었다.

옛적에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마신 술은 한해가 아니라 여러해를 묵이였기에 맛이 더 좋았을것이다.

그 술보다도 못한걸 어떻게 부모님의 환갑상에 올린단 말인가.

곰곰히 따져보니 명주라고 소문난 술들은 죽력고처럼 폐외없이 좋은 약재를 써서 만든것들이었다.

(그럼 나도 그런 비방을 쓰면 될게 아닌가.)

충청도의 별식에 어둡지 않은 응쇠는 인차 그럴듯한 생각이 들었다.

충청도사람들이 자랑하는 별식으로는 당귀설기, 꽃전병, 국화전, 꿀편들인데 이것들에는 다 씨를 뺀 대추가 들어있다.

대추나무는 다른 고장에서도 심지만 충청도에서는 집집마다 여러그루씩 심어 키우고있어 어데 가나 흔한게 대추였다. 그러니 술독에 대추도 넣고 당귀설기에서처럼 당귀도 좀 넣으면 필경 그 맛이 유별해질것이 아닌가.

그럴듯한 생각에 무릎을 친 응쇠는 술독마다 한되박의 마른 대추와 한웅큼의 당귀를 넣고 술기운이 빠질세라 독아구리를 톡톡 막았다.

술독을 문을 구덩이를 파던 응쇠는 황토가 흙중에서 제일로 깨끗할뿐 아니라 독기를 푼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지체없이 황토를 파다가 그 흙으로 술독들을 빙 둘러 다져묻었다.

그다음 그우에 나무난가리를 무저놓으니 그제서야 마음이 푹 놓이는것이였다.

어언간에 한해가 흘러 새봄이 왔다.

만산에 꽃들이 다투어피고 강남갔던 제비들도 돌아온 좋은 계절이였다. 환갑날을 며칠 앞둔 어느날, 응쇠는 술독을 묻어

둔 자리에서 나무날가리를 치우고 흙을 파냈다.

흙을 파내니 두개의 술독이 드러났다.

술기가 새어나갈세라 꼭 막아두었던 뚜껑을 조심하 연 응쇠의 손이 떨어졌다.

(정말로 맛이 좋아졌을가.)

옹기점의 좌상로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옛이야기이고 그런 술을 본적도 없는 응쇠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술맛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어쩌나.

떨리는 손에 힘을 준 응쇠는 표주박으로 술을 떠 냄새부터 맡아보았다.

분명 잘 익은 문배에서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것같았다.

술내가 좋으면 맛도 좋기마련인데...

혀를 내밀어 몇번이나 맛을 보니 유순하면서도 단감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한모금씩 들이켰더니 잡내라든가 물내가 나지 않았다.

《참, 괜찮은것같은데... 허나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야 좋은 술이겠지.》

드디어 환갑날이 왔다.

온 마을이 모여든 환갑집은 떠나갈듯 흥성거렸다.

응쇠의 부모가 엄숙이 지어올린 새옷을 떨쳐입고 환갑상앞에 척 나서니 모두가 황홀해하는 눈길로 그들을 쳐다보며 혀를 찼다. 세상에 저런 옷도 있는가.

늙은 내외가 입은 옷이 얼마나 멋스러운지 산해진미라고 할 잘 차린 환갑상이 다 초라해보였다.

엄순이의 시아버지는 흰 바지와 저고리우에 무릎아래로 내려오는 창옷을 입었는데 그런 옷은 마을사람들이 지금껏 본적 없었다.

바지나 저고리는 백옥마냥 눈부시고 푸른색창옷에는 장수를 뜻하는 불로초와 《壽》(목숨 수)자가 새겨져있었다.

시어머니도 푸른색긴치마에 백옥처럼 하얀 저고리를 입었는데 치마에 새긴 도라지꽃들과 《福》(복 복)자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모시천의 발도 어찌나 고르고 탄탄한지 남정들까지도 탄복해하는 정도였다.

예로부터 모시날이때 직접 무늬를 놓은 천을 가리켜 문저포라고 했다.

엄순이 짠 문저포는 제일로 훌륭하다고 할만하였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옷이 정말 좋다고 찬탄하니 응쇠는 내기에서 자기가 졌다고 생각했다.

내기에서 졌다고 한들 청주에서 으뜸가는 옷을 지어올렸으니 만족했다. 엄순이 옆구리를 건드리며 환갑상앞에 나앉은 부모를 가리켜서야 응쇠는 자기가 나설 차례임을 깨달았다.

술병을 안아든 응쇠와 엄순이 부모에게 절을 드리고 술을 부어올렸다.

기쁨속에 술을 마신 부모가 거의 동시에 서로 마주보며 놀라와했다.

술맛이 천궁의 어주인듯 향기롭고 별맛스럽기때문이였다. 이윽고 아버지가 응쇠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술이 무슨 술이기에 술맛이 기막히게 좋으냐?》

제나름대로 술이름을 생각했던 응쇠가 얼른 입을 열었다.

《한해를 묵인 술이라 일년주라고 할수 있소이다.》

《일년주라... 술이름도 참 기막히게 좋구나.》 하고 탄성을 터친 아버지가 명석우에 둘러앉아 음식상을 받은 마을사람들을 가리켰다.

《저분들에게도 이 술을 부어라.》

그 말에 사기가 오른 응쇠는 마을사람들을 차례로 돌아가며 대접에 술이 철철 넘치게 부었다.

일년주라는 처음 듣는 술이름에 호기심이 부쩍 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는 저저마다 엄지손가락을 내보였다.

《과연 술맛 기막히게 좋구나.》

《천하 으뜸이로다.》

엄순이가 지은 옷에 못지 않는 칭찬소리에 응쇠의 입이 항벌어졌다.

(그럼 내기에서 내가 지지 않았다는게 아닌가.)

일년주가 환갑날에 참 잘 어울리는 명주임을 안 엄순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었다. 우리 부부가 효도를 다해 부자집에 못지 않는 환갑잔치를 차리었으니 무얼 더 바라랴.

그날 밤, 응쇠와 엄순이는 자정이 넘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이보세요. 우리 서로 내기에서 비기었으니 어쩌면 좋아요?》

응쇠가 버릇대로 엄순이의 허리를 그리안으며 대꾸했다.

《우리 부부 효도의 마음이 짝지지 않으니 얼마나 좋은가. 한해전 언약대로 날마다 난 임자를 업어주고 임자는 내앞에서 춤을 추면 되지 않나.》

엄순이 응쇠의 팔을 베고 누우며 방긋 웃었다.

《그게 좋겠어요. 우리 언제나 부모님을 더 잘 돌봐드리
자요.》

《불효자는 나라도 받들지 않는다고 했으즉 내 만일 효도
를 저버린다면 용서하지 말게.》

서로 얼싸안은 그들부부는 이내 단잠에 들었다.

그후 이들부부가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변함없이 부모를 잘
보살피니 마을사람들은 환갑잔치의 이야기를 외우며 그들을
가리켜 효자와 효부가 쌍벽을 이룬 내외라 칭찬해마지 않았다고 한다.

전 철 호

진주성의 수리개

1592년 10월 5일 새벽안개 자욱한 이른아침 진주성 맞은편의 동쪽봉우리로 가쁜숨을 뿜으며 오르는 1 000여명의 왜놈들이 있었다.

봉우리에 오른 왜놈들은 가랭이에 묻은 이슬을 털 사이도 없이 진주성을 향하여 바삐 산개대형을 지었다.

막하장수들에게 군사들이 차지할 진을 정해준 왜장 하세가와 후지모토는 눈길을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점차로 걷혀지는 안개속으로 진주성이 자기의 룬곽을 드러내고있었다.

하세가와의 눈에서는 살기가 번뜩이였다. 드디어 그는 경성도에서 전라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할수 있는 진주성에 이르렀던것이였다.

동남풍이 이는 1592년 4월 13일 왜놈의 선봉부대가 풍랑사나운 조선남해를 건너 조선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았다.

4월 14일 왜놈들은 부산을 강점하고 다음날에는 동래성으로 쳐들어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리자고 하며 항복을 강박하였다. 그러나 동래부사 송상현을 위수로 하는 성안의 군민들은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릴수는 없다.》는 대답을 보내고 결사항전을 벌렸다.

부산성싸움에서보다 더 많은 저희 군사들의 시체를 쌓고서야 겨우 동래성을 넘은 왜놈장수들은 악에 받쳤다. 이런 식으

로 맞다드는 성을 함락시킨다면 조선의 북쪽변방에 닿을 때는 옆에 한명의 군사도 남아있을것같지 않았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진해, 고성으로 나가며 벌린 싸움들은 놈들이 생각했던것보다 수월하였다.

비록 무혈입성을 한 성은 없었지만 동래성싸움에 비기면 혈한 싸움들이었다.

그것은 태평성세를 부르짖으며 나라방비를 소홀히 하고 무관을 천시한 조선봉건왕조의 무능력과 봉건관료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에서 온 필연적산물이었다.

그후 왜놈들은 진주를 강점함으로써 경상우도전반을 틀어쥐며 조선수군본거지인 전라도로 진격하여 어렵게 된 군량문제를 풀고 나아가서 《수륙병진》기도를 실현하려고 타산하였다.

적들은 이처럼 진주공격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하세가와의 지휘밑에 있던 동래, 부산, 김해의 강점군을 기본으로 하고 경상도에 있던 저들의 대부분의 병력과 일본본국으로부터 증원군을 보충받아 3만명의 대병력으로 진주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좋아, 좋아, 아주 좋은것이.》

무엇이 좋다고 하는지 하세가와는 온몸까지 흔들며 허연 입김을 내뿜었다. 그때마다 그가 쓴 쌍뿔투구가 기우뚱거리며 투구에 꽂은 기다란 새깃털이 앞뒤로 길게 흔들렸다.

《하세가와대장님, 진주성의 하늘에 수리개가 떴소이다.》

옆에 서있는 막하장수들을 둘러보던 하세가와는 시종군졸의 말에 진주성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진주성의 하늘높이에는 한마리의 수리개가 긴 날개를 활짝 펴고 유유히 원을 그리고있었다.

하세가와는 바른손에 잡고있던 조총을 들어 화승에 불을 달고는 수리개를 겨냥하였다. 한동안 수리개를 겨냥하고서 얼굴에 징그러운 웃음을 짓고있던 그는 어깨에서 조총락을 떼고 화승의 불을 입김으로 훅 불어 켰다. 사거리가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 수리개가 왜군이 왔으니 빨리 피하든가 항복 하라고 진주성에 있는 조선군사들에게 알려주는것으로 생각되었기때문이었다.

《조선군사들이 저 수리개를 보고있다면 진주성을 벗어날수 있게 날개를 빌려달라고 빌고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저 수리개와 같이 진주성을 날아넘어 전라도로 들어가 군량문제도 풀고 조선수군본거지를 칠것이다.

하하하…》

《하세가와대장님, 동쪽성문으로 조선군사 몇이 말을 달리고있소이다.》

시종군졸의 아뢰는 소리에 하세가와는 그쪽을 바라보았다. 대여섯명의 조선군사들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연방 안기며 진주성의 동쪽성문을 향해 바빠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앞장에서 달리는 사람은 복장으로 보아 일반군사는 아니고 높은 관직을 가진 무관같았다.

하세가와는 옆에 서있는 한 장수에게 삼십여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잡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령을 받은 왜놈들이 말을 때려몰아 달려갔다. …

일행이 성문에 다달으자 무관이 다급히 소리쳤다.

《내 경상우도병사 류승인이다. 빨리 성문을 열라.》

마침 여러 장수들과 함께 루대에 올라 싸움준비를 의논하

고있던 진주목사 김시민은 성밀에 있는 경상우도병사 류승인을 알아보았다. 그는 놀랐다. 경상우도병사가 여기서 동쪽방향으로 수십리 떨어져있는 창원지방에서 싸우고있는줄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창원과 함안의 우리 군사들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패하었구나.》

파수장이 조용히 다가와 아뢰었다.

《경상우도병사라니 성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나이까?》

진주목사 김시민은 주위에 서있는 장수들에게 묻는듯한 눈길을 주었다.

어떤 장수는 패전지장의 물결을 보는것이 쓰거워 얼굴을 돌리는가 하면 어떤 장수는 지체높은 량반이 왔으니 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는 눈길을 자기에게 보내고있었다.

성밀에서는 성문을 빨리 열라고 재촉하는 경상우도병사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진주목사 김시민은 그들을 성안에 받아들여야겠는가 말겠는가를 시급히 결심하여야 하였다.

그는 장수들에게 비분강개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류병사는 나와 함께 령산에서 왜적과 싸운 사람이다. 그러나 만일 그를 성안에 들여놓으면 성의 주장이 바뀌게 되고 군사들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단다.

왜적과의 싸움이 목전에 다가든 지금 주장의 통제가 약화된다면 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성을 사수하자면 류병사를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성과 함께 생사를 같이하려는 그의 굳은 결심은 장수들의 심금을 울렸다.

《싸움에서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병쟁기의 위력에 있는것이 아니라 장수의 의지와 군심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라.》

장수들에게 이런 말로 강조한 진주목사는 성밖으로 몸을 내밀고 경상우도병사를 바라보았다. 갑옷의 여러곳에 피자욱이 나있고 바른팔소매는 찢겨져 너덜거렸다.

진주목사는 눈을 꼭 감았다.

지금은 인정에 사로잡혀 성안의 운명을 저울질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자못 랭랭한 어조로 경상우도병사에게 소리쳤다.

《적들이 지금 성을 공격하려고 서두르기때문에 경솔하게 성문을 열수 없습니다. 공을 성안에 들여놓으면 주장이 바뀌어 군심이 약해질가 근심이니 성밖에서 우리를 지원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자기를 들여놓지 않겠다는 진주목사의 목소리에 경상우도병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경상우도병사는 진주목사의 배척을 책망할수 없었다. 그는 말머리를 돌리며 진주목사에게 소리쳤다.

《그대의 결심이 정 그러하다면 나는 가겠소. 부디 나 같은 패전지장의 오명을 쓰지 말기를 바라오.》

진주목사 김시민은 말을 달려 멀어져가는 경상우도병사 류승인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았다.

진주성에 들어갈수 없게 된 경상우도병사일행은 말머리를 돌려 전라도가 있는 서북방향으로 달렸다.

그러나 그들은 십여리를 못가서 왜군사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

하지만 왜놈들은 그들이 경상우도병사일행이라는것만을 알아가지고 그냥 돌아왔다.

하세가와는 지체높은 조선량반을 사로잡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에 수하장수를 독살스러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내가 조선군사들을 잡아오라고 하였는데 그냥 돌아와. 그리고 군사를 열한명이나 잃어. 너는 장수가 아니라 일개 군졸로도 쓸모없다.》

하세가와의 호령에 금시 자라목이 된 수하장수가 겨우 입안소리로 웅얼거렸다.

《조선군사들이 얼마나 악을 쓰며 덤벼드는지 사로잡을수 없었나이다. 정말 악종들이었나이다.》

하세가와는 변명하는 수하장수의 말에 짜증이 났다.

《무슨 말이 많은가.》

하세가와는 머리로 변변히 들지 못하는 수하장수가 보기 싫어 등을 돌려 진주성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그에게 한가지 의문점이 생겨 수하장수에게 물었다.

《진주성군사들이 왜 그들을 들여놓지 않았느냐?》

수하장수는 또다시 입안소리로 웅얼거렸다.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니 성우에서 어떤 량반이 나타나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였나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말머리를 돌려갔나이다.》

《음, 그러니 성안에 두 주인을 두지 않겠다는것이로구나.》

《무슨 말쑼인지 모르겠나이다.》

수하장수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하세가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놈들이 경상우도병사일행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만한 관직을 가진 량반이 성안에 들어가면 성안의 주장이 될것은 뻔하지 않느냐. 그러면 성안군사들속에서 혼란이 일어날것은 물론 군률도 자연히 문란해질것이기예…》

하세가와는 말을 끝맺지 못하였다. 말을 달려 이각(일각은 15분)이면 성을 한바퀴 돌고도 남을 저 자그마한 성이 두려웁게 느껴졌기때문이었다. 혹시 동래성과 같이 악전고투하여 점령하게 될지 몰랐다.

선봉부대로 먼저 진주성을 건드려보려던 하세가와는 생각을 바꾸고 후속부대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다음날 마현과 주성을 경유한 각 부대들이 진주성앞벌로 모여들었다.

엿그제까지만 하여도 전라도로 가는 피난민으로 들끓던 진주성앞벌은 3만여명의 검은 옷을 입은 왜놈들로 들끓었다.

왜놈들은 군막을 친다, 목책을 세운다 하며 싸움준비에 바빠 돌아갔다.

하세가와는 장막안으로 장수들을 불렀다.

그는 싸움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장수들과 함께 진주성안으로 들여보냈던 렴람군사의 보고를 들었다.

《진주성안에는 군사가 3 700여명정도 있소이다. 진주성의 대장은 진주목사 김시민이라는자이오이다. 성안의 군민들은 그자의 지휘에 따라 성우에 총통들을 설치하고 돌무지를 쌓아놓는다, 창과 칼을 버린다 야단법석이오이다.

허나 이상한것은 성북관의 어느한 넓은 집으로 군사들이 대나무와 소가죽을 실은 바리들을 연방 들어가는것을 본것이 오이다.

대문과 담을 따라 파수를 엄히 세워 감히 들어가보지는 못 하였소이다.》

렴람군사의 말을 들은 장수들이 수군거렸다.

《신식병쟁기를 만드는것이 아닐가?》

《혹시 출사다리를 무어 진주성의 절벽을 내려 우리의 뒤통수를 치려는것이 아닐가?》

《가만 김시민이라. 어디선가 듣던 이름 같은데...》

장수들의 말을 들으며 하세가와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조선군사에게 잡히는 왜장수가 생겼다.

(진주목사 김시민이라면 조선군사들을 이끌고 고성, 진해, 사천, 창원에 있는 우리 군사들을 호되게 답새긴 사람이다.

그의 눈부신 활약으로 군사들은 할수없이 금산으로 철수하였고 고성을 비롯한 그 네개 지역은 우리 군사들이 없는 지대로 되었다.

진해에서는 그가 유인매복전술로 장수 고오끼를 사로잡아 조선임금이 있는 행재소로 압송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하세가와로서는 김시민의 부대가 광재우의병대와 함께 경상도지역에서 가장 큰 두통거리였다.

하세가와는 두주먹을 움켜쥐며 어금이를 으드득 갈았다.

마침내 김시민의 부대를 멸할수 있는 기회가 왔던것이였다. 자기의 부대가 전라도로 진격하자면 가장 빠른 길목에 놓인 진주성을 거쳐야 하는데 김시민은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는

마지막관문이라 할수 있는 이 성을 죽기로써 사수하자고 할 것이었다.

하세가와는 이제 있게 될 진주성싸움에서 김시민의 군사들과 성안백성들을 모조리 없애여 경상도의 화를 뿌리채 뽑아버리리라 굳게 결심다졌다.

하세가와는 비대한 몸집을 기우뚱거리며 일어났다. 사무라이들인 장수들중에서 몸 좋은 두 장수를 합친것보다 더 우람했다.

하세가와는 바른손에 쥐고있던 조총을 머리높이로 올리고 겨만스레 흔들었다.

《그들이 아무리 새로운 병쟁기를 만든다고 하여도 달보고 쫓는 개와 같다. 그대들은 내가 든 이 조총을 보라. 모두 아는바와 같이 이는 서방의 병쟁기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것이다.

이 병쟁기로 관백께서는 주변에 널려있던 소국들을 평정하여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다.

어찌 서방의 병쟁기가 진주의 활과 창을 막지 못하겠느냐?! 우리들이 진주를 넘어 전라도로 진격해보라.

리순신이 있는 조선수군의 본거지를 바다와륙지에서 동시에 들이쳐서 우리 수군이 당한 한산도의 수치를 씻을수 있다. 당면하게는 지금의 어려운 군량문제를 풀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수륙병진>계획을 실현하여 전 조선령토를 타고있을수 있다.》

하세가와의 호기있는 목소리에 선봉장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긴칼을 뽑아들고 호기를 부렸다.

《하세가와대장님의 말이 옳소이다. 우리 진주성을 초토화하고 전라도로 들어가자!》

선봉장을 따라 갑옷미늘을 절령거리며 우줄우줄 일어선 장수들이 손에 들고있던 칼 혹은 조총을 흔들었다. 장수들의 돼지먹파는 소리가 장막안을 들었다놓았다.

《웁소. 진주성을 초토화하자! 전라도로 들어가자!》

하세가와는 두눈에서 살기를 뿜고있는 부하장수들을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래일 아침에 진주성을 공격하겠다.

제1진은 진주성의 동문을, 제2진은 서문을 치라. 나는 북문을 치겠다. 남쪽에는 깎아지른 축석산절벽이 놓이고 앞으로는 남강이 흘러 천험의 요새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밀고들어간다면 그쪽은 조선군사들의 함정으로 될것이다.》

1592년 10월 6일 왜군의 진주성공격전투가 진행되었다.

하세가와는 먼저 널판들을 대나무로 편결하여 10여명이 몸을 가릴수 있는 커다란 방패를 만들게 하였다. 그 방패를 가지고 활과 조총을 든 군사들이 나가게 하였다.

왜놈들은 성을 향해 조총을 몰방으로 쏘아대며 나아갔다. 성가퀴에 부딪친 탄환들은 성돌을 금시 곰보얼굴로 만들며 뿌연 먼지가루를 날렸다. 성우에서는 조총구멍마다 번뜩이는 불꽃과 성돌에서 튀기는 돌쪼각에 겁을 먹었는지 머리를 내미는 조선군사가 한명도 없었다.

이에 승이 난 왜놈들은 함성을 지르며 성밑까지 단숨에 달려가 개미떼마냥 성벽에 달라붙었다.

성벽에 기대놓은 사다리를 타고 왜놈들이 절반쯤 올랐을 때였다.

진주성우에 은빛갑옷을 입은 거쿨진 몸집의 장수가 불쑥 몸

을 쏘구쳤다.

장수는 긴칼을 뽑아 왜놈들을 가리키며 하늘땅이 찢렁찌렁 울리도록 소리쳤다.

《이 땅에 기여든 섬오랑캐를 한놈도 살려두지 말라.》

장수의 긴 호령소리와 함께 성가퀴의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몸을 솟구친 조선군사들이 일제히 커다란 돌덩어리와 기름불뭉치를 내리던졌다.

돌덩어리는 사다리의 허리를 분지르며 왜놈들을 공중제비로 뿌려던졌다.

날아내린 기름불뭉치는 성밀의 마른나무와 풀덤불에 닿으면서 불길을 일으켰다. 얼마후 불붙는 곳의 여기저기에서 하늘땅을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솟구치며 왜놈들을 사방으로 쫓아냈다. 성벽밀에 묻어두었던 기름단지와 화약통들이 터졌던것이였다.

불바다로 변한 성밀은 왜놈들의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되었다.

첫 싸움에서 벌써 자기의 군사들이 무리죽음이 나는것을 본 하세가와는 악이 받쳤다. 그는 조총을 쳐들고 공중에 한방 갈졌다.

《기병대를 내보내라. 조선군사들의 예기를 꺾어라.》

기병대는 맹수의 울부짖음과 같은 사나운 소리를 내지르며 성으로 내달랐다. 성가까이 다가든 기병대는 화살을 날리고 조총을 쏘았다. 성우로 화살과 탄환이 비살마냥 날아갔다. 성가퀴에 몸을 숨기고 화살을 날리던 조선군사들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것이 보였다. 기병대가 진주성을 한바퀴 돌며 제법

위력을 시위한 다음 하세가와는 보병들을 내몰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조선군사들의 완강한 저항에 물러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성공격은 야밤삼경까지 계속되었다.

하세가와는 군사들이 지치고 피로한것을 보고 전군에 퇴군령을 내렸다.

장막안에 들어선 하세가와의 얼굴에는 먹장구름이 가득 덮였다.

첫날의 싸움이 예상밖이었다.

(3만의 대병력으로 3 700명의 적군사밖에 없는 진주성을 점령하지 못한단 말인가?!)

하세가와는 자기 군사의 수적우세를 믿고 다음날부터는 파도식공격을 들이대기로 하였다. 한편 성에 대한 포위환을 좁히고 외부와 철저히 차단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면 고립무원한 진주성은 조만간에 식량과 병쟁기가 떨어질것이고 후원군사도 없어 모래성마냥 무너질것이었다.

다음날 아침부터 여섯명의 장수들은 서로 번을 돌려가며 진주성을 련속적으로 공격하였다.

왜놈조총수들은 조선군사들의 화살이 닿지 않는 거리 썩밖에서 탄환을 날리며 성벽으로 다가드는 자기 군사들을 엄호하였다. 성벽까지 다가든 왜놈들은 조선군사들의 세찬 반격이 있으면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붙으며 조선군사들을 피로케 하였다.

한편 진에서는 피물가면을 쓴 왜놈들이 얼룩덜룩한 옷차림으로 마당에 나와 피상한 춤을 추어댔다. 자기들의 해피스러운

귀신놀음에 조선군사들이 겁을 먹게 하자는것이였다.

그러나 진주성의 조선군사들은 왜군의 비발치는 탄환을 무릅쓰고 돌덩이를 굴리고 섯단과 함께 불뭉치를 던지면서 성벽을 게바라오르는 왜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진주성에 대한 왜군의 파도식공격은 나흘이나 계속되였다.

그날 밤이 깊어서야 왜놈들을 퇴군시킨 하세가와는 곧 장수들을 장막으로 불렀다.

하세가와는 장막안에 들어서는 수하장수들의 몰골을 보며 메돼지입술을 실룩거렸다. 하나같이 피칠갑한 갑옷차림으로 들어서는데 팔이나 머리에 피배인 형질이 매여있지 않는 장수가 없었다. 비맞은 닭보다 더 처참한 꼴이였다. 울대뼈를 오르내리며 금시라도 노성을 터치려던 하세가와는 이내 머리를 흔들었다. 기분이 처진 그들을 닥달질한다 해서 오늘 밤중으로 진주성을 점령할수 없는노릇이였다.

하세가와는 제법 장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어조로 힘있게 말했다.

《지금까지의 싸움으로 우리 군사들은 지쳤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 교대없이 싸워야 하는 조선군사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며칠간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지쳐 쓰러진 조선군사들의 몸뚱이를 밟으며 진주성으로 들어갈수 있다. 그러니 래일 싸움에서도 교대제로…》

하세가와가 래일의 싸움에 대하여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피리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은은히 울리는 피리소리는 무엇인가를 그리는 향수질은 곡조로 하여 사무라이들의 거치른 가슴에 스며들며 고향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세가와를 비롯한 장수들은 말없이 피리소리를 들었다.

한곡조를 넘긴 피리소리는 이어 다른 곡조로 울리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도 같은 음률이었으나 빠른 곡조로 애잔하게 울리며 가슴을 더욱 애타게 하였다.

피리소리를 듣던 하세가와는 무엇인가 뇌리를 치는것이 있어 황망히 장막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여기저기서 타오르는 우등불빛에 군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어느때라면 큰소리를 지르며 동료들끼리 칼부림을 하거나 전공의 표적인 코걸임주머니를 놓고 자랑을 할 왜병들이 맥없이 주저앉아 피리소리를 듣고있었다.

하세가와는 가까이에 있는 우등불가로 다가갔다.

거기서도 래일의 싸움을 위해 덩이화약을 절구에 찧던 여러명의 조총수들이 절구공을 내려놓고 피리소리가 나는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애수에 젖어있는 자기 군사들의 모습에 화가 난 하세가와는 앞가슴에 엇갈려 질렸던 두 칼중에서 긴칼을 뽑아들었다.

휘익-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순간에 그의 앞에 앉아있던 두 조총수의 머리를 베었다.

《죽음의 전장에서 적의 화살에 맞고서도 떨지 않던 가슴이 애잔한 피리소리에 떨려 눈물을 흘리는가?!》

하세가와는 자기 가슴속에 차오르는 향수를 두 군사의 목을 베는것으로 물리치고 다시 장막으로 들어갔다.

범가죽을 씌운 의자에 욱중한 몸을 기대인 하세가와는 커다란 머리를 뒤로 제치고 눈을 감았다. 바른손주먹으로 자기의 이마를 툭툭 두드리던 그는 두눈을 번쩍 뜨고 이발을 으드득 갈았다. 그의 눈에서는 피에 주린 야수의 살기가 번뜩였다.

《좋다. 제갈량은 네개의 성문을 열어놓고 거문고를 타서 적을 속였다지만 김시민 네놈은 성문을 닫고 피리소리로 여유작작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를 조롱하려드는구나. 네가 제손으로 문을 열어 항복할 때가 있을것이다.》

하세가와는 장수들에게 피리소리에 눈물을 흘리는자는 가차없이 목을 치라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령을 받은 장수들이 황급히 막을 나서서 자기들의 부대로 달려갔다. 얼마후 여기저기서 군사들의 울부짖음이 울렸다.

다음날 이른아침 왜놈들은 진주성을 다시 공격하였다. 그 전날과 다른 점이라면 웨침소리가 없이 묵묵히 창과 칼을 들고 다가가는것이였다. 조총수들이 날리는 탄환소리만이 요란하였다.

왜군대오가 성으로 거의 한마장쯤 다가갔을 때였다.

갑자기 대오앞에서 왜놈의 공포의 웨침소리가 터졌다.

《수리개다. 진주성에서 수리개가 날아올랐다.》

그 웨침소리에 대오는 일시에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하늘로 쳐들었다.

하세가와도 장대에서 진주성에서 뜨는 《수리개》를 보았다.

난생처음 보는 거대한 《수리개》가 진주성의 남쪽 축석산우에서 떴다.

하세가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저 <수리개>를 쏘라. 빨리 쏘라.》

그의 말소리가 진격하는 1진의 왜군부대에 닿았는지 아니면 그곳의 대장이 불호령을 내렸는지 조총소리가 요란히 울리며 불줄기들이 《수리개》를 향해 날았다.

《수리개》는 밑에서 뿔어올라오는 불줄기에 당황한듯이 세게 기우뚱거리면서 왜놈들에게로 내리쫓혔다.

하세가와의 눈에 《수리개》를 타고있는 네명의 사람이 이리저리 무엇인가를 바빠 당기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세가와는 제법 코웃음을 쳤다.

《흥, 그러면 그렇겠지. 아무렴 저 <수리개>가 우리 조총의 탄환을 벗어날가부냐.》

하세가와는 이제 땅에 곤두박힐 《수리개》를 그려보며 흡족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진주성의 조선군사들이 조총보다 월등한 병쟁기를 만들수는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하세가와의 기쁨은 잠간이였다. 그의 두눈은 왕사발만하게 커지고 다물줄 모르던 입에서는 《아, 저것, 아- 날아오른다.》 하는 감탄인지, 비명인지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내리쫓히던 《수리개》가 자세를 바로잡고서 커다란 두 날개를 기운차게 휘-휘- 젓는것이 그의 눈에 보였기때문이였다.

《수리개》는 불질을 하는 왜놈들에게 성꽃이를 하듯이 그들의 머리우를 날아지나며 연방 화살을 내리쏘았다. 《수리개》의 그림자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왜놈들이 무리로 죽어넘어졌다.

왜놈들은 머리를 싸쥐고 자기의 진으로 줄행랑을 놓기 시작하였다.

이를 본 하세가와는 성이 똑같이 나서 2진대장을 불러 령을 내렸다.

《부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있는 1진을 도우라. 그리고 <수리개>가 날아올랐다고 먼저 소리친 군졸의 머리를 베어 조리를 돌리라.》

령을 받은 2진대장은 황급히 부대를 끌고 진을 나섰다.

1진과 2진을 합친 왜군은 또다시 성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다.

《수리개》라는 귀신 아닌 귀신에 겁을 먹은 왜놈들이 왜장들의 강압에 떠밀려 코를 꺾인 송아지마냥 한치한치 진주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또다시 축석산우에서 《수리개》가 날아올랐다.

이번에도 왜군대오에서 비명소리가 미친듯이 울려 퍼졌다.

《진주성에서 또다시 수리개가 올랐다. 귀신이 우리를 벌하려고 온다.》

미신에 대한 집착력이 강한 왜놈들인지라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대한 큰 새가 날아가는것을 보자 대오에서는 소요가 일어났다.

머리를 까투리마냥 땅에 틀어박고 엉치를 하늘로 쳐든 왜놈들이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앉아 두손을 짹짹 비비며 머리를 연신 조아리는 왜놈들도 있었다.

《수리개》는 그러한 왜놈들에게 불화살을 연방 퍼붓고 남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날아가는 《수리개》를 멍하니 바라보던 왜놈들은 진주성에서 또다시 자기들에게 천벌을 내리는 재앙인 《수리개》가 날아올가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한동안 소요가 일어나며 뒤걸음을 치던 왜군대오가 사분오렬되어 뺑소니를 치기 시작하였다.

왜장들이 칼을 빼들고 몇몇의 군졸의 목을 치며 대오를 수습하려고 하였지만 행차후 나발이었다.

이날의 싸움에서 왜놈들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오를 철수하게 되었다.

우리안에 갇힌 승냥이마냥 장막안을 좁다하게 돌아치던 하세가와는 푸르딩딩 성난 얼굴로 장수들에게 《수리개》에 대하여 알아올데 대한 불호령을 내렸다.

자정이 지날무렵 한무리의 왜놈들이 한 조선군사를 끌고 장막안으로 들어왔다.

조선군사의 얼굴은 왜놈들의 사나운 발길질에 험상궂게 찢겨지고 형겅으로 대충 동여맨 바른어깨에서는 피가 질벅히 스배어나와있었다.

하세가와는 조선군사의 뒤덜미를 잡고있는 자기 군사놈을 바라보았다.

그 왜놈은 승리자연한 기색을 지으며 아뢰었다.

《저희들이 성으로 다가서는데 시체더미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소이다. 그곳으로 가보니 이 조선군사가 쓰러져있었소이다. 아마 탄환에 맞고 성에서 떨어진것같소이다. 그런데 이자가 얼마나 악질인지 바른어깨를 쓰지 못하면서도 우리 한 동료의 목줄을 물고늘어지지 않았겠소이까. 그래서 버릇을 가르쳐준다

는노릇이 그만 인사불성으로 만들었나이다. 그리고 성의 파수가 얼마나 삼엄한지 들어갈수 없었소이다.》

하세가와는 왜군사들을 내보내고 조선군사와 마주앉았다.

《나는 여기의 총대장으로서 너의 생명을 담보해줄수 있다는것을 약속한다. 다만 내가 알고싶은것은 성안의 군사가 얼마이며 축석산에서 날은 <수리개>가 어떤 병쟁기인가 하는것이다.》

조선군사는 하세가와의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한 시종군졸이 조선군사의 머리칼을 잡아제끼었다.

조선군사가 감고있던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두눈에서 시퍼런 광채가 번뜩였다.

《군사로서 어찌 구차히 목숨을 건지기를 바라랴. 성안의 군사수를 알고싶으나. 네놈들이 여기까지 오며 죽인 조선사람들의 수만큼이다. 그 원혼들이 지금 진주성에서 네놈들을 기다리고있다.

또 <수리개>에 대해서 알고싶거든 내 말해주지. 너희 왜왕을 잡으려 왜나라로 날아갔다. 그래 또 무엇을 알고싶으나. 너희가 죽는 날을 대달라느냐.》

조선군사에게서 무엇도 알아낼수 없다고 여긴 하세가와는 그를 끌어다 목을 치게 하였다.

하세가와가 군막밖을 나서는 조선군사를 바라보는데 그를 어기쳐 남강에 대한 감시임무를 책임지고있던 왜장수가 천방지축 달려들어왔다.

《방금 남강을 건너간 배 여러척이 축석산밑에 이르러 무엇

인가를 바줄에 매달아 올려보냈소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세가와는 성이 머리끝까지 올랐다.

진주성에 대한 포위를 물샐틈없이 하라고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가? 남강에도 군사 2 000여명을 보내어 한척의 매생이도 성에 불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다음날 하세가와는 동이 트기 바쁘게 직접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주성에 대한 공격을 하였다.

싸움은 해가 높이 떠오를수록 더욱 치열하여졌다.

정오쯤 되었을 때였다.

진에서 왜놈 하나가 말을 급히 몰아와 하세가와에게 알렸다.

《조선군사의 한 부대가 뒤에서 진을 치오이다. 병력은 100여명쯤 되오이다.》

하세가와는 흠칫 놀랐다. 많지 않은 조선군사이지만 부대의 뒤통수를 노린다는것은 앞으로 더 큰 병력이 모여와서 칠수 있다는것이였다.

정말 그의 우려대로 되였다.

얼마후 동으로는 경상도의병의 심대승, 윤탁, 초계의 장수 정언충, 북으로는 합천의 장수 김준민, 서쪽으로는 전라도의 병장 최경희, 남으로는 고성의 의병장 최강, 리달, 고성현령 조용도가 군사들을 이끌고 하세가와의 등뒤를 쳤다. 의병장 윤탁이 거느린 의병들과 정언충의 조선군사들은 마현에서 왜군을 만나자 한참동안 크게 싸웠다.

하세가와는 사방에서 조여드는 조선군사들을 막기 위해 진주성을 공격하던 력량에서 일부를 떼여 돌리지 않을수 없었다.

의병장 박재우는 선봉장 심대승의 부대를 파하여 왜군의 뒤 통수를 치게 하였다. 또한 어느한 의병부대를 진주성이 바라보는 북산에 올려보내어 밤에 화불을 올리게 하였다.

북산에 오른 의병들은 주라를 불고 북을 치며 기세를 올렸다.

《전라도 구원병 만여명이 의령의 홍의장군과 합세하여 래일 아침에 와서 왜적의 무리를 소멸할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진주성의 군사들은 크게 호응하고 왜놈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세가와는 벌써 며칠동안 있는 지혜를 짜내고 젓먹던 힘까지 다해 성을 공격하였다.

축대를 만들어 그우에서 성안에 대고 조총을 쏘게도 하고 성문을 뚫게도 하여보았다. 지어는 병신일(11일) 밤에는 군사들에게 화불을 들게 한 다음 각 영에 불을 놓고 퇴각하는척하다가 은밀히 동문을 치게도 하였다.

그러나 진주성에서는 그에 대응한 전술을 쓰면서 성을 완강히 지켜냈다.

진주성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어 14일째 되는 날이었다.

하세가와는 최후의 공격령을 내렸다.

활부대가 앞에 서고 뒤에는 창부대와 칼부대가 따랐다. 그 어간에서는 조총대가 가면서 사나운 불줄기를 쉬임없이 성루에로 뿜었다.

창부대와 칼부대가 성벽에 거의 다달았을 때였다.

성우에 은빛갑옷을 입은 장수가 서리발어린 복수의 긴칼을 뽑아들고 웅쳤다. 그는 지금까지 싸움의 맨 앞장에 서서 조선군사들을 고무하며 싸움을 지휘한 진주목사 김시민이었다.

《섬오랑캐들에게 불벼락을 들썩워라.》

그의 호령소리에 화답하듯 성우에서 하늘땅을 진동하는 총통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성가퀴마다 시커먼 총구들이 불쑥 나와 왜놈들에게 시뻘건 불줄기를 뿜었다. 진주성싸움이 있기 전에 조선군사들이 로획한 왜놈들의 조총을 참고하여 만든 170여정의 일제조총사격이었던것이다.

불줄기에 가슴을 뚫린 왜놈들이 무리로 쓰러졌다.

하세가와는 깜짝 놀랐다. 전번 싸움들에서 조총을 쏘는 조선군사들을 더러 보았지만 오늘과 같이 백수십정의 조총이 한꺼번에 불을 뿜기는 처음이었던것이다. 저희 왜군의 조총을 로획한다 해도 저렇게는 많을수 없는것이였다. 하다면 조선군사들이 조총을 만들어 쏜다는것이 아닌가. 어제는 《수리개》가 날아올라 군사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더니 오늘은 조총으로 무장한 한개 조선부대가 우리 군사를 무리로 쓸어눕히는 것이였다.

(진주성의 조선군사들이 언제 조총으로 무장하였단 말인가? 정말 무서운 군사들이구나.)

하세가와는 진주성을 점령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고 전군에 총퇴각령을 내렸다. 그의 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대오는 일대 수라장이 되였다. 군사들은 붙잡았던 부녀자들과 빼앗았던 부림소, 말을 다 버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황급히 줄행랑을 놓았다.

진주성싸움에서 조선군사들이 이룩한 승리는 참으로 거대한것이였다.

진주성을 거점으로 삼은 조선군사들은 경상우도에 기여든 왜

군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쥔 수 있었다. 또한 전라도로 진격하여 조선수군의 본거지를 없애고 《수륙병진》으로 단숨에 전 조선을 먹으려던 왜군의 기도를 파탄시켰다.

력사는 이 사실을 임진조국전쟁에서의 조선민족의 장쾌한 대승리(진주대승리, 한산대승리, 행주대승리)의 하나로 새기었다.

...

《태평성세라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조선은 하늘 소를 타고 음풍영월하고있다고 하였소이다. 그러며 관백께서는 이 조총을 나에게 쥐여주며 조선에 들어가는 길은 잠자는 사나이의 목을 베러 가는것이나 같다고 하였소이다.

... ..

본국에서 무지렁이로만 생각했던 조선백성들은 우리를 보자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호랑이가 되어 동래성과 진주성에서 길목을 지키며 우리의 먹을 물고 몸뚱이를 내리쳤나이다.

본국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키는데 기여한 서방의 병쟁기인 조총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넘어가더니 백자루, 천자루로 새끼를 치여 우리의 가슴을 뚫었나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날아다니는 귀신까지 만들어 우리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쳐갈졌나이다.

... ..

파연 그런 백성을 이길수 있겠나이까?》

붓을 달리던 하세가와의 손이 멈추어섰다. 붓대를 짊 움켜쥔 그의 굵다란 손이 떨렸다.

《아—》

외마디소리를 지른 하세가와는 두손으로 편지를 와락 거머

쥐고 찢었다.

(내가 이런 편지를 쓴다고 관백의 마음이 달라지겠는가. 나를 비겁쟁이로밖에는 보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진실이야 진실이 아닌가. 내 나라에서는 무지렁이로밖에는 보이지 않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 나라에서는 지혜와 용맹을 갖춘 천하장사들로 보이는가?)

하세가와는 책상에 머리를 구겨박고 끼이끼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입에서는 선지피가 쏟아져나왔다.

진주성싸움에서 패하여 거창으로 쫓겨간 하세가와는 그날 왜나라에 있는 관백에게 편지를 쓰다가 그만 분통이 터져 화병으로 죽었다.

왜적의 무리들이 것처럼 무서워하던 날아다니는 귀신인 《수리개》는 네명이 타고 하늘을 날수 있는 《비거》라는 병쟁기였다. 진주성의 조선군사들은 이 비거를 타고 성밖으로 날아가 성주위에 있는 의병대와 판군에게 지원병을 요청하였다.

비거는 오늘의 활공기와 같은것으로서 당시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그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때로부터 300년이 켜 지난 후에야 영국에서 처음으로 비조종활공기를 만들어냈으며 도이칠란드에서는 현수활공기를 만들어 실용화하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진주성싸움에서 활용한 비거는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자랑스런 창조물이었다.

라 인 철

지성이면 감천

임진조국전쟁이 터진 그 이듬해 여름 어느날, 연안고을의 재궁골에 사는 만득은 이날도 된새벽에 일어나 군사들에게 아침밥을 지어주고는 옷골로 향했다.

터벅터벅 걸음을 내디디며 마을을 둘러싸고있는 로인봉, 해월산, 상여봉을 둘러보는 만득의 마음은 여간 무겁지 않았다.

연안성에서 북으로 20여리 떨어진 재궁골은 산골이다보니 논은 말할것도 없고 밭조차 변변치 못했다.

대대로 물려오는 만득이네 땅은 도제 두마지기뿐인데 그나마 산자락밭으로서 돌자갈투성이이다.

이윽고 밭에 이른 만득은 가슴이 알팍지근하여 《에익, 룩실할 놈의 장마비.》 하는 욕설이 절로 나갔다.

장마만 아니였어도 남새풍년이 들었을것이다.

겨우내 산기슭의 보드라운 흙을 지여다 깔고 잘 썩은 거름도 듬뿍 내고 파, 마늘, 오이, 아욱, 부루 등 여러가지 남새를 심었다.

그렇게 힘쓴 덕에 큰비가 쏟아지기 전에는 싱싱한 남새로 만든 반찬들로 부상자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차리었다.

헌데 장마통에 그만 한창 열매가 달리던 오이냉쿨이 온통 끓는물에 데친듯 후줄근해버리고 다른 남새들도 볼썽없이 주저앉아버렸으니 분이 치밀어올랐다.

《에익, 이것도 다 그 망할 왜놈종자들의탓이로다.》 하고 중얼거리던 만득이 이를 뿌득뿌득 갈았다.

왜놈이란 생각만 해도 두눈에 피발이 뻗치는 만득이었다.

지난해 봄, 바다 건너 섬나라 왜놈들이 피에 주린 이리떼마냥 이 땅에 달려들었다. 삽시에 마을들이 피바다에 잠기었다. 그에 격분한 조선사람들이 도처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연안고을에서도 전 연안부사 리정암을 대장으로 하는 의병대가 《분충토적》의 기치를 들자 삽시에 황해도의 13개 고을에서 수천명의 의병들이 달려와 연안성에 진을 쳤다.

왜놈들때문에 안해를 잃은 만득이도 외아들과 함께 연안성 싸움에 참가하였다. 치열한 격전끝에 의병대는 수많은 왜놈들을 쳐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전과는 컸지만 만득은 이 싸움에 외아들을 바쳤다. 외아들마저 잃은 만득을 위로한 의병장은 그에게 부상자들을 부탁했다.

만득은 선뜻 의병장의 뜻을 받아들일수 없었다.

가문의 대를 끊어놓은 왜놈들과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우리라 굳게 다짐한 그때문보다는 부상자들을 말아안을 자신이 없기때문이었다.

어렵다 어렵다 해도 병구완보다 어려운 일이 없음을 옛말로가 아니라 실지 체험으로 느낀 만득이다.

젊었을 때 만득은 다년간 병고로 고생하던 아버지를 어떻게 하나 살려내려고 밤길도 걸으며 약도 지어오고 뜯눈으로 지새우며 병시중도 들었다. 하지만 만득의 그 모든 지성도 효도도 소용없다는듯 아버지는 종시 숨을 거두고말았다. 아버지조차 살려내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구완할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만득이 도리머리를 흔들었더니 의병장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절절하게 말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의병들을 맡기는거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난 그대를 믿겠네.》

여느 사람도 아닌 의병장이 지성이란 말까지 꺼들어 부탁을 하는데야 그 령을 거절할수 없었다.

하는수없이 만득은 의병대에서 장만해준 달구지에 부상자들을 싣고 고향 재궁골로 돌아온것이였다.

부상자들중에서 총상이 제일 심한 의병은 허벅다리에 관통상을 당한 애송이 은돌이였다.

다시한번 꺾어보니 부상자들을 돌본다는게 생각했던것보다 더 벅찼다.

의원의 말이 창상보다 총상이 걸보기에는 상처가 심한것같지 않아도 더 애를 먹인다더니 옳은것같았다.

의원이 지어준 약을 직심스레 발라주는데도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았다.

게다가 음식대접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정말 괴로웠다. 물론 쌀은 의병대에서 떨어질세라 가져다주고있었다.

하지만 쌀만 가지고 몸보신을 할수 있는건 아니다. 백미밥 일지라도 총상으로 고생하는 부상자들의 입맛을 돌려줄수 없었다.

오로지 색다른 밥반찬만이 그들에게 식욕을 돋구어줄수 있는것이였다.

하나 맛있는 반찬을 만들려면 육불이라든가 물고기 같은 색다른 반찬감이 있어야겠으나 기껏 남새뿐이니...

그나마 지금은 장마통에 냄새마저도 거덜이 났다.

《이런 때 조개젓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중얼거리던 만득은 다시금 이를 갈았다.

비록 왜군을 연안고을에서 몰아냈다고는 하지만 바다가에는 아직도 그놈들이 싸다니고있기에 황해도에 흔하던 어물이 금싸래기처럼 귀해버렸다.

만득은 울화가 치민 나머지 의병장이 고깝게 여겨졌다.

(예익, 그 어른만 아니였어도 이런 마음고생은 하지 않는건데… 전장에 나가 한놈의 왜놈이라도 이발로 물어뜯고 칼탕을 친다면 지하에서 마누라와 아들을 떼뻗이 만나련만 의병장어른때문에 이 꼴이 되었으니…)

한숨짓던 만득이 서서히 머리를 저었다.

《내가 실성했다. 감히 의병장어른을 탓하다니… 지금 내 할바는 은돌이의 몸을 어서 추세우는게다.》

그동안 만득이 애쓴 보람으로 두사람이 의병대로 돌아갔다. 이제는 세사람이 남았는데 차도가 보이지 않는 부상자는 은돌이뿐이었다.

그게 다 종살이로 몸이 허약해진탓이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주인집것들이 재물을 처싱고 산골로 도망칠 때 허약한 몸이였건만 의병대를 찾아온 은돌이다.

성문을 열고 나가 왜놈들을 답새길 때 은돌은 그만 조총에 맞았다. …

냄새발을 굶어보던 만득이 중얼거렸다.

《은돌아, 조금만 참아라. 이젠 그 모진 장마가 걷히었으니 배추랑 무우랑 심어서 맛있는 풋김치를 담그어주마. 풋김

치에는 살이 오른다고 했으니 그것만 먹으면 굶아터지는 상처도 나올게다. 그럼 우리 함께 의병대로 돌아가 실컷 왜놈을 잡잔 말이다.》

이튿날, 만득은 오이닝쿨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배추와 무우씨를 뿌렸다.

보름이 지나니 배추잎들이 보기 좋게 퍼져 두둑을 짝 메웠다.

그것들을 씨숙음해서 풋김치를 담그어 식탁에 올렸더니 부상자들은 누구라 없이 고맙게 생각하였다.

친부모인들 이보다야 더하랴. 어느 하루도 얼굴을 붉힘없이 팔다리도 되어주고 끼식을 마련해준 만득이었다.

《어서들 들라니까.》

술가락을 들려주는 만득이에게 은돌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다.

《아버지!—》

악착한 부자집에서 멸시만을 받아오다가 만득이를 만나서야 부모의 정을 느낀 은돌이에게는 그가 정녕 아버지이고 어머니였다.

은돌이 눈물을 쏟으니 만득이도 눈곱이 축축해졌다.

《됐다, 됐어. 난 네가 밥을 배불리 먹는것을 보는게 소원이니라.》

그 말이 힘이 되었던지 아니면 풋김치가 조화를 부려서인지 이날 은돌은 밥 한그릇을 말끔히 바닥내었다.

그것이 기뻐 만득은 소리없이 울었다.

(정녕 하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가.)

만득이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꽃김치가 입맛을 부쩍 당기리라 생각했는데 은돌이만은 도리어 속тал이 나서 맥을 추지 못하는것이였다.

그래서 다급히 의원을 청해왔더니 그가 하는 말이 과식으로 체한것이니 보리길금을 쓰라고 하였다.

즉시 보리길금을 얻어다 먹여 체증을 고쳐주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때문에 잃어버린 입맛이 좀처럼 돌아서지 않았다.

여러날이 흘러 몸이 회복된 두사람이 또 의병대로 돌아갔다.

홀로 남은 은돌은 끼식때면 여전히 불가심이나 하는 정도였다.

몸이 좀처럼 추서지 않는 그의 모양이 만득이의 애간장을 바싹바싹 말리웠다. 게다가 악독한 왜놈들이 도처에서 조선사람들의 코와 귀까지 베어간다는 흉흉한 소문은 가뜩이나 달아오른 만득이의 가슴을 막 끓게 하였다.

세상에 사람의 코와 귀까지 베어가는 그런 마귀도 있단 말인가.

어서 의병대로 돌아가 우리 사람들의 코와 귀를 마구 베어가는 왜놈의 종자들을 탕치고싶는데 은돌이때문에 발목을 묶이였으니 울화가 치밀어올랐다.

당장 은돌이를 마을사람들에게 맡기고 돌아가고싶었지만 어느 사람도 아닌 의병장의 부탁을 저버릴수가 없어 억지로 참을수밖에 없었다.

《이녀석아, 몸을 추세우는 일이자 왜놈을 잡는 일인줄 왜그리도 모른단 말이나?》 하고 한바탕 꾸짖고서야 분이 좀 가라앉은 만득은 저녁밥을 짓는 일에 달라붙었다.

가마에 쌀을 안치고났는데 이웃집녀인이 부엌문을 열고 들어서는데였다. 늘 찾아와 부엌일도 해주고 부상자들의 옷가지도 빨아주는 녀인이었다. 녀인이 통바리를 내밀며 입을 뻗었다.

《아주버니, 이걸 받으시와요. 장에 나갔는데 이게 쓰이드라니...》

통바리에는 조개젓이 무득하였다.

어물이 거의 말라버린 요즘 조개젓이 값비쌀터인데 그걸 사왔으니 만득은 가슴이 뭉클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며 녀인을 바래운 만득은 조개젓을 곁들인 밥상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은돌아, 맛있는 반찬이 있다. 조개젓을 보면 목젓이 막 근질덜게다.》

벽에 기대앉은 은돌은 계면쩍은 생각에 선뜻 밥상에 나앉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나때문에 아버지가 고생을 하다니...》

아직도 지팡이가 없으면 걸지 못하는 자기의 다리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짓는 은돌이의 손에 숟가락을 들려주며 만득이 말했다.

《원 사내대장부란게... 난 네가 인차 상처를 털고 일어선다는걸 안다. 밥을 쫹쫹 먹어야 왜놈을 잡을수 있어.》

눈물을 머금은 은돌은 늙은 의병의 마음을 보아서라도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밥을 한술갈 떠놓고 조개젓을 씹던 은돌은 은근히 놀라왔다. 어찌된 조화인지 입맛이 확 당기는것이 아닌가.

갑자기 먹음직스럽게 밥을 퍼먹는 은돌이를 본 만득이의 얼

굴이 대번에 환해졌다.

《아주 좋아, 진작 그랬어야지. 내 어떻게 하나 조개젓쫄은
떨구지 않겠으니 넌 밥만 꺄꺄 먹어라.》

감동된 심정에 그런 말을 내뱉고보니 걱정이 앞서는 만득
이었다.

무슨 돈이 있다고 조개젓을...

이윽고 앉아서 우는소리를 할게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
도 조개젓을 얻어와야겠다고 생각한 만득은 우선 수일내로 떨
감부터 장만하리라 마음먹었다.

이튿날 아침 만득은 낮을 갈며 은돌이에게 일렀다.

《가마안에 밥이 있고 부뚜막에는 조개젓그릇을 두었다. 난
어두워서야 돌아올수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자거라.》

지계를 지고 나서던 만득은 다시한번 일렀다.

《그리고 부엌시렁우에 길금단지가 있으니 밥을 먹고는 꼭
꼭 길금가루를 한숟갈씩 먹어라. 알겠느냐?》

《예, 알겠소이다.》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만득은 부지런히 산으로 향했다.

만득이 보이지 않자 은돌은 새끼라도 꺄아서 돕고싶은 생각
에 토방에다 일판을 벌려놓았다.

새끼를 백발가랴 꺄았더니 해는 벌써 점심을 가리켰다.

일에 신바람이 나니 밥맛이 더욱 당기는듯했다.

만득은 캄캄해서야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니 토방우에 새끼통구리가 있었다.

《원, 녀석도... 그 몸으로...》

가마를 열어본 만득은 아연했다.

늦게 돌아올것을 타산해서 자기의 저녁밥까지 남겨두었는데 반반했다.

조개젓이 조화를 부려서인지 은돌이의 입맛이 완전히 돌아선듯했다.

(저녁석이 입맛이 당겼을 때 잘만 먹이면 몸이 부쩍 추서겠는데... 무슨 수로 저 식성을 당할가?)

만득은 밤새워 생각을 굴렸으나 신통한 궁냥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밥상을 물린 만득이 은돌이에게 일렀다.

《넌 오늘부터 며칠간 의원집에 가있어야겠다.》

며칠전 의원은 은돌이를 곁에다 두고 밤낮으로 손을 써보겠으니 제집으로 보내라고 했던것이였다.

《마침 의원이 사는 이웃마을로 가는 탈구지가 아침에 있으니 어서 떠날 차비를 해라.》

만득은 은돌을 떠나보내고서도 여전히 은돌이의 밥반찬을 마련해줄 생각에만 골몰하였다. 그러던 만득의 머리속에 집사람이 해주곤 하던 연안식혜(날조개를 소금에 절여 만든 식혜)가 생각났다.

(이렇게 둔하다구야.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 해놓으면 은돌이가 올 때쯤이면 익게 될것이다. 집사람은 식혜를 빨리 삭히고 맛을 내기 위해서 밥이나 길금가루를 넣곤 하였지. 의병대에서 보내준 쌀도 있겠다, 맛있게 담그어놓으면 그녀석이 얼마나 좋아할가.)

만득은 남아있던 조개를 가지고 식혜를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다.

은돌이가 좋아할 생각을 하니 일에서 부쩍 성수가 났다.

나흘후 저녁 만득은 그동안 의원의 집에서 몸이 한결 회복되어 돌아온 은돌이와 겸상을 하였다.

물씬한 식혜향기가 풍기는 속에 보시기에 담긴 연안식혜가 은돌이의 눈을 끌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음식이나요?》

《넌 먹이려고 내가 담근 연안식혜다. 어서 맛보아라.》

은돌이 한점 집어 입에 가져가니 감칠맛이 돌고 상큼한게 별맛이었다.

은돌이가 좋아하니 만득이의 마음도 더없이 기뻐다.

(이게 정녕 별찬은 별찬이로다. 조개가 귀한 이때 조개젓이 아니라 보다 별맛인 식혜를 만들어 먹으면 분한도 있으니 좀 좋은가. 은돌이에게 내 손으로 조개를 건져다 연안식혜를 만들어 먹여야지.)

다음날, 은돌이를 대추나무집녀인에게 맡긴 만득은 의병대를 찾아갔다.

찾아온 사연을 들은 의병장이 여러명의 의병들을 붙여준 덕에 무사히 조개를 건져낸 만득은 이틀만에 돌아올수 있었다.

조개를 한집 지고 돌아온 만득이 식혜를 만들려 한다는것을 안 대추나무집녀인이 대추와 밤, 잣을 들고 찾아왔다.

《아주버니, 예로부터 연안식혜를 만드는데는 대추와 밤, 잣을 함께 넣고 버무렸어요. 은돌이를 추켜세우는 일인데 무엇인들 아끼겠나요. 제가 돕겠어요.》

대추나무집녀인이 주인인양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손을 잡았다.

목함지에 백미밥을 퍼담은 녀인은 그우에 소금과 보리길금가루, 껌질벗긴 밤과 씨뽕은 대추를 두고 고루 버무렸다.

그런 다음 소금에 절인 조개살을 밥량만큼 쏟아내고 또다시 버무렸다. 다음 만든 식혜를 항아리에 넣고나니 해가 떨어지고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날마다 식혜가 맛들기를 바랬던 만득은 조심스레 항아리에서 뚜껑을 열었다.

아닐세라 금시 군침을 자아내는 연안식혜의 향기가 막 풍겨나는것이였다.

대바람 만득이의 입이 항 벌어졌다.

《히야, 마음씨고운 아낙이 지었으니 어린할라구.》

향기로운 음식치고 맛없는것이 없다고 한술 떠먹어보니 허가다 말려들어가는데같았다.

《아, 이 맛 사람 죽여주는구나. 우리 은돌이가 좋아하겠다.》

만득이 생각했던것보다도 은돌은 식혜를 더 좋아하였다.

입에 붙는 음식에는 살이 오른다고 식욕이 왕성해진 은돌은 하루가 몰라보게 몸이 좋아졌다.

몸이 좋아지니 상처도 눈에 뜨이게 아물어갔다.

그 모습에 만득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였다.

이듬해 봄, 씨름군마냥 몸이 튼튼해진 은돌은 마침내 지팡이를 내던지고 대지를 씩씩하게 활보할수 있었다.

마침내 전복을 펴쳐입은 만득이와 은돌은 마을사람들의 바래움속에 귀대의 길에 올랐다.

그들이 원쑤치는 전장에서 군공을 펼치였음은 더 말해 무엇하랴.

드디어 7년간의 임진조국전쟁은 우리 인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전승의 그날 연안의병대의 전승연에는 만득이 만든 연안식혜도 찬으로 올랐다. 그 맛이 류별한 연안식혜에 깃든 사연을 안 의병장이 만득이의 손을 잡고 칭찬했다.

《이는 정녕 그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중상자인 은돌이까지 일으켜세운 그대의 가특한 소행에 정말 감동이 되는바일세.》

오늘도 연안식혜는 짹짹하면서도 들적지근하고 시크무레한 그 맛으로 하여 황해도의 손꼽히는 밥반찬으로 일러주고있다.

전 철 호

새것에 민감하면 공을 이룬다

조선봉건왕조중엽 황해도 평산고을의 한포땅 못터마을에 구돌이라고 하는 젊은 농사꾼이 있었다.

흰칠한 키꼴에 사내싸게 잘 생겼지, 일 잘하지, 마음 착하지, 보다는 새것에 민감하지. 그래서 딸가진 집들에서 저마다 욕심을 내는 바람에 동네장가를 든 사람이었다.

장가든 이태후, 그에게 첫 대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누이동생을 시집보내는 일이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오누이가 서로 의지하여 애써 일한 끝에 밥술을 먹는 집살림을 마련했는데 이제는 누이동생과 헤어져 살게 되었으니 구돌은 섭섭하기 그지없었다.

구돌은 누이동생을 시집보내는 일에 여간 마음을 쓰지 않았다.

누이동생도 마을에서 인물도 손가락에 꼽을만큼 곱고 길쌈재주도 뛰어나서 아들가진 집들에서 탐을 냈다.

그동안 구돌은 청혼해오는 집들을 제가 직접 찾아다니며 총각의 됴됨이를 알아보곤 하였다.

허나 눈에 차는 총각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집안이 마음에 들면 총각이 흠이 있고 총각이 마음에 들면 집안이 신통치 않았다.

그래서 퇴짜를 놓으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문턱을 높이

다가는 누이동생을 처녀로 늙히지 않나 두고보라고 눈을 흘기었다.

하지만 그때문에 주눅이 들기는커녕 기어이 사내다운 사내에게 누이동생을 맡기리라 더욱 결심이 굳어지는 구돌이였다.

구돌이 생각하는 진짜사내는 눈이 바로 배긴 사내였다.

세상살이를 바로 볼줄 알고 옳고그름에 따라 능히 바른 처신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야 인생을 후회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돌이였다.

구돌이 늙은이처럼 이렇게 궁냥이 깊은것은 때이른 고생살이로 일찍 철이 든때문이었다.

그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라야 기울어져가는 초가집과 손바닥만한 뽕기밭 몇개가 전부였다. 오로지 어린 동생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열손가락이 다 해지도록 땅을 일구고 농사를 한 끝에 오늘에 이른것이다.

하기에 마을사람들은 구돌을 가리켜 자수성가의 본보기라고 칭찬하였다.

그 어렵던 날에 구돌이 깨친 진리가 있었으니 외진 섬에서도 눈만 바로 배기면 얼마든지 살아갈수 있다는 그것이었다.

이런 진리를 품은 구돌이에게 마침내 눈에 차는 총각이 나타났다.

이해 정초 어느날이었다.

외딸이 송도로 시집가서 잘사는 덕에 《송도집》이라 불리우는 이웃집의 로파가 중매를 선다며 송도총각을 데리고 구돌을 찾아왔다.

송도총각은 억실억실한 두눈부터 인상이 좋은데 자기는 시부

모를 친부모처럼 여기고 효도를 하겠다는 처녀이면 인물재산을 묻지 않고 장가들겠다고 하여 구돌을 감동시켰다.

구돌이에게 설음이 있다면 부모에게 효도를 바치고싶어도 바칠수 없는 처지였다. 인물재산따위는 뒤전으로 밀어놓고 오로지 자기 부모에게 효도할수 있는 처녀라면 족하다는 총각이면 눈이 바로 배긴 사내라고 할만했다.

부모를 위하는 사람이 나라도 위할수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구돌은 송도총각에게 누이동생을 맡기리라 결심하고 보리고개를 넘기면 혼례식을 차려주기로 언약했던것이다.

그런데 눈깜빡할 사이에 날과 달이 흘러 언약했던 그날이 온것이였다.

등근 해가 하늘복판으로 거슬러오를 때 색시를 신고갈 가마를 달고 하늘소탄 송도총각이 못터마울로 들어섰다.

신랑이 나무기러기를 상우에 놓고 색시의 부모를 대신하는 구돌이에게 절을 하고 이어 신랑신부 맞절하기, 교배잔 나누기 등의례식이 흥겨운 분위기속에 진행되였다.

이튿날, 구돌은 후행군이 되어 신랑신부의 행차를 따라나섰다.

송도를 향해가며 신랑신부의 행렬은 새납도 불고 팽파리도 치면서 기세를 올렸다.

일행의 맨뒤에서 나서자란 고향의 지경을 넘는 구돌의 마음은 은근히 설레였다.

송도가 고려의 도움이였던 까닭에 요란하다는데 대체 인종이 얼마나 될가, 집들은 또 얼마이고?...

날 저물자 길가의 마을에서 하루밤을 묵은 일행은 날밝기

바쁘게 길에 나섰다.

여전히 일행의 뒤자리를 차지한 구돌은 어서 송도에 갔으면 하는 생각이였다.

못터마을에서 송도까지 백리를 좀 넘는다니 오늘 한낮이면 들어설수 있을것같았다.

아니나다를가 해가 정수리를 내리비칠 때 일행은 송도의 서문인 오정문에 들어설수 있었다.

송도에 들어선 구돌은 보이는것마다가 다 희한해보여 두눈이 둥그래졌다.

큰길 량옆으로 추녀높은 기와집들이 끝이 없고 거리에서는 잘 입은 사람들이 봄비는데 여기저기서 갖가지 물건들을 차려놓은 장사꾼들이 싸구려를 부르고있었다.

보이는것마다 새롭고 이채롭다는 생각에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하는 구돌의 모양은 관청에 온 촌닭같았다.

《히야, 정말 요란하구나. 이렇게 큰 세상도 있었구나.》 하고 감탄을 하는데 선두일행은 남대문을 지나 남산쪽으로 뻗은 큰길을 타고있었다.

선두에서 남소문을 나선 신랑이 하늘소를 멈춰세우고 구돌을 불렀다.

일행의 맨뒤에서 지나치는 거리들을 둘러보며 넋이 나갔던 구돌이 신랑이 찾는다는 기별에 앞으로 달려갔더니 그가 나지막한 산을 낀 마을을 가리켜보였다.

《형님, 저 마을이 제 고향 운천동이올시다.》

양지바른 곳에 오붓하게 자리잡은 마을앞으로 시내물이 흐르고 개울 량옆으로는 논배미들이고 등성이에선 밭인데 논과

밭이 절반이라 첫눈에도 살기 좋아보였다.

논을 바라보면 벼포기들의 아지치는 소리가, 밭을 바라보면 창대마냥 실한 조대들에서 이삭패는 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다.

송도거리에서는 관청에 온 촌닭풀이던 구돌이 논밭앞에서는 실농꾼으로서 가슴을 짝 펴고 곡식을 굽어보는것이였다.

하늘소에서 내려선 신랑이 공손히 여쭙었다.

《형님은 처부모와도 같으니 이번에 잘 모시겠소이다.》

그 말에 기분이 붕 뜬 구돌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우이. 자 이젠 또 가보세.》

구돌이에게 떠밀려 하늘소에 올라앉은 신랑이 싱글벙글 웃었다.

《형님은 송도가 처음이라던데 이번에 구경을 실컷 하소이다. 우리 송도에는 아직도 옛 도읍의 자취가 적지 않게 남아 있어 볼것이 많소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걸음에 송도구경을 하리라 베풀던 구돌인지라 입이 벌어졌다.

《아무렴.》

신랑을 따르던 구돌은 길가의 인삼포를 보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한기장의 폭으로 길게 나래를 켜워 해가림한 지붕아래에 짝 들어찬 인삼을 난생처음 보는 구돌이였다.

구돌이 푸르청청한 인삼줄기들을 가리켰다.

《매부, 저건 무슨 곡식이기에 지붕까지 켜웠나?》

《그게 바로 온 세상이 장생불로약으로 일러주는 우리 나라 명물 고려인삼이오이다.》

《아, 고려인삼!》

크게 감탄을 터뜨리던 구돌은 새것에 민감한 성미그대로 인삼에 부쩍 흥미가 끌리었다.

(저걸 내 고향에도 옮겨심으면 우리도 부자가 될게 아닌가. 웬지, 이 걸음에 인삼을 얻어가야지.)

인삼포에서 눈길을 떼니 이번에는 부채만한 큰 잎을 펼쳐든 작물이 눈에 띄이는 것이었다.

그것이 토란인줄 알리 없는 구돌이 두눈이 둥그레가지고 물었다.

《매부, 잎이 갓만한 저건 또 무슨 귀물인가?》

《그건 토란이라고 하는 남새이오이다.》

농사에서라면 모르는것이 없다고 자처해온 구돌은 토란이란 남새도 모르고있었다는것이 부끄러웠다.

《토란은 어떻게 먹나? 맛은 좋은가?》

구돌의 질문에 대꾸하려던 신랑이 불에 덴듯 하늘소에서 후닥닥 뛰어내렸다.

구돌이와 말을 하는 정신에 집앞에 나와있는 부모를 뒤늦게야 알아본 것이었다.

《형님, 저의 부모님들이 나와계시오이다.》

그제서야 구돌이도 옷매무시를 바로하느라 헤덤벼쳤다.

신랑신부가 부모에게 절을 하는례식에 이어 후행군들은 옆집으로 안내되었다.

구돌이 처형과 함께 그 집에 들어서니 네모진 큰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있었다.

음식상을 굽어보던 구돌이의 두눈이 둥그레졌다.

난생처음 보는 음식이 너무도 많았던것이다.

구돌이 이것들이 무슨 음식인가고 묻는 눈길로 처형을 바라보니 그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한포아근에서 음식재주가 좋기로 알려진 처형조차도 모른다 하니 구돌은 놀랍기만 하였다.

(과연 나는 우물안의 개구리였구나.)

주눅이 든 구돌이 눈길을 허둥거리는데 중년의 남녀가 들어서며 자기들은 신랑의 고모와 고모부라고 소개하는것이였다.

인사를 나눈 네사람은 음식상에 둘러앉았다.

의문투성이인 구돌이 음식상을 가리켰다.

《사돈님들, 여기에 처음 보는 음식이 적지 않은데 좀 말씀해주소이다.》

신랑의 고모가 비둘기알같이 생긴 떡은 경단이고 저건 약과이며 이쪽의것은 약밥, 그옆의것은 우메기, 밥알이 동동 떠있는 음료는 개성식혜라고 하면서 이것들은 다 옛적부터 송도의 특식으로 전해온다고 말하였다.

구돌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맛을 보니 개개별로 별맛이였다.

구돌이 감탄해마지 않는데 신랑의 고모가 웃으며 국그릇을 가리켰다.

《사돈님, 국을 좀 맛보시와요.》

자기앞의 국사발을 굽어보던 구돌이 미간을 찌프렸다.

국은 담다말았는지 골썩한게 반사발 되나마나하였다.

(허— 무슨 인심이 이다지도 야박한가.) 하고 구돌이 속으로 혀를 차는데 그의 심정을 엿본 신랑의 고모가 말했다.

《우리네 송도풍습에는 국을 철철 넘치게 담지 않는답니다.
국이 입에 맞으면 더 칭해 먹는것이 송도풍습이나이다.》

구돌의 얼굴이 벌개졌다.

(남의 고을풍습을 모르고 다니다가는 망신하겠는걸...)

이번에는 신랑의 고모부가 간장종지를 가리켰다.

《이건 우리 송도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수를 다저넣은 양념
장이오이다. 국이 싱거우면 고수양념장을 쳐보시오이다.》

그 말이 구돌이에게는 이상하게 들리었다.

양념장이라고 하면 간장에 파나 마늘을 넣는것으로만 아는
구돌이였다.

(고수양념장이란게 대체 어떤 맛일가?!...)

구돌이 조심스레 저가락으로 고수잎을 입에 넣었더니 대뜸
비위에 맞지 않는 냄새가 입안을 진동하는것이였다.

대바람 얼굴을 찡그리는 구돌이를 보고 신랑의 고모부가 꺾
꺾 웃었다.

《다른 고장에서 온 사람들은 처음엔 다들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지요.

그러나 곧 그 맛에 반한다우. 어떤 양념장을 쓰는가에 따
라 국맛도 달라지지요. 양념이란 말은 사람의 몸에 보약이 되
도록 약처럼 조금씩 음식에 넣어 먹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
소이까.》

그런 말도 듣느니 처음이라 구돌은 거듭 탄복해마지 않았다.

(송도엔 내가 모르는것이 너무도 많구나. 사람은 죽을 때
까지 배워야 한다는 그 말을 이제 알겠다. 이제라도 허심하
게 배우자.)

구돌은 신랑의 고모부에게 물었다.

《고수는 무엇이 좋소이까?》

신랑의 고모부가 정색해서 대꾸했다.

《신랑이 당부하기를 사돈님이 모든걸 파고드는 성미라면서 알고싶어하는걸 잘 대주라고 합디다.》

신랑의 헤아리는품에 구돌은 코마루가 저려들었다.

《고수는 참 좋은 남새이지요. 채기로 먹은것이 잘 내려가지 않을 때도 좋고 식중독에도 좋으며 홍역을 다스리는데도 효험이 있소이다.

전해오는 말에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고수를 심어왔는데 그 때에는 호유라고 했다는것이오이다.

그래서 지금도 의서들에서는 고수를 호유라고도 하오이다.

우리 송도에서 남달리 고수를 많이 심어먹는데는 사연이 있소이다.

고려때 송도가 도읍으로 되면서 호구가 갑자기 불어나서인지 배앓이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하오이다. 그때문에 의원들이 배앓이에 좋은 고수를 늘 먹도록 하기 위해 고수양념장을 만들어냈다고도 하오이다.

그때부터 고수는 송도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것으로 되었지요.》

그 말에 군침이 난 구돌이 고수양념장을 찐 국을 떠먹었다.

줄게 생각을 해서인지 고수의 역했던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졌다.

맛있게 음식을 먹은 구돌은 인삼이며 토란 그리고 고수에 대한 욕심이 굴뚝갈아졌다.

《사돈님들, 오늘 송도에 와보니 세상을 너무도 몰랐다는 생각이 드오이다. 인삼종자를 가져다 제 고향에도 심고싶소이다.》

눈에 웃음을 머금은 신랑의 고모부가 대꾸했다.

《뚱고싶은 마음이야... 하지만 인삼은 송도의 토질이 아닌 땅에다 심으면 약효가 떨어지는 까닭에 일러주지 않으니 헛공사라 하겠소이다.》

그 말에 구돌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시조차도 한산의 모시, 베로는 함경도의 북포 심지어 쌀마저 봉산쌀을 으뜸으로 일러주는데 고려인삼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인삼은 그렇다치고 다른것들은 꼭 가져가고싶었다.

《토란은 어떻게이까?》

구돌의 질문에 신랑의 고모가 대꾸했다.

《토란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캐는데 큰것은 어른주먹만하고 작은것은 참새알만한 덩이뿌리가 많이 달리기때문에 <땅속의 알>이라는 뜻을 가지고있소이다. 즐기는 볍아먹을수 있고 덩이뿌리는 닭고기와 국을 끓여먹으면 참 별맛이오이다. 게다가 중풍에도 효험이 있소이다.

그래서 송도에서 토란을 많이 심는것이며 추석날에는 <토란 닭고기국을 자셨소이까.> 하는 인사말까지 생겨난것이오이다.》

구돌은 또 한숨을 내뿜었다.

토란을 봄에 심는다고 하니 지금 당장은 가져갈수 없었다.

구돌의 마음을 아는 신랑의 고모부가 싱글 웃었다.

《그렇지만 고수는 아무때나 심어먹을수 있소이다.》

그 말에 구돌은 군침을 꿀꺽 삼키었다.

《그… 그럼 고수종자를 구해줄수 있다는것이오이까?》

《그야 물론… 고수는 씨뿌려서 겨울을 나야 이듬해 봄에 꽃이 피고 씨앗을 맺소이다.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봄부터 여름까지 아무때나 심어먹을수 있소이다. 우리 집에 고수종자가 넉넉하니 드리겠소이다.》

너무 기뻐 구돌의 얼굴은 웃음투성이였다.

이튿날, 송도구경을 하자는 신랑을 따라나선 구돌의 마음은 고수에만 가있었다.

당장 고수를 가져가지 않으면 직성이 풀릴것같지 않았다.

그날 대충 송도를 돌아본 구돌은 다음날 이른아침 귀로에 올랐다.

백리길을 내쳐 달려 그날로 집에 들어선 그는 이튿날 안해와 함께 제일 좋은 터밭에 고수씨를 뿌렸다.

정성을 다해 씨를 뿌린 구돌은 하루에도 몇번씩 터밭을 들여다보았다.

며칠후 고수가 파릇파릇 싹터나왔다.

마를세라 물을 주었더니 한달만에는 한뼘가량 자라올랐다.

그제서야 가슴을 짝 편 구돌은 안해에게 고수양념장을 만들게 하였다.

그날 밥상에 나앉은 구돌을 놀라게 한것은 안해가 송도내기인듯 고수양념장을 아주 맛스럽게 먹는것이였다.

식성은 각각이라더니…

그날부터 밥상에는 고수양념장이 빠지지 않고 올랐다.

여름이 가고 소슬바람부는 마가일이 왔다.

구돌이 뒤산에 올라가 땔나무를 한짐 해지고 돌아오니 안해가 고수를 베여들이고있었다.

나무짐을 마당에 내려놓은 구돌이 광주리에 가득한 고수를 바라보며 탄복했다.

《이 많은 고수를 어떻게 다 먹는다?》

《산나물처럼 말려두었다가 반찬을 해먹지요.》

낫으로 고수를 썩썩 베며 하는 안해의 말에 구돌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안될 소리, 송도에서도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요.》

《남이야 어쨌든 하면 되겠지요.》

그 말에 구돌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우리 고장에서는 귀물이라고 할수 있는 고수로 기껏 말린 반찬이나 만들어서야 쓰겠는가.

무엇이든 말리면 그 맛도, 볼품도 쓸모도 썩 못해지는 법인데...

땔나무를 나무광에 들어쌓는 구돌은 이 한생각뿐이었다.

(이제 고수가 해별이 잘 드는 명석우에 퍼널리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는데...)

무엇이든 새것을 보면 호기심과 함께 그것을 보다 유익하게 씹먹는 궁냥을 해오는데 습관된 구돌이라 이런 때 머리가 핑핑 돌았다.

(가만, 고수로 김치를 담그면 어떨가. 물론 송도에서 그런 말을 듣지 못했지만 고수라고 김치가 안될것도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구돌이 안해에게 말했다.

《고수로 김치를 만들면 좋을것같구만. 산나물로도 김치를 담그어 먹는데... 안그런가?》

고수광주리를 안아들던 안해가 환한 웃음을 지었다.

《아이참, 난 왜 아낙네란게 그런 좋은 생각은 못했을까.》

며칠후, 구돌이 마주한 밥상우에 고수김치가 한자리를 차지하였다.

난생처음 보는 고수김치에서 풍겨오는 싱그러운 고수향기에 밥맛이 부쩍 들었다.

김치국물부터 한숟갈 떠먹으니 시크무례한 맛에 고수향이 어울려 참 별맛이었다.

《허- 이거 깎두기가 울고가겠는걸...》

밥맛이 부쩍 동한 량주는 고수김치덕에 밥을 게눈 감추듯 하였다.

끼식때면 량주가 고수김치로 흥을 돋구고있는지도 어느덧 두달이 썩 지난 어느날 밤이었다.

잠자리에 든 구돌의 손을 안해가 척 부여잡더니 자기의 배우에 올려놓는것이였다.

구돌이 별스러운 그 태도에 의아해하는데 《내 배에서 뭔가 느껴지세요?》 하고 안해가 물었다.

구돌이에게는 아무 느낌도 없었다.

《아니, 아무렇지도 않는데 뭐.》

《원, 어리무던하게도 구네.》

목소리마저 떨려있는 안해의 말에 구돌은 잠기가 천리만리로 썩 사라지고말았다.

《그건 대체 무슨 말인가?》

《저— 어… 실은 배속에 아이가…》

불쑥 안겨드는 가슴이 터져나갈듯한 기쁨에 구돌은 이불을 차던지며 일어나 앉았다.

신방에 든지도 두해가 되었건만 태기란게 종무소식이던 안해였다.

《그게 참말이야?》

《에그, 그렇게 큰소리 칠내기면 온 동네가 듣겠어요.》

《들으면 뭐래.》

뒤따라 일어난 안해가 구돌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정말 고마와요.》

《고맙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아이가 생기게 해주지 않았나요.》

《그… 그거야 한자리에 들면 절로 되는 일인데 뭘.》

안해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사실… 무얼 더 숨기겠나요. 제 몸은 한자리에 들어도 그런 일이 저절로 생길 그런 몸이 아니였어요. 아이때 생긴 속탈로 랭이 심해져 태기가 생기는족족 인차 떨어지고… 그때문에 소박맞고 쫓겨나면 어쩌나 근심이 앞산갈았어요. 그런데 서방님이 고수가 속탈에도 좋다면서 심자고 했을 때 참말이지 기뻐어요.》

구돌은 안해를 너무도 모르고 살아왔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아 멍하니 그를 굽어보기만 하였다.

이 사람이 그렇게도 속탈이 심했던 말인가.

《고수가 제 몸에 약이 되려고 해서인지 처음부터 고수양념장이 입에 붙더군요. 날마다 고수양념장을 먹었더니 점차 속

이 편안해지고 몸이 훈훈해지는것이 알려더군요. 이어 고수김치를 장복했더니 끝내는 이렇게... 이번에는 아이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막 노는것이 알려요.》

그 말을 듣고보니 안해의 몸이 요즘 부해졌다는것을 느끼게 되는 구돌이였다.

《그래서 서방님이 고맙다는거예요.》

와락 안해를 껴안은 구돌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마오. 난 사실 당신 몸이 그런줄 몰랐소. 정말 미련한 놈이요.》

《아니예요, 눈이 바로 배긴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제 몸은 아직...

제 고향에 하나라도 더 좋은걸 가져다 퍼치겠다는 마음을 지닌 서방님 같은 사람만이 제 집 식솔도 위할수 있고 마을에도 나아가서는 나라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거예요.

나도 고수종자를 받아가지고 집집들에 나누어주려는 서방님을 돕겠어요.》

그 말이 구돌이의 가슴을 찡 울려주었다.

《고맙네.》

《서방님.》

이듬해 봄, 구돌이네 랑주는 잘 여문 고수종자를 따서 온 마을에 나누어주면서 고수로 김치를 담그어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이로써 온 마을이 그 맛도 별맛이고 약효도 좋은 고수김치를 먹을수 있었다.

아직은 누구도 알지 못하던 고수김치를 해먹는 마을사람들

은 이런 일은 새것에 민감한 구돌이만이 해낼수 있다며 그를 칭찬해마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포땅에 새것에 민감하여 공을 이룬 구돌이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였고 온 마을이 고수김치를 담그어 먹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기게 되었다.

전 철 호

초년고생을 달게 여기라

조선봉건왕조중엽 황해도 배천고을에서 있는 일이다.

배천읍에서 남으로 황교천을 건너 반마장가랑 가느라면 별방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앞으로는 넓은 논벌을 안고 뒤에는 나지막한 언덕을 낀 마을이 나진다.

이 원골마을에 시부모를 모시고 세 시동생과 두 시누이 그리고 네 자식을 거느린 한씨녀인이 살고있었다.

아직은 새벽바람이 쌀쌀한 어느해 이른 봄날이었다.

무려 열세명이나 되는 대식술의 끼식을 맡아보는 한씨녀인은 이날도 어뜩새벽에 일어났다.

부엌으로 나선 한씨는 부지깽이부터 집어들었다.

부지깽이로 아궁속을 조심스레 헤치니 어제 저녁 더운 재로 꼭꼭 묻어둔 불씨가 《밤새 안녕하셨나요.》 하고 반기는듯 새빨간 자태를 드러내는것이였다.

그 모양에 한씨의 얼굴에 고운 웃음이 피여올랐다.

시집살이 10여년에 어느 하루도 불씨를 죽여본 일 없는 한씨였다.

한씨가 불씨를 잘 살려두는데는 남다른 묘방이 있었다.

늦저녁마다 아궁에 마른 삭정이 두어줌을 넣고 태운 불씨를 좀 두드리지게 모아쌓고 그우에 더운 재를 두툼하게 덮되 꼭꼭 눌러두는것이 그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묘방이였다.

한두해도 아니고 무려 십여년이나 어느 한번도 불씨를 얻으려고 남의 집대문을 두드려본적 없는 한씨를 가리켜 마을사람들은 《복있는 한씨》라고 칭찬하였다.

아궁에 불을 지핀 한씨의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제 며칠 있으면 청명이다.

원골마을에서는 해마다 청명날에 불씨를 나누어주고있는데 마을로인들의 추천으로 지난해부터 한씨가 그 일을 맡아하고 있었다.

(내가 정말 온 마을에 불씨를 나누어줄만큼 복이 있을가.)

이윽고 한씨는 아궁의 불로 광솔불을 켜다.

광솔불에 한씨의 자태가 드러났다.

서른살을 갓 넘긴 한씨는 키도 쭉 빠지고 날씬한 몸매에 얼굴도 곱сал했다. 보다는 처녀시절처럼 생기가 넘치는 한씨였다.

쌀바가지를 찾아든 한씨는 호— 하고 한숨을 내뿜었다.

쌀바가지만 들면 농량근심에 손이 떨린다.

식구가 많은데다 남의 땅을 얻어부치는 가난한 농사꾼집인 까닭에 늘 농량에 쪼들려 사는 한씨네이다.

더우기 요즘은 밥술이나 먹던 집들에서도 농량이 바닥났다고 우는소리를 하는 춘궁기이니 한씨네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한씨는 부자집에서는 집짐승에게 먹이로나 던져주는 시래기까지도 음식감으로 귀히 여기는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래기마저 떨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막막해보였다.

근심속에 밤새 물에 불구어두었던 시래기를 썰어 가마에 넣

고 얼마간의 좁쌀을 일어안친 한씨가 아궁에 숯가리를 밀어넣으니 좀 있어 더운 김이 뿜어올랐다.

아침해가 떠오를무렵 그맘때면 꼭꼭 그러했듯 이날도 한씨는 어김없이 밥상을 차려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래목에서 겸상을, 가운데의 큰상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들, 시누이들이 그리고 맨 웃목의 작은 상에는 네 자식을 거느리고 한씨가 자리를 잡았다.

볼이 미여지게 시래기밥을 퍼먹는 두벌자식들을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자기의 밥사발을 들고 일어섰다.

《내겐 밥이 지내 많아.》 하더니 시아버지는 벌써 반나마 퍼먹은 말손자의 밥사발에 자기의 밥을 푹 덜어주었다.

그것이 민망해서 한씨가 얼굴을 붉혔다.

《아버님, 매번 그러시면 애들 버릇 굳히오이다.》

허나 시아버지는 흡족해할뿐이었다.

《아니야, 그 말은 옳지 않다. 난 손자들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지고 막 힘이 난다.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장손인데 누구보다도 글공부도 크게 시켜야 할게 아니냐. 글공부란게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닌데 시래기밥이나마 배불리 먹여야 해.》

시아버지가 제자리로 돌아가 앉으니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덜어주었다.

한씨가 너무도 송구스러워 눈길을 허둥거리는데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나에겐 지금처럼 기쁜 때가 없었다. 어제 서당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인즉 내 집 장손이 신동이라나.

개천에서 룡이 났대. 글썸, 우리 장손이 글눈이 어찌나도 밝은지 글 한자를 배워주면 스스로 또 한자를 깨친다는거다. 난 고무래 놓고도 고무래 정(丁)자를 모르는 까막눈인데 손자대에 글재간이 뛰어난 자식이 나왔으니 우리 집안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데 있겠느냐.》

한씨는 서당선생이 고마와 눈굽이 축축해졌다.

몇해전 마을로인들은 자손들을 위해 마을에 서당을 내오기로 의논하고 례성강건너의 송도에까지 사람을 보내여 선생을 물색하였다.

일이 되느라고 화담 서경덕선생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는 젊은이가 꽤히 응해나섰다.

화담선생의 제자가 온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경사가 났다고 기뻐하였다.

아무리 시골사람들이라고 하여도 온 나라가 다 아는 대학자 화담을 모를리 없었다.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화담은 한생을 후진을 키우는 일에 바치였을뿐 아니라 세계의 시원은 기(물질적인)이며 기는 음과 양의 호상작용으로 변화발전은 하나 그 존재자체는 불멸하다는 새로운 학설을 내놓아 세상을 경탄시킨 천하명사였다.

하기에 그는 이웃나라들에서도 성현이라 떠받들리고있었다.

이런 큰 학자의 제자가 서당선생으로 나섰으니 원골마을이 복을 받은셈이었다.

서당문은 열자마자 사람들의 호평이 대단했다.

과연 화담선생의 제자가 달랐다.

낮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마을사람들에게

조선의 력사와 지리, 풍습과 인물을 배워주는데 구수한 그의 구변술에 얼마나 마음들이 끌리었으면 이웃마을들은 물론 십리, 이십리나 되는 마을들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와 마당에도 명석을 펴야 했다.

한씨도 서당을 찾는 그들중의 한사람이었다.

천만대적이 그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고구려의 을지문덕, 연개소문, 고려의 강감찬과 같은 애국명장들의 이야기는 두눈에 흠이 들어가도 잊지 못할것이다.

그런 선생이 아들을 칭찬했다니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데 있으랴.

《난 우리 장손을 앞으로 구실아치가 되어 제살궁리나 하라고 서당에 보내는건 아니다. 서당선생님이 말했지.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애써 배우면 장영실이라는 사람처럼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할수 있다고.》

그 말에 한씨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우리 아이들도 제절로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자격루(자동물시계)라는 신기한 물건을 만들어냈다는 장영실과 같은 인재가 된다면 무얼 더 바라겠는가.

《명장의 술하에는 약줄이 없고 명사의 술하에는 둔재가 없다는데 화담선생의 두벌제자인 우리 장손이 앞으로 큰일을 치지 않나 두고봐라.

우리 고을의 최아무개는 한성에 나가 큰 선생들에게서 글을 배우더니만 술한 사람들을 휘동해서 지금껏 엄두를 내지 못했던 레성강언저리에 큰 폭을 쌓아 수백마지기의 논을 얻어냈다.

우리 장손도 그 사람만 못하지 않을게다. 난 믿는다니까.》

그 말에 감동된 한씨는 두눈을 습벅거렸다.

(두벌자식을 끔찍이 위해주는 시아버님을 모신것은 곧 나의 복이야. 그럴수록 시아버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잘해야 해.)

아침상을 물리자 곧 온 식솔이 일손을 잡았다.

시부모는 뚝자리를 치는 일에, 두 시누이는 무명냥이를 그리고 남편과 시동생들은 논갈이와 논둑가래질에 달라붙었다.

한씨는 다음 끼식을 준비하는 짬에 빨래를 하였다.

늘 일에 쫓기우는 한씨는 하루가 어떻게 저물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한씨가 저녁밥을 짓느라 아궁에 불을 때는데 맏이가 부엌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애의 손에는 낫종발만한 작은 다래끼가 들려있었다.

《엄마, 이걸 좀 잡춰보라요.》 하며 맏이가 종다래끼에서 꺼내주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도토리만한 올방개덩이줄기였다.

올방개는 논에 나오는 여러해살이풀이다.

가을이면 땅속에 달리는 검붉은 밤색의 덩이줄기가 통통해 지는데 봄에 그 맛이 제법 달콤해져서 논갈이때 아이들이 다투어 주어먹는것이 올방개이다.

아이적에 올방개를 먹어본 한씨이라 지금도 달콤한 그 맛을 잊지 않고있었다.

한씨는 머루알같이 새까만 두눈을 울롱히 뜨고 올방개를 내미는 맏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끼식전이면 어서 먹을것을 내라고 찌드러기를 부릴 나이의

어린 자식이 벌써 부모를 생각하다니...

《기특하기란...》

한씨는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여 올방개를 받아들였다.

한씨가 올방개를 맛스럽게 먹자 만이가 사기가 나서 말했다.

《엄마, 오늘 우리 선생님이 화담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나이다. 화담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살림이 구차해서 늘 나물을 뜯으러 다녔대요. 큰 학자가 되어서도 쌀독에는 먼지가 앉고 끼니를 번지는 날이 많았대요. 선생님말씀이 화담선생처럼 고생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겨레를 위해 의로운 일을 할수 있다고 했나이다.》

한씨가 활짝 웃었다.

요즘 만이의 식견이 날로 트이는것이 알렸다.

훌륭한 선생을 모셔왔으니 어련할라구.

만이가 환하게 웃는 한씨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 선생님말씀이 만일 화담선생이 호의호식하며 자랐다면 절대로 큰 학자가 될수 없었을거래요. 나물을 보태지 않으면 배를 곱아야 하니 그때문에 어린 나이에 광주리를 안고 산으로, 들로 다닌 까닭에 하늘을 나는 새에 흥미가 끌리였고 결국은 세상리치를 깨치였다고 하오이다.

엄마도 <초년고생은 량식지고 다니며 한다.>는 말을 알겠지요?》

만이가 하는 말에 심취되었던 한씨는 저으기 놀라왔다.

(어린게 벌써 그런 말까지?...)

인차 한씨는 만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싶은 마음에 짐짓 모르는체하였다.

《글쎄, 이 에민 모르겠구나. 네가 알면 대주렴.》

말이가 빠기듯 어깨를 으쓱거렸다.

《선생님말씀이 사람은 어려서 배고픈 고생, 추운 고생을 겪으며 부모님과 형제, 마을사람들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하여는 마음을 키우고 몸을 단련할 때라야 큰일을 할수 있대요.

그래서 초년고생을 달게 여기라는 그런 말이 생겼다 하오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난 부자집아이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우리 집은 시래기조차도 부족해서 엄마는 늘 끼식걱정에 속을 태우지만 난 초년고생을 달게 여기고 화담선생을 따라배워 앞으로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주는 큰일을 해내겠어요.》

종주먹을 불끈 쥐고 열변을 토하는 말이앞에 감동된 한씨는 목메여 말했다.

《네 말이 옳다. 네 말그대로 초년고생을 달게 여기고 열심히 배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주는 큰일을 해내거라.》

이튿날도 한씨는 식솔많은 집안의 부엌일을 돌보느라 언제 날이 어두워졌는지 알수 없었다.

저녁밥을 짓느라 쌀을 이는데 말이가 또 부엌문을 열고 들어서는것이였다.

《엄마, 송아지가 내가 뜯어온 햇풀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사기가 나서 쳐다보는 말이를 정겨운 눈길로 굽어보며 한씨가 허를 찼다.

《원 자식두, 기특하기란...》

오늘 시아버지는 반작소를 한다면 이웃마을에서 애송아지 한마리를 가져왔다.

애송아지가 황소가 되면 팔아 송아지값을 제끼고 남은 돈을 송아지임자와 절반씩 나누어가지는것이 반작소이다.

시아버지는 장손이 서당을 마치고 송도나 해주로 내보내 글공부를 더 시키려면 미리 돈을 장만해야 한다면 송아지를 가져온것이였다.

아궁앞에 쭈그리고 앉으며 말이가 말했다.

《난 하루공부를 마치면 꼭꼭 풀을 뜯어다 송아지를 먹이겠어요.

송아지가 황소가 되면 내가 논밭을 썩썩 갈아제껴서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나이다.》

그 말에 한씨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반작소가 도리어 자식의 글공부에 해를 끼치는게 아닐가.

한씨가 엄하게 입을 열었다.

《넌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던 다짐을 벌써 저버린게 아니냐?》

말이가 두눈을 동그랗게 뜨며 한씨를 쳐다보았다.

《내가 어떻게 그 다짐을 저버리겠나요?》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소소한 일일까지 마음을 쓰는거냐? 난 집일에는 상관말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심해라. 그래야 이다음에 큰사람이 되어 할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릴수 있느니라.》

말이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세를 올렸다.

《우리 선생님이 이르시기를 글뉘주나 글바보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을 도와 힘든 일도

해보며 배운 지식을 써먹어야 한댔어요.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초년고생을 달게 여기는것이 아니겠소이까.》

그만에야 한씨는 말문이 막히었다.

(아, 이 아이의 가슴에 초년고생을 달게 여기겠다는 마음이 깊이 뿌리를 내렸구나.)

말이의 언행이 날로 어른스러워지는것이 대견했지만 먹일 근심으로 불한숨이 나가는 한씨였다.

인차 시래기마저 떨어지면 배를 더 굶리겠는데...

며칠이 지나 청명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성묘에 쓰일 음식도 마련해야 하고 불씨를 나누어줄 차비도 해야 하는 한씨는 아침부터 눈코뜰새없이 바빴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우는데 둘째를 뒤에 단 만이가 부엌으로 들어섰다.

둘째가 만이가 멘 다래끼를 한씨에게 가리켜보이며 빼기였다.

《엄마, 이안에 뭐가 있는줄 아나?》

다래끼를 들여다보던 한씨가 혀를 찼다.

다래끼에는 저가락만한 통통하게 살진 하얀 메뿌리가 반나마 차있었다.

시골사람치고 이런 메뿌리라야 달고 즈도 많다는것을 모를 사람이 없었다.

《나와 형이 밭에서 켜다. 엄마, 맛 좀 보소이다.》

둘째가 내미는 메뿌리를 입에 넣은 한씨가 함뱉 웃음을 지었다.

달착지근한 그 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맛이 좋구나.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탈이 난단다.》

다래끼를 내려놓은 만이가 한씨를 간절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엄마, 이걸루 메밥을 지을수 없나요?》

한씨는 놀란 눈으로 만이를 마주 바라보았다.

메밥이라니?!...

그런 말은 듣느니 첫소리였다.

《엄마,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화담선생님은 배가 고플때면 이런 메뿌리를 캐서 구워자셨대요. 메를 구워먹으면 탈도 나지 않고 근기도 있대요.

선생님말씀대로 구워먹었더니 구운 둥굴레처럼 맛이 좋았소이다.

구운 메를 먹느라니 이걸루 메밥을 지어먹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소이다. 나도 시래기가 얼마 남지 않아 엄마가 더 근심한다는걸 알아요. 메를 섞어 밥을 지으면 맛도 좋고 식량보탬도 될게 아니나요.》

그 말이 한씨의 심금을 쳤다.

(쑥으로도 범벅밥을 해먹는데 메라고 안될가. 무엇이나 처음에는 신기하고 안될것같지만 해보면 단순하고 손쉬운것이 오죽이나 많은가.)

감동된 한씨는 와락 만이를 품에 껴안았다.

《네가 공부를 헛하지 않는구나. 선생님말씀을 귀담아듣더니 어른들도 생각지 못하는걸 해냈구나. 장하다, 장해. 식량보탬을 하겠다는 네 마음도 가늠하다. 자, 우리 함께 메밥을 지어보자꾸나.》

아이들은 사기가 나서 환성을 질렀다.

부엌에 흥바람이 났다.

두 아이는 아궁에 불을 때고 한씨는 가마에 쌀을 안치였다.

나물밥을 많이 해본 한씨는 메를 가지고 밥을 맛있게 지을 수 있는 궁냥을 어렵지 않게 해냈다.

한씨는 가마가 끓기 시작할 때 가마뚜껑을 열어놓고 깨끗하게 씻은 메뿌리를 한되박 쯤쌀우에 얹어놓았다.

가마뚜껑을 덮어두고 조금 있느라니 메가 익는 싱그러운 냄새가 기분 좋게 풍기었다.

냄새를 맡아보아도 메밥이 맛있을것같았다.

인차 뜬이 들자 가마뚜껑을 연 한씨는 잘 익은 메를 숟가락으로 뜨기 좋게 부스러뜨리면서 주걱으로 밥을 고루 저었다.

그다음 두개의 그릇에 한주걱씩 메밥을 퍼담았다.

《애들아, 메밥이 어떤지 맛들을 보렴.》

아이들이 저마다 밥그릇을 안아들더니 불이 미여지게 밥을 떠넣었다.

그러던 말이가 벅글 웃으며 밥을 한숟갈 떠서 내밀었다.

《참, 별맛이에요. 시래기밥은 댈것도 없고 맨 쯤쌀밥보다도 더 맛이 좋다니까요. 엄마도 어서요.》

한씨는 말이가 떠준 메밥을 받아먹었다. 들척지근하면서도 구수한것이 잡곡밥을 먹을 때보다도 그 맛이 얼싸하였다.

삶은 메를 씹을 때 느끼는 맛은 꿀맛같았다. 더불어 상스러운 향기는 나물밥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과연 별식이라 하겠다.》

말이가 함뻑 웃음을 짓는 한씨를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래일 새벽 집집들에 불씨를 나누어주면서 그 집 엄마들에게 메밥을 맛보게 하는것이 어떻겠나요?》

그 말에 한씨는 머리가 핑 도는것같았다.

(이 아이가 정녕 내 아들이란 말인가. 아이가 어쩌면 어른스러울가. 그제 다 서당선생님이 아이들의 작은 가슴에 의로운 뜻을 심어주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감격에 북받친 한씨가 말이의 손을 꼭 그르쥐었다.

《그래그래, 선생님에게도 대접하자꾸나.》

《엄마, 메는 내가 얼마든지 캐오겠으니 끼식걱정을 너무하지 마소이다.》

다음날로 메밥이 꿀맛이라는 소문이 마을에 짹 퍼졌다.

그 소문에 너도나도 메를 캐여다 메밥을 해먹었다.

그것이 가난한 집들의 식량보탬에 이바지하니 마을사람들은 한씨의 만이를 가리켜 《춘궁기의 은동》이라고 불렀다.

마을이 생겨 봄철기근에 은혜를 입힌 아이라는 찬사를 받은 사람은 한씨의 만이가 처음이었다.

그후 초년고생을 달게 여기며 마을사람들을 위해 애쓴 한씨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황해도일대에 전설처럼 널리 퍼지게 되었다.

전 철 호

박 판 춤

조선봉건왕조말엽 북성귀라고 하는 개성의 등산놀이에서 있는 일이다.

개성과 남쪽으로 이웃한 풍덕고을의 옥상동마을에서 신새벽에 떠나온 한무리의 사람들이 오관산을 가까이하고있었다.

남녀로소로 이루어진 이 행렬을 마을사람들의 신망을 모은 농계 계장 성남이 거느리고있었다.

오관산을 감돌아내리는 화곡천을 따라 그결에서 뻗어나간 큰 길로 일행을 이끄는 성남은 자못 흐뭇한 기분이였다.

정오전으로 오관산의 령통골로 들어서자던 일정대로 되여가는셈이였다.

점심은 오관산 뒤골안의 수려한 계곡을 타고내리는 개울옆에서 먹고 그다음 할딱고개를 넘어 대흥산성의 남문으로 입성하면 해지기 전으로 박연폭포를 볼수가 있다.

폭포골에서 저녁을 지어먹고 거기에서 풍막을 치고 쉰 다음 래일은 산성안의 명소들을 돌아보고 모레 아침에 귀로에 오르면 이해의 북성귀놀이도 잘했다고 할것이다.

성남은 아이들도 따를수 있도록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신록이 한껏 짙어오른 여름철의 잎새무성한 숲의 전경은 모내기로 애를 태웠던 마음을 삽시에 상쾌해지도록 하는것같

았다.

이해의 모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례년에 보기 드문 왕가물이 들이닥치는통에 하마트면 모내기를 망칠번하였다.

그런걸 봄내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며 마을사람들을 이끌어 개울물이 새어나갈세라 보막이도 하고 우물도 파서 물을 대였기에 모내기를 해낼수 있었다.

고생끝에 락이라고 고생스레 모내기를 끝내고 북성귀에 올랐으니 그래서 더 즐겁다는것이다.

개성일대에 태를 묻은 사람치고 예로부터 해오는 북성귀놀이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것이다.

박연폭포를 비롯한 명소들이 개성북쪽에 자리잡고있다 하여 그 일대를 돌아보는 등산놀이를 북성귀라고 하는데 이 고장에서 그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웅건하고 아름다운 천마산으로 오르면서 몸도 단련하고 선조들의 자욱이 어려있는 명소들을 돌아볼 때면 누구나 금수강산에서 태어난 자부심으로 가슴이 뿌듯해진다고들 말한다.

지금 일행이 들어서고있는 령통골도 수많은 명소중의 하나인데 경치도 볼만하지만 이곳에 우뚝 솟은 고색질은 령통사람들의 웅장함에 감탄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탐들만이 남아있는 넓은 터의 령통사가 고려때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었다더라면 세상의 자랑거리로 모두가 칭찬해마지 않았으리라.

이런 생각에 성남은 걸음걸음이 신바람났다.

령통골을 지나치자 산길은 보다 가파롭고 험했다. 허나 보

이는것마다가 절경이라 힘든줄 몰랐다.

참개구리바위앞에 이른 성남은 제홀로 벌썩벌썩 웃었다.

다른 고장에 살던 욕심쟁이 참개구리가 만가지 소원을 풀어준다는 오관산의 쓰개바위를 제집으로 흠쳐가려 왔다가 하늘신의 벌을 받아 억대바위로 굳어져버렸다는 참개구리바위의 모양새가 논판에 흔한 참개구리와 너무나도 신통하기때문이였다.

《정말 멋있어.》 하고 중얼거리던 성남은 뒤를 돌아보았다.

200명이 잘되는 일행의 모습도 볼수록 대단했다.

어른들의 잔등에 업혀오는 아이들, 지팡이를 내짚으며 사방을 두리번두리번하는 늙은이들, 짐을 이고진 젊은 녀인들과 남정들 그리고 짐바리를 등에 진 황소들로 장사진을 이룬 일행은 출전길에 오른 군사들의 행렬 못지 않게 구경할 멋이 있었다.

마을사람들의 뒤에 어느 마을인지 알수 없는 인파가 꼬리를 물었다.

그들속에 하늘소를 탄 사람들이 있었다. 갓을 쓴걸 보아 틀림없는 량반자들이였다. 그것들을 보느라니 량반자들이 명산에 와서까지 심술을 부릴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때 일행을 돌보는 소임을 맡은 삼득이 달려와 불부은 소리를 하였다.

《제장형님, 이거 화가 동해서 일을 못해먹겠수다.》

쩍하면 울퉁뼉을 부리는 삼득을 바라보며 성남이 웃었다.

삼득은 감때사나와보이지만 실은 인정도 많고 의협심도 강했다.

게다가 풍덕일판에 《옥상동장수》로 소문난 씨름꾼이다.

그는 상대의 다리를 옆으로 쳐서 쓰러뜨리는 판죽의 능수로서 씨름만 잘하는게 아니고 택견에도 뛰어난 재간이 있었다.

성남은 주먹코를 벽 문지르며 씹씩대는 삼득이에게 두눈을 깜빡해보였다.

《오늘 같은 즐거운 날에 통통증을 부려서야 쓰나.》

《통통증을 부리지 않게 됐수. 나중엔 남의 집 새색시까지 말썽을 부리니... 아, 글썽 느티나무집 새며느리도 그렇고 보산이 그녀석의 색시랑 꼬리치마에 나막신을 신고 왔으니 그게 어디 산놀이를 하겠다는것이우. 얼뱅이같은것들.》

삼득이의 불평에 성남이 껄껄 웃었다.

이해 정초에 마을에서 여러명이 장가를 갔는데 약속이나 한듯 모두가 배천교을에서 색시들을 데려왔다.

그게 다 몇해전 배천에서 시집온 녀인이 중매를 섰기때문이었다.

배천내기 색시들이 난생처음 북성귀놀이를 간다니까 도회지구경으로 여긴 모양이었다.

성남이 삼득이의 실박한 어깨를 두드렸다.

《이보라구, 얼뱅이는 새색시들이 아니고 신랑쟁이 그녀석들일세.

그녀석들이 북성귀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차근차근 알려주었더라면 그런 차림을 했을게 뭐가. 내 그럴것같아서 소바리에 짚신보따리도 실게 했으니 거기서 맞춤형것들을 골라 신기게.》

삼득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형님의 선견지명에는 귀신도 탄복하겠다니까요.》

삼득이 뒤에 오는 황소를 향해 돌아서 달리였다.

너럭바위들이 널려있는 개울가에 이른 성남이 일행을 향해 소리쳤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갑시다.》

인차 마을사람들이 너럭바위들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었다.

너럭바위들은 하나같이 대청마루와도 같은데다 개울물을 끼고있어 배를 타고 강산구경을 하는 기분이었다.

성남이 즐거워하는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며 기뻐하는데 가까이에서 《량반 행차시다, 길 비켜라.》 하고 고아대는 벽제소리가 울리였다.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니 기생들과 어울려 하늘소를 탄 량반자들이 힘개나 씹직해보이는 사령녀석들을 앞세우고 올라오고있었다.

어서 길옆으로 비켜서지 못한다고 백성들을 차고 떠밀치는 사령녀석들의 못된짓에 성남의 눈살이 대바람 꾹꾹해졌다.

여기야 큰길도 아니고 더우기 명산인데 이런데까지 와서도 저런 꼴을 부려야 한단 말인가.

성남이 쓴입을 다시는데 하늘소에 올라앉은 돼지처럼 생긴 량반이 마을사람들이 둘러앉은 너럭바위들을 가리켰다.

《얘들아, 여기서 쉬어가자.》

그러자 사령녀석들이 옥상동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야단쳤다.

《빨리빨리 사라지란 말이다.》

그에 얼마나 놀랐던지 너럭바위에서 굴러떨어지는 사람도 있

었다.

그때문에 성이 난 삼득이 사령들에게 언덕눈질을 하며 대들었다.

《이보시우, 하많은 자리를 두고 우리를 쫓아내는건 무슨 놈의 심보요?》

허우대가 큰 사령녀석이 삼득의 코밑에까지 주먹을 들이대며 소리쳤다.

《너 이놈, 눈망울이라도 썩어 문드러졌느냐. 어데 가나 제일 좋은 자리는 량반어르신 의 차지인줄 몰라?》

량반이란 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는 삼득이라 그 말에 분통을 터뜨렸다.

《에익 더럽다. 개 한마리 팔아도 두냥반은 받는데 량반이 뭐 잘났다고 자리를 내준단 말이야?》

사령녀석들이 당장 사람을 칠 기세로 삼득이를 에워쌌다.

싸움을 말려야 한다는 생각에 성남이 사령들을 막으며 삼득이에게 일렀다.

《이 사람, 그게 뭔가? 명산구경을 왔으면 공손하게 굴어야지 무슨 뺨인가.》

이어 마을사람들에게도 소리쳤다.

《여긴 어서 내주고 우린 삼사십보 우로 올라가 점심을 먹자구요.》

마을사람들이 쓰거운 침묵속에 자리를 내여주자 기고만장해진 사령들이 한마디씩 내뱉었다.

《촌것들은 아래웃럭도 모른단 말이야.》

《농군들이 산천구경이라니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라.》

성남이 불끈 틀어쥐는 삼득이의 주먹을 부여잡았다.

《구린내가 나는걸 무서워서 피하나? 마을사람들을 생각해
서라도 오늘만은 참아야 하네.》

너럭바위에 기여오른 량반자들은 기생들을 끼고 소고기를 굽
는 불판에 둘러앉아 권주가를 불려댔다.

그 꼴에 눈에 가시가 돋힌 성남은 애써 분기를 누르고 로
인들에게 음식을 권했다.

점심을 치른 마을사람들은 길옆의 공지에서 춤판을 펼치
였다.

젊은이들이 장고와 썰과리를 치며 타령을 불렀다면 젊은이
들은 노래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

남난 달에 나도 나고

남난 날에 나도 나고

남들과 꼭같이 태어났건만

...

얼씨구 좋다 좋을시구

...

삼득이도 춤판에 뛰어들고 북을 안은 성남이도 북잡이군의
숨씨를 보이느라고 멋들어지게 북채를 휘둘렀다.

그때 갑자기 울리는 돼지먹파는듯한 고함소리에 모두가 놀
랐다.

《야, 이 상것들아, 상스러운 놀음을 당장 걷어치우지 못

할가?)》

성남이 뒤를 돌아보니 량반들의 개노릇을 하는 사령놈들이 주먹질을 하고있었다.

《이 촌벌레들아, 량반어르신네의 눈앞에서 흥이나 깨지 말고 썩 사라져라.》

흥겨웠던 춤판이 깨지고말았다.

그때 새색시들한테서 받아두었던 나막신을 꺼내든 삼득이 사령놈들을 쏘아보며 그것들을 맞때렸다.

딱딱딱딱—

삼득이 사령놈들에게 차마 손을 대지는 못하고 그 분풀이로 량손에 나막신을 들고 맞때리는것이였다.

그러자 사령놈들도 량반놈들도 나막신이 제 상판에 날아들기라도 한듯 흠칫흠칫 몸을 떨었다.

두눈을 무섭게 지릅뜬 삼득이 더 힘껏 나막신을 맞때리며 소리쳤다.

《저절씨구 좋다. 우리모두 즐거웁게 손벽치며 춤을 춥시다. 좋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나막신을 맞때리는 삼득이에게 허우대큰 사령이 비웃음을 지으며 다가들었다.

삼득이 그놈을 후려칠 기세로 나막신을 맞때렸다.

딱딱—

성남은 삼득이 나막신을 맞때릴 때마다 량반놈들이 겁에 질려 몸을 떨어대는것을 푹푹히 보았다. 그것들에게는 성난 삼득이 제놈들의 불기작을 치는것으로 느껴지는 모양이였다.

저 량반들이 어떤 놈들인가.

왜적이 이 나라 강산을 호시탐탐 노리고있을 때도 그에는
아랑곳도 않고 오로지 백성들의 재물을 앗아내는짓에 피눈이
되어 돌아치던 놈들이 량반들이다.

강물이 노하면 배를 뒤엎는다.

허우대큰 사령이 삼득에게 샷대질을 해댔다.

《이 촌놈이 하루강아지처럼 범 무서운줄 모르는구나. 너
어디 내 손에 사등뼈가 부서져봐라.》

그자가 주먹질을 하려는 순간 비호같이 몸을 날린 삼득이
놈의 손목을 와락 비틀었다.

《아이쿠-》

사령놈이 당장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삼득은 놈의 손목을 그저 세차게 비틀기만 한것이 아니라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힘껏 울리훑었다.

땅을 뿌지며 단련하고 택견으로 다져진 그의 손아귀는 어찌
나도 세찬지 그렇게 훑으면 통채로 벗겨낸 족제비가죽마냥 팔
뚝의 살가죽이 훌 벗기운다.

이것도 적을 제압하는 삼득이의 장끼였다.

그 수법에 걸려든 사령놈의 살가죽이 훌렁 벗겨지고 피가
철철 흘렀다.

놈이 팔을 부여안고 울부짖는데 그 꼴에 사기가 난 아이들
이 와- 환성을 터쳤다.

《우리 마을 옥상동장사가 제일이다.》

그제서야 사령들도 량반자들도 떡메같은 주먹을 불끈 쥔 삼
득이 개성에까지 알려진 힘장사임을 알아차렸다.

이태전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패질을 하던 량반부자네의 망

나니패거리가 옥상동장사에게 걸려들어 모조리 얼죽음을 당했다는 소문이 개성에까지 짹 퍼졌던것이다.

범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이런 산중에서 자기 불찰로 힘장사에게 걸려들었으니 자는 범 건드려서 화를 당하는 격이었다.

하나 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나이먹은 량반자는 제깃놈이 아무리 힘꼴이나 쓴다고 해도 룡모방망이를 가진 사령들을 당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악청을 돋구었다.

《여봐라, 저 무지렁이 백성놈이 힘자랑을 하는데 버릇을 가르쳐야겠다. 죽어도 좋으니 매우 쳐라.》

량반자의 부추김에 기세가 오른 사령들이 허리에 찼던 룡모방망이를 뽑아들었다.

개성골목에서는 누구도 당할수 없는 싸움대장들이 사령이라 그들은 와— 소리를 지르며 삼득이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옥상동사람모두가 손에 닥치는대로 물건을 집어드는 데 식칼든 녀인도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서 삼득이 멍хма냥 좌충우돌하는데 이런 때 썩먹자고 마음먹고 배운 택전이니 그 위력이 대단했다.

게다가 아이들까지도 나막신을 맞때리며 응원하니 량반자의 두눈이 희뜩 뒤집혔다.

삼득이만 죽치면 겁에 질린 백성들이 이마를 땅바닥에 조아리며 버릇없이 군걸 용서해달라고 애걸할줄 알았는데 그와는 영 판판이니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량반자였다.

버릇대로 백성놈을 한대 쥐여박은것이 민란으로 번져질수도 있다고 이게 대판싸움으로 된다면 민란을 터지게 한 장본인으

로 몰려 벌을 받기 전에 무지렁이들의 무지스러운 발길질에 채워 잘못될게 아닌가.

그러니 살구멍수는 이 자리에서 냉큼 내빼는거다.

《어서 빠지자. 어서!—》 하고 중얼대며 량반자는 허겁지겁 하늘소에게로 뛰어갔다.

다급히 하늘소에 올라앉으려던 량반자는 헤덤벼치던 나머지 그만 헛발질에 나자빠졌다.

땅바닥에 나자빠진 량반자는 제가 실수해서 넘어진줄은 모르고 《아이쿠, 상놈들이 손찌검을 하는구나.》 하고 울부짖으며 죽기내기로 하늘소에 매여달렸다.

그를 따라 량반자들이 먼저 도망치니 옥상동백성들에게 얻어맞던 사령놈들도 저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꿈무니를 돌려댔다.

할딱고개쪽으로가 아니라 온 길로 되돌아 내빼는 량반놈들이나 그것들의 꿈무니를 헐레벌떡 뒤따르는 사령놈들이나 참으로 꼴불견이었다.

그놈들의 꼬락서니에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십년 묵은 체증이 푹 떨어진듯 가슴이 후련해진 성남이 목청을 돋구었다.

《기분도 좋겠다 또 가봅시다.》

그날 밤 폭포골의 천막에 든 성남은 낮에 있던 일이 새록새록 안겨와 잠들수 없었다.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마저 잠잠해졌건만 성남이의 생각은 바닥없이 깊어만졌다.

지금껏 량반놈들앞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에게

오늘처럼 통쾌한 날이 있었던가.

이놈의 세상이 가난한 백성들은 짓밟혀 살아야 하는 량반의 세상이라지만 명산에 와서까지 굶혀살수는 없다.

명산이 량반의것이라고 정해놓은 법도 없고 가난한 백성은 산천구경을 할수 없다는 법도 없다.

그러니 명산에 왔으면 량반놈들이 배가 아프게 보란듯이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겨야 한다.

성남은 마을사람들이 나막신을 맞때릴 때마다 몸을 떨던 량반놈들의 몰골을 그려보았다.

죄진 놈 겁부터 먹는다고 명산이 제것인듯 백성들을 쫓아내다 못해 흥겨운 춤판마저 깨버렸으니 그럴수밖에 있는가.

《두번다시 그런 놈들과 맞다들린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테다.》

이를 갈던 성남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앉았다.

꼴사납게 놀아대는 량반놈들에게 춤으로도 꼴탕먹일수 있지 않은가.

농악무의 능수인 성남의 머리속에는 힘있는 춤으로 량반놈들을 몸서리치게 할수 있는 궁냥이 짝 차있었다.

《일은 만들어 할탓이라 당장 해보자.》

손도끼를 찾아든 성남은 풍막을 나섰다.

하늘에 반달이나마 걸려있어 그런대로 앞을 가려볼수 있었다.

성남은 천막에서 좀 멀리 떨어진 개울옆에서 중도리만큼 굽은 나무가지를 베어냈다.

나무가지를 반뿔길이로 토막을 내고 줍안에 드는 박판을 수

십개 만들고나니 먼동이 터왔다.

하지만 이것으로 못된 량반부자놈들을 후려칠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도 피곤한줄을 몰랐다.

《이제 곧 백성들의 본때를 보여줄레다.》

아침밥을 치르기 바쁘게 젊은이들을 시원한 나무그늘로 불러낸 성남은 매 사람들에게 한쌍의 박판을 들려주며 새로 궁냥해낸 춤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춤안에 드는 박판을 량손에 하나씩 쥐고 어제 삼득이가 나막신을 맞때리듯 딱딱 소리가 나게 하면서 춤을 추되 바로 거기에 량반놈들의 귀뺨을 후려치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하자 젊은이들은 기세가 나서 으윽했다.

인차 장쾌한 폭포가 쉬임없이 지심을 치는 고모담앞의 모래불에서 옥상동사람들의 춤판이 펼쳐졌다.

삼득이네들이 춤을 추며 지화자를 소리치니 늙은이들은 그 에 화답하여 타령을 건드려지게 뿔었다.

...

무정세월 가지 말아

아까운 청춘 다 늙어간다

얼씨구 좋다 좋을시구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에 질세라 장고며 썰과리들이 멋스럽게 울리고 남녀가 어울려 굴신좋은 춤가락으로 흥치를 돈구었다.

...

더러운 세상의 일을
잊어버리고말자는구나
얼씨구 좋다 좋을시구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원을 짓고 쌍쌍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던 사내들이 발장단을
치더니 불쑥 랑손에 쥐고있던 박판을 힘껏 맞때린다.

딱딱딱딱—

삼득이네들의 랑손에서 그칠새없이 일어나는 박판소리는 폭
포소리와 어울려 보다 춤판을 고조시켰다.

정녕 그 춤은 지금껏 보지 못한 패기있고 기백이 넘치는 새
로운 춤이라 할수 있었다.

북성귀놀이에 온 다른 마을사람들이 새롭고 이채로운 옥상
동사람들의 춤판에 마음이 끌려 어깨담을 치었다.

이로써 폭포골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딱딱딱딱—

씩씩하게 춤가락을 뽑으면서 박판을 맞때리던 삼득이네들이
이번에는 박판으로 제 가슴을 치면서 열을 올렸다.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개팔아 두 량반을 쳐라!—》

《좋지!》

《백성의 피땀으로 살진 개만도 못한것들을 쳐라!—》

《좋지!》

춤꾼들이 보기만 해도 꼴사납고 역스러운 량반부자들의 상
통을 후려갈기는 심정으로 박판을 맞때린다는것을 알아차린
구경꾼들이 그에 격동되어 춤판에 뛰어들었다.

...

달밝고 기러기 울면
천만수십이 다 물려오네
얼씨구 좋다 좋을시구
아니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딱딱딱딱—

폭포골을 뒤흔드는 춤판은 해가 높이 떠오를수록 보다 성
황을 이루었다.

라줄, 아전패를 달고 기생들과 함께 이곳에 나타난 량반들
의 두눈이 금시 화등잔같아졌다.

폭포골이 좁다하게 펼쳐진 이런 큰 춤판도 처음 보거니와
딱딱 소리를 내며 추는 춤은 희한하기 그지없었다.

기생들이 손벽을 치며 참말 기차다고 허를 차는데 량반들은
곧 등골이 서늘해져서 몸을 떨었다.

자기를 량반들을 바라보는 춤꾼들의 눈길이 하나같이 사납
고 박판을 맞때릴 때마다 《쳐라 쳐!—》 하고 웨쳐대는 기세
는 당장 달려들어 후려칠것만 같았다.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개팔아 두 량반을 쳐라!—》

《좋지!》

《백성의 피땀으로 살진 개만도 못한것들을 쳐라!—》

《좋지!》

그만에야 폭포골에 펼쳐진 춤판이 어떤 춤판인지 알아차린
량반들은 겁에 질려 뒤걸음을 쳤다.

딱딱딱딱—

제놈들의 상판으로 무수한 된주먹들이 날아들것만 같은 느낌에 질겁한 량반들은 폭포구경이고 뭐고 다 건어치우고 줄행랑을 놓았다.

이 춤은 곧 박판춤이라 불리우면서 개성일대에 널리 보급되었다.

박판춤이 나오자마자 날개를 편듯 널리 보급된것은 몹쓸 량반부자들을 후려갈기는 백성들의 통쾌한 심정이 담겨져있기때문이었다.

북성귀놀이와 여러 민속명절날들에 백성들이 모여들어 박판춤을 펼칠 때면 멋모르고 구경하던 량반족속들이 황급히 꼬리를 사리게 함으로써 더더욱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전 철 호

단군의 넋을 불러

구월산은 건국시조인 단군이 승천하여 천궁으로 들어갔다고 전하는 유서깊은 산이며 산기슭에 자리잡은 삼성사는 예로부터 단군제사를 지내던 사당집이다.

1916년 8월 14일 밤 삼성사의 수도실(도를 닦는 방) 한가운데에 백설처럼 희디흰 무명옷을 입은 50대의 사나이가 조그마한 자개박이상을 마주하고 단정히 앉아있었다. 상우에는 문방사우가 놓여있었다.

무슨 잡념에 사로잡혔는지 굳어진듯한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기색이 력연하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하얀빛을 발산하는 초불만이 횡뎡그렁한 방안을 비쳐줄뿐 밖은 어둠의 장막이 무겁게 드리운 칠칠야밤이다.

이 암흑처럼 사나이의 마음속도 어둡고 무겁기만 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부엉이 한마리가 휘여든 소나무가지에 앉아 궁근듯한 소리로 구슬프게 울어댔다. 그 소리가 사나이의 마음을 더욱 들쭉서놓는듯하였다.

이 사나이가 바로 대중교의 교주 라철이다. 라철의 본명은 인영이고 호는 홍암이다.

오로지 국권회복의 큰뜻을 가슴속에 품고 다사다난한 길을 걸어온 라철은 지금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고있었다.

(내가 택하고 내가 걸어온 길이 과연 옳았던가. ...)

라인영이 벼슬길에 오른 시기 나라의 형편은 어지러울대로 어지러워졌다.

밖으로는 가뽀숨을 몰아쉬는 조선의 명줄을 어떻게 하나 끊어놓으려고 일본이라는 맹수가 으르렁거리며 예리한 송곳이를 드러내놓고 안으로는 이른바 조정의 권신이라는 작자들이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고있었다.

당시 라인영은 승문원의 권지부정자라는 벼슬을 지내고있었다.

승문원이라면 나라의 외교문서를 다루는 곳이고 승문원의 권지부정자라면 장원급제자들속에서도 고관대작의 자제들로 등용하던 자리였다. 그러한 벼슬에 이름없는 유학자의 자식인 라인영이 등용되었으니 그에 대한 고종황제의 총애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것은 짐작할만한 일이다.

라인영이 조정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것은 1904(갑진)년부터였다.

이해 2월에 일본이 중국 러순항에 정박하고있던 로씨야함대를 기습한것으로 말미암아 발발된 로일전쟁의 불티가 조선에로 날아왔다. 일제는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정서》를 강압적으로 체결하고 조선봉건정부의 재정관리권과 외교권을 직접틀어쥐게 되었으며 이 두장의 문건으로 하여 일제의 악명높은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

1905년 로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정적인것으로 되자 친일파들은 개털에 벼룩 끼듯 왜놈들의 사타구니에 가붙었다. 치솟는 민족적의분을 누를길 없어 모대기던 라인영은 분연히 벼

슬을 사직하고 구국운동에 나섰다.

구국의 일념으로 불타던 라인영은 행여나 하는 독립청원의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고배를 마시며 귀국하였다.

우—우— 하며 바람이 사납게 불어쳤다. 그 서슬에 나무끝에 꼭 붙어있던 몇 안되는 마른 잎사귀들이 슬픈듯, 피로운듯 바르르 떨다가 이내 못견디겠던지 향방없이 날려갔다.

온 나라가 비분에 떨고있었다.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하고 상인들은 철시를 하고 남녀로소가 거리에 밀려나와 《왜적들을 몰아내자!》, 《5적들을 처단하라!》고 웨쳐댔다. 량반선비들도 매일 궁성으로 밀려가 《상감마마, 불쌍한 창생들을 구원해주옵소서.》 하고 임금에게 상소를 하였다. 곳곳에서 500여년의 사직이 끊겼다며 순국하는 충신들의 피가 흘렀다.

《을사5조약》의 날조로 시작된 《시일야방성대곡》이 계속되고있었던것이다.

비탄속에 잠긴 라인영은 의식이 망연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무어라 할지 몰랐다.

눈물이나 흘리고 상소질이나 한다고 왜놈이나 역적들이 띠끌이라도 할텐가. 벌이 거부기잔등 쏘는 격이로다. 수닭같은 미물도 남의 수닭이 제 집마당 한구석에 들어서기만 해도 쫓아버리거늘 조정이란게 사무라이들에게 란탕질을 당하고도 뼈죽소리 한마디 못하는 등신이란 말인가. 높이 솟은 삼각산아 어이 말이 없느냐, 5 000년 긴긴 세월 이 꼴을 보자고 서있느냐. 조선아, 네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라인영은 가슴에 서린 망국의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

무지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컨대 저 간교한 사무라이들도 원쑤이지만 보다 분노를 참을수 없는것은 집안의 원쑤였다. 대신들이 제목을 내대고서라도 반대해나섰더라면 치욕적인 《조약》의 날조는 애당초 없었을것이 아닌가.

그는 일국의 대신들이라는것들이 제 일신의 안락을 위해 언감생심 그런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방망이가 치밀어 오르고 불같은 증오가 만장으로 치솟아올랐다.

역적을 치자!...

이해도 다 저물어가는 어느날 독립문앞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라인영과 그의 동료들이였다.

인영은 낮으나 저력있게 말을 하고있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한 끝에 거사에 쓸 룝혈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망국예로 몰아간 <을사5적>들을 2 000만동포의 이름으로 일도량단할 때는 왔습니다.》

라인영은 잠시 말을 끊고 동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비장함이 어려있었다.

《거사날자는 정미(1907)년 음력 정월초하루입니다. <을사5적>들이 대궐에 입시할 때 모조리 일망타진해서 민족의 한을 풀어줍시다. 학부대신 리완용은 대하군 자네가 맡아주게. 그리고 리근택은 리용재 임자가 처리하게. 리지용은 김동필이, 박제순이는 기호군이, 권중현은 홍래군...》

예순고개를 바라보는 리기가 불쑥 꺼들었다.

《나도 리홍래군과 함께 가겠네.》

《해학(리기의 호)선생님은 나이도 많으신데...》

리기는 인영의 말을 밀막으며 자기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무슨 소릴, 로당익장이라는 말 못들어봤나. 고려의 최영 장군은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칼 차고 활 쥐고 전장을 누볐는데 그에 비하면 내 나이야 장년이지. 내 비록 한갓 선비에 지나지 않지만 역적들의 숨통을 끊어놔서 사람들을 경계할 심산이야. 누구든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은 제명을 부지할 수 없다고 말일세.》

인영의 울대뼈가 꿈틀했다.

《선생님의 그 말씀이 한결 더 의지가 됩니다.》

라인영은 기름을 바른듯 영채도는 눈을 번쩍이며 또다시 동료들을 보더니 바른손을 들어 가슴에 얹었다.

《격멸오적!》

그들도 인영의 본을 따랐다.

《격멸오적!》

그러나 거사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당시 교통이 불편할 때 인지라 결사대원들이 거사전까지 한성에 올라오지 못하였던 것이다. 부득불 거사날자를 미룰수밖에 없었다.

3월 25일 꽃샘을 하느라고 바람이 기승스럽게 불어댔다. 이날 아침 광화문네거리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넘기고 앞가슴에 금실로 수놓은 대례복차림의 박제순이가 인력거를 타고 나타났다. 박제순은 힘껏 달리는 인력거군을 연방 재촉하며 불안에 떠는듯한 눈을 사방 디룩거렸다. 죄진 놈 뒤 가려웁다고 그는 언제 어디서 격노한 군중들의 칼이나 몽둥이타작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구심을 느끼고있었다. 어제는 리완용의 집이 폭탄 세례를 받아 순식간에 재더미로 되었다면 오늘은 내 목이 그

누구에겐가 떨어져 혹 광화문앞에 매달릴지 알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게다가 봄이라지만 이날따라 날씨까지 스산하여 까닭모를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지긋게 달라붙는것을 털어버릴수 없었다.

이때 광화문앞에 매복하고있던 오기호의 눈에 박제순의 물결이 비껴들었다.

《박제순이가 온다. 실수가 없어야 해.》

놀란듯한 돼지눈깔을 두릿두릿하는 박제순의 상통을 알아보자 한 대원이 침을 각 뱉었다.

《그놈 되우 겁기에 질렸군. 저승사자들이 네놈을 잡으러 왔으니 오늘은 지옥의 기름가마에나 콕 처박혀라.》

오기호의 손짓에 대원들이 일제히 뛰쳐나와 놈을 향해 룡혈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웬 일인지 총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게 왜 이래?!》

결사대원들은 당황하였다. 총을 다루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다 급한 나머지 안전장치를 풀지 못했던것이다.

그들이 어물거리는 사이에 박제순은 광화문 반대편쪽의 좁고 굽은 골목길로 해서 미꾸라지처럼 종로쪽으로 날쌔게 피해버렸다. 결국은 한방의 총소리도 내지 못하였다.

대원들은 분해서 룡혈포를 땅바닥에 탕탕 두드리고 가슴을 쳤다.

《아! 역적놈을 놓치다니!》

《분하구나!》

《원통하구나!》

다른 행동조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총소리를 울린것은 리홍래의 결사대뿐이었으나 그마저도 사동거리에서 리기가 권중현을 빗맞히는데다 삼엄한 경계망을 뚫지 못하여 적지 않은 동료들이 체포되었다. 거사는 실패하고 수많은 동료들이 검거되었다.

라인영의 마음은 무딘 칼로 살을 도려내는듯 쓰리고 아팠다.

《간신 역적들을 살려보내고 내 어찌 이 나라 백성들을 마주볼고!》

그의 두볼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품들여 준비한 거사가 이렇게 끝날줄이야.》

오기호도 통분하여 몸부림쳤다.

라인영은 붙잡힌 동료들을 생각하니 더욱 괴로워 견딜수 없었다.

며칠후 그는 오기호, 김인식과 함께 평리원으로 갔다. 라인영의 손에는 간신처단장과 룡혈포가 들려있었다. 어차피 자수를 하자니 증거물이 있어야 했던것이다.

《이번 거사는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들의 숨통을 끊어 놓으려고 내가 주도한 일ियो. 다른 사람들은 내 지시를 따랐을뿐이니 무고한 동료들을 석방하오.》

라인영의 자백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달포가 썩 지난 후에 그와 그의 동료 30명이 재판관을 받게 되었다.

7월초 드디어 재판하는 날이 왔다. 왜놈들은 백성들의 항의가 두려워 방청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라인영은 변호를 거부하였다. 피고석에는 라인영, 오기호, 김인식, 리기, 리용재, 박대하, 김동필, 리홍래 등 30명이 앉아있었다.

법부대신 조중응이 종을 요란히 울리고나서 공판을 선언하였다.

왜검사가 사건의 전말을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고 라인영, 오기호 등 피고들은 <국법>을 심히 문란시켜 국가의 원로이며 일본의 벗인 중신들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였으나 미수로 끝났는바 엄중한 국가적범죄를 범하였다. 이는 현 피고들이 죄다 시인하는바이다.》

조중응이 피고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피고 라인영은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는가.》

라인영이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죄인이라는것을 부인한다. 나는 저 리완용이나 박제순이 같은 역적들에게 죄를 지은것이 아니라 민족앞에 떳떳치 못할뿐이다. 왜냐면 나와 나의 동료들은 황제의 옥새날인조차도 없는 <조약>을 날조하여 저 사무라이들에게 국권을 팔아먹은 간신 역적들의 머리우에 민족의 이름으로 철추를 내려 나라와 민족의 한을 다소나마 풀려고 한 뜻을 이루지 못했기때문이다. 그래 이게 죄인이란 말인가. 만약 그 누가 법부대신 당신의 집을 강제로 빼앗고 가족들을 노예로 끌어갔다고 치자. 그러면 당신은 그 강도가 활개질을 하는것을 가만 보고만 있겠는가. 피가 끓지 않겠는가. 이런 단순한 리치는 아마 삼척동자라도 알것이다. 또 국권을 손상시킨자에게 어찌어찌한다는것은 법조문에도 있지 않는가.》

왜검사가 바늘눈을 해가지고 기염을 토했다.

《그런 온당치 못한 언행은 못하게 되어있다.》

피고석이 술렁대기 시작했다.

조중응이 종을 요란히 흔들며 조용하라고 그닥 좋지 못한
탁성을 뽑았다.

오기호가 벌떡 통기처 일어나더니 부리부리한 눈을 딱 부릅
뜨고 입을 열었다.

《저 <을사5적>들은 만고의 역적이다. 예로부터 나라를 배
반한자는 릉지처참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또 미친개를 죽인다
해서 죄로 되는 법은 없다.》

피고들의 눈썹들이 심상치 않았다. 솟불같이 이글거리는 눈
들이 당장이라도 거세찬 불길이 되어 조중응을 태워버릴것같
았다.

왜놈검사의 턱짓을 받은 조중응은 꾸중을 받은 비굴한 개모
양을 해가지고 서둘러 판결문을 내리읽었다.

《본 재판은 피고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
다. 피고 라인영은 <형법대전> 제195조 정사를 변경하기 위하
여 란을 일으킨자에 대한 법조문에 걸어 교형에 처하게 되어있
지만 발각되고 체포하기 전에 관청에 자수한자는 2등급을 감
한다는 같은 대전 제142조 2항의 법조문에 의하여 류형 10년
에 처할것이다. 피고 오기호와 김인식은 같은 대전 제137조 2항
의 법조문에 의하여 각각 5년의 류형에 처할것이다. 피고 리
용태는 범죄로 될수 있다는 정상을 알고도 주범자를 방조하고
추종하였으므로 같은 대전 137조 2항의 법조문과 제678조에
의하여 류형 10년에 처할것이다.

...

상기의 판결문은 이상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라인영이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불끈 쥐며 소리쳤다.

《여보시오, 법부대신나리. 당신의 몸에는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고있소 아니면 저 사무라이의 피가 흐르고있소?》

그는 불이 철철 흐르는 눈으로 조중응을 노려보며 창인양 집게손가락으로 왜검사를 찌르듯 가리켰다.

《뭣이?》

왜검사는 화로라도 뒤집어쓴듯 상통이 시뻘개졌다. 놈은 상처자리라도 할퀴운듯 낫을 찡그리더니 탁자를 탕 하고 치며 수소마냥 씹씩거렸다.

《조정의 원로중신들이라는데 눈은 있어도 망울이 없고 몸은 있어도 심지가 없으니 줄당기는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질밖에… 내가 이 자리에서 통절히 자책하는것은 설사 매국노 한 두놈을 죽인다 해서 국권을 회복할수 없다는것이다. 우리가 이번 거사에서 실패했지만 후에라도 조선사람의 피가 끓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꼭 역적들이 이 땅을 딛고 다니지 못하게 할것이다. 난 이런 부당한 판결을 거부한다!》

그러자 피고석에 거세찬 분노의 파도가 일어났다.

《판결은 부당하다!》

《판결을 취소하라!》

울분의 웨침소리, 통분의 부르짖음소리가 법정을 거세게 흔들었다.

귀양지로 가는 날 라인영은 절통하도록 분해서 하늘을 우러르며 《아! 나를 낳은 내 어머니가 첫걸음마를 떼여줄적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몽두쓰고 사슬차고 몸부림치길 바랐더냐!》 하고 부르짖었다.

라인영은 우리 나라 남단 전라남도 진도의 외진 섬에서 귀

양살이를 하였다.

무거운 회색구름이 낮게 드리운 바다가에 물바람과 바다바람이 서로 밀고당길내기를 하며 붙어친다. 마치도 국권회복의 길을 찾아 방황하는 인영의 심정인듯했다.

문득 라인영의 입에서 그 누군가가 지은 시 한수가 흘러나왔다.

바다바람 불어오면
슬픈 소리 울리고
산에 달 떠오르면
그림자도 여워지만

곧은 뿌리 땅밑에
깊이깊이 박혔으니
눈서리도 그 모습
변하게는 못하리

몸은 비록 외진 섬에 갇혀있을지언정 나라위한 마음이야 엮어떨수 있으랴. 인영은 의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그는 이때까지 임금에게 충성하는것이 곧 나라의 독립을 지키는것이라고 믿고있었지만 이번 일을 겪고나서는 황제에 대한 믿음이 점차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임금은 만민의 지아비라 했건만 유약한 황제를 믿고 나라를 지킨다는것은 모래우에 성을 쌓겠다는것이나 다름없는것이였다. 그렇다면 국권을 회복할수 있는 방략은 어디에 있는가. 아직 선

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족의 정신을 배양할수 있는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는것만은 자명한 리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제비들이 뻘뻘— 뻘뻘— 하며 강남으로 날아간다. 그것을 보는 라인영은 불현듯 고향생각이 간절해졌다. 보성까지는 룡로로 사나흘길이다. 아버지는 무탈하신지, 올해 열살 잡히는 딸은 잘 크는지 모두 보고싶고 그리워지는 얼굴들이었다.

그는 먼저 간 안해생각이 났다. 산후탈로 몇년간 신고하던 안해는 끝내 생사기로서 헤매고있었다. 운명하기 며칠전 안해는 인영이 떠주는 약을 마지못해 한모금두모금 받아마시다가 더는 못먹겠는지 도리질을 하였다. 그리고는 이윽도록 인영을 바라보더니 힘겹게 조갈이 든 입술을 벌렸다.

《…당신과 인애를 두고 나 먼저 간다고 욕하지 마세요. 아무쪼록 당신이 인애를 잘…》

안해는 설음이 복받쳐 오열을 터쳤다. 그의 얼굴에서는 줄 끊어진 구슬뿔에서 은구슬이 떨어지듯 눈물이 쭈르르 쏟아져 내렸다.

며칠후 안해는 세상을 하직했다. 발인하는 날 어린것이 엄마의 시체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던것이 아직도 어제 일이런듯 눈앞에 선하다. 언제면 만나볼려는지…

그해 10월 뜻밖에도 인영은 황제의 특사령이 내려 귀양지에서 풀려나오게 되었다.

이른 저녁을 짓는지 집의 굴뚝에서 몽개몽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야릇한 처마밑을 감돌다가 쓸쓸한 골목길로 퍼져나갔다.

온기를 별로 느낄수 없는 가을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저물

어가는 속에 라인영이 석양을 등에 지고 길다란 제 그림자를 밟으며 보성의 옛집으로 들어섰다.

이때 부엌문을 열고 나오던 녀인이 놀란 눈으로 우뚝 그 자리에 멈춰섰다. 형수 김씨였다. 뜻밖에 나타난 시동생을 본 그는 갑자기 흐흑 하고 흐느끼다가 행주치마로 얼른 눈물을 훔치고는 안에 대고 소리쳤다.

《아버님, 인애 아버지가 왔사와요.》

《뭘라구? 누가 왔다구?》

라인영은 서둘러 방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절을 하였다.

《아버님, 그간 옥체만강하셨습니까? 불초한 이 아들이 구실을 못해 아버지께 걱정만 끼쳐드렸습니다.》

아버지 라용집은 누렇게 뜬 아들의 얼굴을 보며 덩덤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힘, 네 죄인된 몸으로 귀양살이는 착실히 하잖구 어인 일로 집에 왔느냐? 자고로 기와집이 무너져도 삼년 간다 했느니라. 아무리 나라의 기강이 해이되었다한들 국법이 그렇게 무르다더냐.》

아버지의 엄엄한 기상에 인영은 잠시 무춤거리다 나직이 여쭙었다.

《황제의 특사가 내려 금방 풀려나오는 길이옵니다.》

《그래?! 네 이자 한 그 말이 참말이렷다.》

그는 아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듯 라인영을 뚫어지게 보았다.

《제 어찌 아버님앞에서 실언을 하겠습니까.》

《나라님의 은총이 실로 고맙기 그지없구나. 황은이 망극하오이다.》

칠순이 훨씬 넘은 라용집은 눈을 습벅거렸다. 그의 얼굴에 감개한 빛이 잠깐 어렸다.

형수는 부엌에서 있는 성의를 다하여 식찬을 마련하고있었다.

이윽고 밥상이 들어왔다. 상에 놓인것이라야 잡곡이 드문드문 섞인 밥에 무우김치, 고추장이 전부이다. 거기에 김씨가 반아온 소주 한병이 곁들여있었다.

《어서 들거라. 국운이 다해가는 때에 금의옥식이 당한 말이나.》

이른 저녁을 치른 후 라용집이 인영에게 물었다.

《그래 장차 어떻게 할셈이나?》

라인영은 심중한 낮빛으로 말하였다.

《어쨌든 국권회복의 초지만은 굽힐수 없습니다. 그 길에서 이 몸을 바칠것을 바란다면 아까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명이 뉘게 있는지는 귀신이나 알 일이다. 여러말말고 며칠 몸을 추세우곤 서당에 나가 아이들에게 글이나 배워줘라. 물덤병술덤병 서빨리 덤비다가 넌 둘째치고라도 온 가문이 멸족의 화를 입을는지 뉘라서 알겠느냐.》

《저 아버님...》

인영은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갑자르기만 하였다. 말부리를 어떻게 헐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던것이다. 이미 작정은 하였건만 막상 부자의절하자는 말을 꺼내자니 그로서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앞을 물러나와 아래방으로 내려왔다.

형수의 무릎을 베고 새곤새곤 자고있는 인애를 받아안고 접도록 내려다보았다. 이제 가면 영영 보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절로 서글퍼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며칠후 라인영은 다시 아버지와 마주앉았다.

《저 아버님, 족보를 보여주십시오.》

라용집은 느닷없이 족보소리를 꺼내자 의아해하였다.

《갑자기 족보는 왜 찾느냐?》

하면서도 자개박이장농속에 정히 간수하고있던 족보를 꺼내왔다.

인영은 라씨가문의 대를 이어오며 물려오는 족보를 한장한장 번졌다. 그의 손이 제 이름자에서 벗어났다. 인영의 눈꼬리가 떨어났다.

《아버님, 저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강건너 볼보듯 할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귀양가는것으로 그쳤지만 앞으로는 어찌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족보에서 제 이름을...》

《뭘, 뭐라구?! 이노움! 이 후레자식같은 놈!》

모진 욕설이 라용집의 입술을 헤집고 튀어나왔다.

《그러니 부자의절을 하겠다 그 말이나, 이 덜된놈! 의암(류린석의 호)선생도 저 사무라이들을 대적하지 못해 아라사로 건너갔다. 헌데 일개 서생인 너 같은 놈이 나서서 국권을 회복한다면 이 나라가 애초에 기울어지지부터 앓았을게다.》

그는 술많은 은빛눈섭을 곤두세우더니 목침으로 방바닥을 치며 야단독장을 쳤다. 아버지의 서늘한 기개에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속이 조막만해서 인영을 쳐다보았다. 돌처럼 굳어

진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다만 기름을 바른 듯 영채도는 두눈만이 초불에 비쳐 반짝일뿐이다.

《아버님, 대들보가 꺾이우는데 어찌 서까래라고 무사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집을 떠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저 하나 죽고사는것이야 무슨 걱정이라만 아버님과 온 가족이 불민한 자식으로 하여금 받는 그 고초를 어찌 견디겠습니까.》

소귀에 경읽기다. 라용집은 눈이 치째질듯 인영을 흘려보았다. 채수염을 쓰다듬는 손이 분을 참느라고 후들후들 떨렸다.

《이놈, 허튼수작말고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자식도 품안에 들 때야 내 자식이라더니 그 장승같은 꼴 보기도 싫다.》

아버지는 장지문을 벌컥 닫아버렸다. 자식을 보는데는 애비만한 눈이 없는 법이다. 아들녀석이 이쯤 잡도리를 하고나섰으면 어쩔수 없다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라인영은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불리울만큼 총명하였다. 라인영이 열살때였다. 서당에 다니던 그는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을 읽다가 성현의 주석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술한 대목을 지워버렸다. 이것은 곧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고 그 소문은 삽시에 멀리 퍼져갔다. 한다하는 유지들도 유교고전이라면 맹목적으로 숭상하던 세월이라 소년 라인영의 놀라운 독해력과 과감한 비판정신은 웬간한 사람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터여서 술한 어른들의 혀를 차게 하였다.

그 소문을 들은 라용집은 분기가 충천하여 회초리로 아들의 종아리를 되우 쳤다.

《이놈자식, 예로부터 글 한자를 배워줘도 평생 스승으로

섬긴다 하였거늘 옛 성현들을 욕되게 하고 저를 가르치는 선생을 조롱하느냐, 이놈!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다 했다. 이 구실 못할 녀석! 어서 가서 선생에게 빌겠느냐 안빌겠느냐?》

라인영의 장단지에는 지렁이가 지나간듯 굵은 자리가 났다. 하지만 그는 이를 사려물고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다. 무엇을 잘못했던 말인가. 성현들이 내놓은것이라고 다 옳을수야 없지 않은가.

아버지는 종시 라인영에게 손을 들고야말았다.

그만큼 어려서부터 라인영은 사람들이 놀라와할 정도로 총명하였고 모든것이 명백하였다.

아버지는 구들고래가 무너질듯 무거운 한숨을 쉬며 장밤을 밟혔고 라인영도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밤사이에 아버지는 열병이라도 앓고난것처럼 얼굴이 혈끔해졌다. 얼굴의 주름살이 늘어나고 더 깊어진듯했다.

라인영은 길차비를 하고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국권회복을 하자니 부득불 아버지께 불효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라용집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로 굵다란 눈물이 드르르 굴러내리며 수염속으로 잦아들었다.

《어험, 옛글에도 충이 있고서야 효가 있다 했느니라. 지금 세월에 충과 효를 어찌 함께 하겠느냐.》

아버지는 경련이라도 일듯 푸들푸들 떨리는 손에 붓을 들어 족보에서 라인영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내 살아생전에 저 왜놈들이 물러가는 꼴을 보겠는지는 모

르겠다. 사나이 한번 큰뜻을 품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 조선의 독립을 만방에 떨칠제 제손으로 다시 여기에 네 이름을 올려라.》

《아버님!》

인영의 어깨가 세차게 오르내렸다.

《어서 가져라!》

라인영은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고 집을 나섰다.

《아빠, 아버지—》

귀청을 때리는 애된 목소리에 인영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언뜻 뒤를 돌아보니 어린 딸애가 김씨의 손에 잡혀 발버둥을 치고있었다.

라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국권회복의 길이 이리도 피로운 일인줄은 내 미처 몰랐구나.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는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아빠— 아!》

딸애의 울음소리가 다시 울렸으나 인영은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한성에 올라온 라인영은 국권회복의 길을 찾아 암중모색하였다. 씨풀이 무성해서 길이 막히는것처럼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과연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구결과 역적 몇놈을 죽이는 것으로써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수 없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무기력해진 그 근저는 무엇인가. 자기의 열이 없어서일가?

이리저리 가지를 치던 라인영의 사색이 한곳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렇다! 우리가 유교를 숭상했기때문이다. 유교의 교리는 맹목적인 숭상을 낳았고 사람들을 무지에 몰아넣었다. 사람이나 나라나 병들면 무력해지는 법이다. 사대에 물젖어 나라는 망국의 길로 치닫고 민족은 정신적지주가 결핍되었다. 민족의 정신을 배양할수 있는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

그때부터 라인영은 력사책들을 독파하였다.

그러는 속에 또 한해가 지났다.

며칠동안 나무가지들을 시달구고 문풍지를 애처롭게 울리며 잔소리많은 시어미마냥 부산스레 붙어치던 찬바람도 지친듯 잠잠해졌다.

이른아침부터 프락의 살구나무우에서 꼬리를 출씩거리며 까치가 《깍, 깍-》 하고 울어댔다.

해가 동산에 한발 가웃이 떠올랐을 때 반백의 늙은이 하나가 건기침을 하며 라인영의 집에 들어섰다.

라인영이 인기척소리에 지계문을 여니 흰 두루마기에 백고무신을 신은 리기가 서있었다.

그는 신을 찾을새도 없이 토방을 내려 리기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해학선생님, 년세도 많으신데 그간 외진 섬에서 얼마나 고초가 많으셨습니까? 인차 찾아가 뵙는다는것이 그만...》

리기는 사람좋은 웃음을 지었다.

그도 라인영과 같이 판결을 받고 귀양을 갔다가 황제의 특사가 내려 풀려나왔다. 다만 귀양간 섬이 다를뿐이었다. 한해사이에 관꿀에서 입귀로 쪽 뺀 주름살이 고랑처럼 더 깊어진듯했다.

《고생한건 홍암이나 내나 마찬가지지. 별고없이. 그간 회포나 나누자고 이렇게 찾아왔네.》

라인영의 손에 이끌려 방안에 들어온 리기는 그가 원하는 자리에 앉았다. 환갑을 넘긴 리기의 두눈에는 심각한 빛이 력력했다. 보매 정배살이회포나 나누자고 온것만 같지 않았다.

이윽고 리기가 수염을 내리쫓으며 입을 열었다.

《홍암도 알테지만 저 사무라이들이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대한제국의 내정권까지 빼앗아낸데다 얼마 안되는 조선군대까지 해산해버려 조선은 도마우에 오른 고기신세가 되였네.

어디 그뿐인가. 나라가 지금 무슨 꼴이 되였나?》

한참 시국을 론하던 리기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그었다.

《망국지민으로 목숨이 붙어있는것이 죄되는 일이네만... 자그마한 벌에도 침이 있거늘, 이 눈에 흙이 들어간대도 망국노의 치욕을 안고 살수는 없네.》

리기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던듯 라인영이 물었다.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조선사람의 량심으로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강건너 불보듯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난 <호남학보>를 발간해서 민중을 계몽시킬 생각이네. 우리가 저 사무라이들에게 국권이 룡락당한건 다 몽매한탓이지. 우리도 밤낮 눈뜬 장님이 되여가지고 일본 같은 나라에 끌려다니기만 할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근대문명을 배워 따라잡아야 할게 아닌가.》

《그러니 계몽으로 국권회복을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이를테면 그렇게 말할수도 있지.》

라인영은 몸은 이미 늙었어도 국권회복을 조선의 남아로서 마땅히 스스로 지녀야 할 본분으로 걸머지는 리기의 강인함에 머리가 숙어졌다.

《물론 민중을 계몽시키는것도 좋지만 제 이미전부터 생각해온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겪은바이지만 청탁외교나 몇몇 사람의 테로로써는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을수 없습니다. 마치도 병풍속의 닭이 해를 치기를 기다리는것과 같은 허무한 일이지요.

나라가 망하게 된것은 진정한 민족의 열이 없었기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는 망했어도 겨레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전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지성으로 모시는 단군교화운동을 벌리자는것입니다. 단군교화야말로 참다운 구국운동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자면 민족의 정신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라인영의 열기오른 말을 듣는 순간 리기는 꿈속을 헤매다가 깨어난듯한 느낌이 들었다. 리기는 잠시 라인영이 보살이라도 되듯 찬찬히 바라보았다.

《좀 자상히 말하게.》

라인영이 다시 말을 이었다.

《어느 애국지사 몇사람의 힘만으로는 국권을 회복할수 없습니다. 오늘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고 대신감투를 뒤집어쓴 작자들은 선두에서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고있습니다. 일제를 물리치고 쓰러진 민족을 일떠세우자면 온 겨레가 단군대황조를 지성으로 모시고 받들어 그 정신으로 일치단합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겨레의 정신을 배

양할수 있는 민족종교인 단군교를 하루빨리 나와야 합니다.》

리기는 울대가 꿀꺽 울리게 침을 크게 삼켰다. 카톨릭교나 불교, 유교와 같이 남의 나라 종교가 아니라 내 나라의 종교라는데 공감이 갔으며 그것이 민족의 시조를 내세운다는 말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럼 단군교가 내세우는 교의(리념)는 무엇인가?》

《사람의 근본리익을 실현하며 자연과 사회의 생리에 맞게 세상을 리상적으로 만드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홍익인간>(인간의 근본리익을 실현하는것), <리화세계>(세상을 자연과 인간사회의 리치에 맞게 리상적으로 만드는데)라고 하지요.》

손을 힘있게 내저으며 말하는 라인영의 두눈은 영채롭게 빛나고있었다. 계속해서 그는 단군교의 신앙대상과 교의에 따르는 종지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환인, 환웅, 환검(단군)은 신으로 숭배하며 이런 의미에서 환인, 환웅, 환검을 한배검, 한얼님이라고 한다. 즉 단군교의 신앙대상은 한얼이다.

한얼님을 공경하고 받드는것(경봉천신), 사람의 신령한 본성을 정성들여 수양하는것(성수령성), 겨레를 사랑으로 화합하는것(애합종족), 행복을 안정하게 구하는것(정구리복), 누구나 힘껏 일하는것(근무산업)이 단군교의 교의에 따르는 종지라고 할수 있다.

《선생님도 말씀하신것처럼 저 불구대천의 왜놈들은 조선을 칼도마우에 올려놓고 란도질하려 합니다. 우리 조선민족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려 하지요. 노예는 비록 숨쉬고 살아도 정신은 없습니다. 이 땅의 충의지사라면 한탄만 할것이 아니라 배

달민족의 얼을 불러일으켜 망국의 비운을 몰아내고 이 땅우에 민중이 복락하는 배달국가를 일떠세워야 합니다.》

리기는 일찌기 유교성리학에 침을 뱉고 실사구시, 리용후생을 제창한 류형원, 정약용 등 실학자들의 학문을 연구하여왔다. 그러한 리기에게 있어서 죽은 다음에 어찌어찌된다는 카톨릭교나 불교의 룬회설 같은 허황한 말이나 공자왈, 맹자왈하는 유교의 교리보다도 라인영이 말하는 단군교의 교의가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

라인영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던듯 리기가 바른손으로 무릎을 소리나게 철썩 쳤다.

흥분된 그의 목청이 즈렁즈렁 방안을 울렸다.

《옳거니! 우리 민족이 단군성왕의 교화의 힘을 입게 되면 저 사무라이들이 물러가고 독립이 되겠지. 십년 세도없고 열흘 붉은 꽃 없는 법이지. 암, 그렇고말고.》

두사람은 손에 손을 덧쌓고 호탕한 웃음을 터쳤다. 실로 망국의 비운이 짙어가는 하늘아래서 처음으로 가슴후련하게 웃어보았다.

그후 두사람은 의기를 잃지 않고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단군교를 내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한성 북부 재동이다.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하는 데서 걸림돌로 되는 단종의 측근인 김종서와 일가족속을 철퇴로 때려죽인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온 동네골목에 재를 뿌린 후부터 동네이름을 《젯골》이라 부르던것이 지금은 재동으로 되었다.

1909년 정월 14일(음력) 저녁 북악산마루로 떠오른 둥근달이 은백색의 광휘를 뿌리며 짙은 어둠을 몰아내고있었다. 보름이 당장이라 달은 거의나 찬 둥근달이다. 이날 이 재동의 취운정으로 각양각색의 차림새를 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이기도 각각이다.

종교적분위기에 휩싸인 초가집의 북쪽벽에는 휘장을 치고 단군대황조신위를 모신 제단을 차렸다. 휘장 량옆에는 《홍익인간》, 《리화세계》라고 쓴 족자가 걸려있었다. 제단앞의 자개박이소반에는 향을 피울 궤가 놓여있고 궤를 중심으로 초대를 량옆으로 벌려놓았다. 초대에서 발산하는 빛이 방안을 짝 채웠다.

어느 집에선가 땡- 하고 자정을 알리는 벽시계종소리가 야밤의 고즈넉한 정적을 깨뜨리며 울렸다. 어언 시간이 흘러 자정도 지나고 새벽이 되었다.

라인영이 궤에 향불을 피웠다. 초불과 함께 향을 태우는 파르스름한 가는 연기가 실오리처럼 까불까불 피어올랐다. 라인영은 은술잔에 리기가 부어주는 술을 받아 상에 놓고 기도를 했다.

《지존막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한배검께서 굽어살펴주옵소서.

다함이 없으신 사랑의 빛을 늘 받아오면서도 오래동안 근본을 잊어버리던 이 무리의 어리석음을 제스스로 뉘우치나이다. 다시 비울것은 이 무리의 저지른바 많은 허물을 다 접어주시고 사랑에 사랑을 더하시어 깨달음 깊고 넓게 열어주시옵소서. 꿈에서조차 망국노의 설음을 맛보는 우리들에게 나라찾을

방락을 밝혀주옵소서. 어둠속을 헤매는 우리들에게 광명의 빛을 안겨주옵소서. 웅겁하고 거룩하옵신 우리 한배꼽이시여!》

기도를 마치고 라인영은 단군대황조신위앞에 큰절을 올렸다. 그는 리기, 오기호, 류근, 정훈모, 강석화 등 수십여명의 동료들과 함께 해당한 절차에 맞추어 제천의식을 거행하고 《단군교포명서》를 내리읽었다.

읽기를 마치자 라인영은 단군교의 창시를 선언하였다.

《오늘 우리는 망국의 비운을 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하고자 단군교를 창시하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단군교는 엄연한 의미에서 볼 때 창시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단군교는 단군성왕이 창시한 민족종교입니다. 오랜 기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쇠락되었던것을 지금 다시 일으키는것이므로 마땅히 금일은 창시일이 아니라 <중광일>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라인영은 잠시 말을 끊고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용암마냥 분출하는 격정을 가까스로 진정하였다.

《<중광>이란 없어졌던 태고시대의 단군교를 재건하고 단군의 의지를 받들어 다시 빛내인다는 뜻입니다. 단군성왕을 신으로 모셔야 재앙을 막고 복락을 누릴수 있습니다. 단군신만이 이 땅의 만백성을 구제할 유일구제신입니다. 단군신을 성심성의로 모시고 단군교화로 민족의 얼을 지키며 배달의 얼로 애국애민의 넋을 키웁시다. 우리모두 한마음 일치교화하여 왜놈들을 몰아내고 복된 세상을 꾸려나갑시다.》

기운이 북받쳐 두루마기의 넓은 소매가 펄럭이도록 팔을 휘저우며 하는 그의 말이 끝나자 동료들은 박수를 쳤다.

비로소 민족부흥의 《대도》를 마련하였다는 흥분으로 하여 라인영과 그의 동료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아직은 연약한 날개와 깃을 가진 어린 새와 같지만 장차 창공을 훨훨 날으는 대붕이 되리라는 믿음에서였다.

라인영이 3월 6일 《단군성덕가》를 창작공포하는것을 계기로 하여 이날에 단군교 교단이 정식 설립되었다.

단군교는 발족하자마자 비탄에 잠겨있던 사람들의 심금을 쉽게 틀어잡았다. 정신적허탈감에 비칠거리던 사람들은 단군교의 교리를 신비로운 영양분으로 섭취하였다.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수만명의 교인들이 단군교에 입교하였다.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단군교는 경전과 교리, 신앙의식과 계율, 행정기구를 갖추면서 종교조직의 체모를 세워나갔다.

급속한 교인확대에 깜짝 놀란 일제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해가 지자 낮동안 찌물कु던 열기는 어지간히 숙어졌지만 더위는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다. 한성 남산에 자리잡은 일제통감관저 앞뜰의 정자에 군도를 두발끝사이에 곧추세우고 칼자루우에 두손을 포개여엮은 50대말엽의 대머리 늙다리가 길게 찌진 눈을 쪼프리고 정자밑의련꽃을 바라보고있다. 어깨에는 금술견장, 누런 단추가 주련이 달린 제복, 땡기끈을 어깨에서 옆구리로 매고 앞가슴에 왜왕이 하사한 번쩍거리는 메달들을 단 그가 바로 1910년 5월말 3대 조선통감의 자리에 올라앉은 데라우찌이다.

둥글둥글한 련꽃잎사귀들이 수면을 가리워버렸다. 바람 한점 없는데 련꽃잎사귀 하나가 슬며시 움직이었다. 잎우에 앉아있던 개구리란 놈이 급기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제껴진 잎사

이로 구렁이처럼 생긴 가물치란 놈의 몸체가 슬그머니 킁킁한
물속으로 기여들어가는것이 푹푹히 바라보였다.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우는건 어쩔수 없는 법칙이지.》

혼자소리로 뇌이던 데라우찌는 며칠전에 만났던 순종황제를
생각하며 코웃음을 쳤다. 원체 룡상이란 천하를 거머쥘수 있
는 임금이 앉는 자리다. 그럴진대 저렇듯 좀스러운 사람이 앉
아서야 나라의 체모를 세울수 있겠는가. ...

상념에서 깨어난 그는 2층 통감방으로 올라왔다. 안락의자
에 앉아있던 통감부 외사과장 고마쓰가 방으로 들어서는 데라
우찌를 보자 벌떡 일어섰다. 좀 동안을 두고 갓 경무총감으로
임명된 이전 헌병사령관 아까시가 나타났다.

경무총감은 통감부 외사과장에게 일장 훈시를 하는 데라우
찌에게 장화뒤축을 딱 소리나게 붙이면서 군례를 하였다. 경
무총감의 인사를 건성 받고난 데라우찌가 고마쓰에게 물었다.

《고마쓰, 합방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있는가?》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리완용도 합방에 대해서는 주춤
하며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그야 그렇겠지. 아무리 맥이 없는 나라라고 해도 제 명줄
을 꿔겠다는데 어서 죽여달라고 하진 않을테니까. 아무리 그
래봤댔자 언발에 오줌누기지. 토끼가 아무리 억울해도 호랑이
에게 달려들수는 없는 법이다.》

데라우찌는 윤기도는 코수염을 쓰다듬으며 일장 훈시를 늘
어놓았다.

《조선반도를 정복하려는것은 우리 대일본제국의 국책이며
야마토민족의 오랜 숙원이다. 300여년전 임진년에 근 20만의

대군으로 성사시키지 못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망, 제국의 정략을 실현할 시기가 도래하고있다. 조선은 씹을대로 씹은 고기덩이나 같다. 목구멍으로 넘기는것은 시간문제지.

에또— 이또상이 <을사조약>으로 제국력사의 한페이지를 기록했다면 이 데라우찌는 조선을 병합하여 우리 일본의 새로운 력사를 창조할것이다. 만전을 기하라.》

한창 기염을 토하던 데라우찌는 목이 마른듯 앞에 놓인 차잔을 들어 입에 댔다. 천천히 몇모금 들이킨 데라우찌는 경무총감에게 무슨 용건인가 하는 묻는듯한 눈길을 주었다.

《통감각하, 보고에 의하면 요즘 반도인들이 그 무슨 종교단체를 못하고 교인들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종교단체? 무슨 종교단체말인가?》

《예. 저 반도인들이 단군이라는 저희네 조상을 모신다는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족의 얼을 찾는다는것입니다.》

경무총감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데라우찌는 실소를 하였다.

《다 빈껍데기같은 무우깍지인 주제에 조상이니, 얼이니 하는게 무슨 소용인가. 참, 반도인들이란...》

심술궂게 생긴 아래입술을 삐죽 내미는 데라우찌의 낯에는 비웃음이 삐주름히 떠올랐다.

《각하, 그저 웃음으로 넘길 일이 아닌것같습니다. 지금 도처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고 반일기운이 농후한 때에 만약 이 종교가 그들에게 침습한다면...》

경무총감은 데라우찌의 눈총에 기가 질려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아까시, 넌 식객인가 경무총감인가? 너에게 제집들처럼

그따위 우는소리나 하라고 경무총감자리에 앉힌줄 아는가?》

물풍스럽게 내뿜는 데라우찌의 큰소리에 경무총감은 얼굴에 화로를 뒤집어쓴듯 귀볼까지 새빨개졌다.

이때 고마쓰가 무례안경숙의 눈알을 굴리더니 새까만 수염 끝이 붓촉같이 치들린 턱을 달달 떨어뜨렸다.

《각하, 아까시중장의 말에도 일리는 있는것 같습니다. 갑오년 동학의 란때 <척양척왜>, <멸축양왜>를 웨치며 항거해나선 것도 천도교를 믿는 동학도들이 아니였습니다까.》

《그걸 가지구 누굴 혼시하자는건가? 자네도 외교사업에 분투하더니 반도의 역사를 곧잘 아네그려.》

《그런게 아닙니다. 우직한 놈에게는 약은 꺾로 대하고 약은 놈에게는 우직하게 대하는것도 하나의 수지요. 그들에게 야마또다마시로 세뇌시키자는것입니다.》

《난 군인이다. 군인에게는 오직 무자비성만이 필요하다. 일체 반일적인 언론, 집회, 결사, 시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 반도인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대일본제국에 었서는것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무자비하게 진압하라.》

일제는 단군을 말살하기 위하여 단군과 관련한 역사책들과 우리 나라 고대사를 취급한 도서들을 닥치는대로 빼앗아내고 소각해버렸다. 1910년에 들어와 이른바 조선의 관습과 제반 제도조사라는 미명밑에 전국의 각 도, 군경찰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수십만권에 달하는 단군관계 역사책들을 불태워버렸다.

일제의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놈들은 강동에 있는 단군릉을 수차레나 도굴하고 귀중한 문화재들을 털어냈으

며 전통적인 의식이 진행되던 평양의 승령전을 폐쇄시켜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군을 숭상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단군교가 반일단체로 지목되는 경우 폐교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런 이유로 하여 1910년 9월 단군교는 교의 명칭에서 단군의 이름을 직접 로출시키지 않기 위해 교명을 크다는 뜻을 가진 《대》자와 원시조라는 뜻을 가진 《종》을 붙여 대종교로 개칭하였다.

날로 교인들이 늘어나고 의식절차와 규범, 치밀한 조직체계가 갖추어지자 교인들은 라인영을 대종사(교조)로 추천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라철이라고 고쳐 불렀다.

일제는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허울뿐이던 조선봉건국을 완전히 없애버린것으로 하여 조선민족의 거세찬 반일기세를 두려워하였다. 이러한 때 《매일신보》에 《대종교에서 도사교 라철 주간으로 단군개천일 경하식이 거행되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아까시는 이 소식에 접하고 깜짝 놀랐다. 합병후 조선통감부가 총독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아까시도 경무총감으로부터 경무국장으로 되었다. 그는 곧 라철을 총독부로 호출하였다.

경무국장방에 들어선 라철을 보자 아까시가 자리를 권했다. 어느 사람 같으면 얼혼이 나가겠는데 영채도는 두눈과 접기없는 몸가짐을 본 아까시는 역시 얌전한 선비가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 옳긴 옳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다.

아까시가 짐짓 점잔을 빼며 수작을 걸었다.

《홍암선생이십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지만 선생의

그 매일적인 경향에는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아까시는 라철의 앞으로 《매일신보》를 밀어놓았다.

라철이 잠간 신문을 보다가 아까시에게 눈길을 돌려 바라보았다. 약간 치켜진 눈썹, 두툼한 입술과 네모진 턱에 살갗을 잡아당기기라도 한듯 팽팽한 볼은 꼭 심술궂은 도적놈 한 가지였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요?》

《단군 그자체가 배일사상이란 말이요.》

그러다가 아까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קות은 미소를 지었다.

《한가지 안은 있습니다. 대종교가 우리 일본의 아마데라스 오오미가미를 숭상하는것입니다. 군자도 시속을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홍암선생은 명성은 명성대로 얻고 대종교도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테니 썩 먹고 알도 먹는 셈이지요.》

아마데라스 오오미가미라면 6세기말~7세기초에 야마또왕정 통치배들이 전 일본을 통합할 야심밑에 《신도》라는 토착종교를 만들어내면서 그 신앙대상으로 내세운 전설속의 신이다.

그러니 아마데라스 오오미가미를 단군의 우에 놓으라는 소리다.

라철은 날카롭게 아까시를 쏘아보았다. 차거운 그 눈길에 시퍼런 불이 번뜩이였다. 그러자 후끈후끈하던 방안에 찬 기운이 샅시에 회오리치는것같았다.

그는 아까시의 무지스러운 말에 애써 분을 눌렀다.

《오이닝쿨에 가지 열린단 말을 들어봤소? 근본은 바꿀수

없는 법이요. 우리 조선은 5 000년의 역사를 가지고있소. 역사를 거슬러봐도 일본이야 조선의 혜택을 좀 작게 받아왔소. 우리 선조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일본이 어떻게 오늘에까지 이르렀겠소.》

아까시의 말투가 거칠어졌다.

《뭣이? 조선의 혜택?! 조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단군이나 믿어가지고 나라가 생기는가. 돌맹이를 갖다놓고 닭알되기를 바라는노릇이지.》

《여보시오, 경무국장나리. 국호는 빼앗겼지만 조선민족은 살아있소! 사나운 겨울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찾아오는 법이요. 그럼 할 말은 다했으니 난 그만 가보겠소.》

《흥, 이 세상에 빈 자루를 세울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둬라!》

아까시의 비린칭이 경무국장의 방을 나서는 라철의 뒤를 지긋하게 쫓아왔다.

표표한 얼굴에 독기가 가득 서려 땡땡거리는 소리에 거미뒤 다리같이 꺾두룩한 부관이 급히 방에 들어섰다.

아까시는 라인영이 눈앞에 있기라도 한듯 문쪽을 노려보며 씩씩거렸다.

《건방진 놈의 자식!》

상전의 낯판대기를 보고 일을 짐작한 부관이 아까시에게 물었다.

《왜 그 반도인을 제발로 걸어나가게 했습니까? 이제라도 당장...》

《가만!》

아까시는 옆구리에 찬 낫뿔도를 절걱거리며 달려나가려는 부관을 제지시켰다.

《난 문어같이 뼈대없는 자식들보다 저런 놈들을 더 좋아한다. 저렇게 민심이 쏠린자들을 잘만 휘여잡으면 제국의 손발노릇을 할수 있지. 정 말을 듣지 않으면 올라미를 씌우는 수밖에.》

아까시는 눈귀에 잔금을 지으며 씹어빨듯 뇌까렸다.

한편 아까시의 방을 나선 라철은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단숨을 몰아쉬며 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흉중에서는 불이 황황 일고있었다.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단군을 모욕한 네놈들에게 벼락이 내릴것이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불의에 굴하지 않는것이 바로 조선사람이다.)

그는 더욱 분발하여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그 어디에서나 대종교확장에 몰두하였다.

라철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남서북지역을 총괄하는 사도본사를 세웠다. 동만주에서 연해주를 총괄하는 동도본사, 남만주에서 산해관까지 이르는 서도본사, 북만주에서 만주리까지 포함한 북도본사, 조선반도전역은 남도본사로 구획지었다.

단군숭배는 민족의식을 환기시키고 백두산에 대한 숭상은 대일적개심을 고취하는것이였다. 이를 일제가 눈뜬 장님처럼 묵인할수는 없는것이다. 일제는 끝내 조선총독부령 제83호로 《종교통제안》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 《종교통제안》이라는것은 조선의 진보적인 종교를 탄압하는것을 골자로 하는것

이었다.

대종교는 사나운 회오리속에 말려들었다. 《종교통제안》이 발표되자 교인들속에서 의론이 분분해졌다. 한쪽에서는 일제의 탄압속에서 대종교를 계속 믿어야 하는가 하고 의문시하고 또 한쪽에서는 대종교를 지켜야 한다고 피대를 돈구었다. 자칫하면 대종교가 분열될 위기에 처할수 있었다.

단군신을 받아들여온 대종교가 일제의 《종교통제안》이라는 일진광풍앞에 비틀거리고있었다.

라철은 대종교앞에 닥쳐온 난국을 뚫고나갈 출로를 모색하였지만 실통한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가래질을 하재도 세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여야 하거늘 단군신을 받드는 신자들의 마음이 개개명창이 되여가지고 어찌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며 민족의 얼을 지키랴.

라철은 오래동안 생각하던 끝에 순교할것을 결심했다. 그는 국권회복의 기치아래 사람들을 묶어세우는 길은 자신의 몸을 제단에 바쳐 그들모두를 일치단합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제 한몸이 한점의 불꽃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립정신의 불길로 타래쳐오르기를 바랐다. 그래서 난파선마냥 헤매는 대종교의 교인들모두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쳐 조선 독립이라는 등대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가물거리는 초불에 초물이 쉬임없이 녹아내리고있었다.

라철은 살고싶었다. 살아서 단군의 얼이 용용히 굽이치는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싶었다.

허나 어이하랴. 망국멸족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있었다. 나라가 정녕 망국일로로 치

닫지 않는다면 왜 지중한 목숨을 끊을가보냐. 사나이의 위국 충절을 세우려는것이 한생의 뜻이었거늘 내 오늘 그 뜻에 죽으리로다. ...

국권회복의 열망으로 한생을 애타게 불태웠건만 만민이 복락하는 《한열집》을 끝내 지어보지 못하고 생을 마친 독립지사.

독립의 그날까지 또 얼마나 많은 라철이들이 몸부림치다 가야 할는지 그것은 누구도 모르고있었다. ...

송 정 민

사화전설집 진주성의 수리개

심 사 박사 부교수 림호성, 박사 부교수 김지원
편 집 최 은 정
장 정 리 성 일
교 정 주 설 미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쇄 공장
인 쇄 주체111(2022)년 7월 21일
발 행 주체111(2022)년 7월 25일

Г - 1543 Է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68-5